

M46-9-1/2007.04

제9권 제1호/Vol. 9 No. 1

KREI
북한농업동향

KREI Quarterly Agricultural Trends in North Korea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일반인이 북한농업을 이해하고 정부가 대북 농업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북한농업팀이 북한의 최근 농업 동향을 정리·분석하여 이 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1년에 4회(1, 4, 7, 10월) 발간되며, 우리 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www.krei.re.kr> “북한농업정보”

- 연락처: 전화 02-3299-4324 전송 02-959-6110

- 내용 문의:

권태진 kwontj@krei.re.kr	02-3299-4255
김영훈 kyhoon@krei.re.kr	02-3299-4367
지인배 jiinbae@krei.re.kr	02-3299-4324

목 차

□ 포커스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추진 방향 / 3

□ 동향분석

- | | |
|--------------|------------------|
| 1. 농업정책 / 20 | 6. 농업 기반 / 42 |
| 2. 벼농사 / 26 | 7. 산 림 / 47 |
| 3. 축 산 / 31 | 8. 기타 작물 / 57 |
| 4. 감자농사 / 37 | 9. 기타 보도 동향 / 65 |
| 5. 이모작 / 40 | |

□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 85
 -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85
 -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96
 -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97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 122
 -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122
 -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 126

□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 135

포커스

●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추진 방향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추진 방향

권 태 진

(선임연구위원, kwontj@krei.re.kr)

북한은 농업생산의 증대를 경제정책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식량의 증산과 자급을 경제정책의 틀을 넘어 국가 경영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 북한 당국은 자체적인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선진 과학기술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지난 4월 11일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금년도 과학기술 부문 투자를 지난해에 비해 60%나 증액시킨 데 서도 확인된다.

남북한은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농업관리방식 때문에 농업기술개발의 방향도 달랐다. 그러나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농업기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유사한 점이 많고 상호 교류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크다. 남북한은 농업기술에 있어서도 각기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술의 교류협력은 상호보완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윈-윈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은 아직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 교류를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민간 차원의 협력은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그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외국의 농업기술 교류나 국제 민간단체의 기술 지원 경험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인 기술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향후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이 추진된다면 이는 2005년 8월에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간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은 개별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추진하되 외국의 민간단체가 그랬던 것처럼 정부 차원의 기술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현재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콩 재배, 초식가축 사육 기술의 교류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뒤떨어져 있는 채소와 과수, 특용작물, 축산 기술 협력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 개발의 기초가 되는 동식물 유전자원,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토양 및 농지자원의 정보화 기술의 교류가 함께 추진될 필요가 있다. 농업은 단순히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자원을 보존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산림을 보존하고 가꾸는 기술의 개발도 중요하다. 또한 농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양잠, 인삼, 한약재 등 특용작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분야에 대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뒤떨어진 메카트로닉스,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유전자 조작을 응용한 첨단기술은 교류협력의 선호도가 특히 높은 기술이다.

1. 서 론

북한은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5차 회의에서 금년도 과학기술 부문 투자를 작년에 비해 60.3% 증액시킬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작년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4차 회의에서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전년 대비 3.1% 증액시킨 것과 비교하면 대폭적인 투자 확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년도의 중점 육성 분야로 다루고 있는 농업 8.5%, 경공업 16.8%, 교육 7% 예산 증액과 비교하더라도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증액은 괄목할만하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식량문제의 해결이나 주민생활의 개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도 신년공동사설에서 새롭고 앞선 농업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는 북한이 앞으로 외부와의 농업기술 교류를 확대하며 특히 남북한 사이의 농업기술 교류협력도 더욱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남북한 당국자 사이의 농업기술 교류 활성화는 이미 2005년 8월 개최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에서 상호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당시 합의된 내용이 실행되지 않고 있지만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 교류는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정부 차원의 기술교류협력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남북한 사이의 농업기술교류는 우선 민간 차원의 협력으로 출발해도 좋을 것이다. 이미 민간 차원의 기술교류협력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지만 민간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농업기술의 특성상 대부분의 중요한 기술은 민간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기술에 대한 개발자의 권리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이 개발한 기술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고 정부에서 개발한 원천기술을 정부의 허락 없이 민간이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각 나라마다 농업기술의 개발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 사회가 처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기술 수요도 다르기 마련이다. 우리의 경우 농정의 목표를 국가의 경제사회 비전이라는 상위의 목표와 연계하여 설정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연계해서는 농정의 목표를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 도·농간 균형소득 달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정책과 연계해서는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농업의 다원적 기능 증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양극화 해소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국민들이 소비할 안전한 식품을 효율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복지를 향상시키며,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북한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먹는 문제 해결을 국정의 최상위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해서는 농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북한의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단기적인 원인은 199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의 악화라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서는 농업기반의 취약성, 중앙집권적 농업 관리방식, 영농자재의 부족, 농업기술의 후진성 등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들 세 요인을 함께 개선해야만 농업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들 요인들은 서로 연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요인을 개선한다고 해서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방법부터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농업기술 수준과 그 특징을 검토한 다음 남북한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가능성을 제시코자 한다.

2. 남북한 농업기술의 특징과 과제

지난 반세기 동안 농업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새로운 다수확 품종 개발을 통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미 녹색혁명을 경험하였고 비료, 농약 등 필수적인 투입재의 개발로 생화학적 기술의 진전을 가져왔다. 농기계의 개발은 노동력의 절감과 함께 농민들을 힘든 노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 새로운 농업기술의 개발은 농민에게는 소득 증대를, 소비자에게는 더욱 풍요로운 식생활을 보장하였으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남북은 모두 농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토지생산성을 높이려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금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남북한 모두 좁은 토지에다 많은 노동력과 비료, 농약을 투입하는 농업기술을 사용하였으나 그 동안 경제 환경이 바뀌면서 농업기술도 다르게 발전해 왔다.

남북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이한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기술개발의 방향도 달랐다. 북한은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으며 남한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기술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기술을 개발하여 왔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농업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남한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이 풍부하다. 어떤 사회든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을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북한은 풍부한 노동력이 이용하여 토지생산성 향상에, 남한은 노동을 대체하는 자본을 이용하여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토지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란 일정한 토지에서 농산물을 보다 많이 생산하려는 기술을 말한다. 북한의 기술개발 방향은 주체농법의 요구인 적기적작, 적지적작의 원리를 바탕으로 노동력을 많이 투입하여 정밀한 작업과 밀식재배, 다모작 재배기술에 의한 토지생산성의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원래 북한은 비료나 농약이 풍부하였고 우수한 종자를 많이 개발하였지만 최근에는 농자재가 부족하고 몇몇 작물에 있어서는 종자의 생

산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남한은 농촌에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고 노임이 비싸기 때문에 노동력을 많이 사용하는 기술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 농민들은 가능한 인력을 적게 투입하는 대신 농기계나 비료, 제초제, 비닐 등을 많이 사용하려고 한다. 최근에는 이로 인해 환경폐해가 적지 않게 초래되고 있지만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생산성을 높이는 또 다른 방법으로써 농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이 있다. 남한은 한 때 경지이용율이 150%에 달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110%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북한의 경지이용율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재배기술의 향상으로 지금은 1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경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식량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또한 북한은 토지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한 농지면적에 많은 포기수를 재배하는 밀식재배를 채택하고 있다.

남북 농업기술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관개체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양수장에 의한 관개체계를 확립하고 있으며 남한은 저수지를 이용한 관계체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남북의 경지면적은 거의 비슷하지만 북한은 발면적이 상대적으로 많고 남한은 논면적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관개체계도 이러한 경지조건과 지형조건에 따라 다르게 발전해온 것으로 이해된다. 현재 북한에서 평남관개체계 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천-태성호의 물길공사는 자연유수식의 매우 효과적인 관개체계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업의 경제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국제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많은 유류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향후 석유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유류를 절약하는 농업기술의 개발은 경제성 면에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지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높이는 기술로써 새로운 품종의 개발을 들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벼와 옥수수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수준 품종을 개발하였으며 1980년대 이미 그 성과가 검증된 바 있다. 남한도 벼의 품종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남북의 이러한 기술이 서로 합쳐진다면 감히 어떠한 나라도 벼에 있어서 만든 우리의 기술을 능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한의 무, 배추, 고추 육종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오이, 양파, 당근, 상추 등도 선진 수준에 도달해 있다. 화훼류 중 선인장의 육종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기술은 주로 민간 종묘회사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이미 세계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분야이다. 배나 사과에 있어서는 남한은 이미 우수한 품종을 확보하고 있으며 육종 성과도 높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기술개발의 성과는 대단하다. 가축의 육종과 사양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복제기술을 활용한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가축의 복제기술은 이미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1970년대 초 우리는 통일벼를 개발함으로써 주곡인 쌀을 자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

하였다. 지금까지 달성된 세계의 녹색혁명은 새로운 다수확 품종을 개발함으로써 식량을 증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의 농업기술혁명은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금까지 사용하였던 전통적인 육종기술에다 최첨단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품종을 개발할 것이다. 그러나 품종의 개발방향은 다수확만이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잘 견디며 새로운 유용한 물질을 더 많이 생산하는 방향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주곡의 자급만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다. 비타민 함량이 높은 채소의 개발, 새로운 색깔을 가진 꽃 품종의 개발, 고품질의 과일 육종, 혈압이나 혈당 강하 등 새로운 기능을 가진 식품소재의 개발 등 고부가가치의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업의 활로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농업은 자연환경이라는 제약 속에서 농산물을 공급하는 공급자 위주였지만 이제는 소비자에게 원하는 농산물을 제공하는 소비자 위주의 농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온실 등 시설과 장치를 이용하는 농업기술을 적극 사용하게 될 것이다. 기계와 전자기술을 접목한 자동제어장치, 로봇이 농업에 이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은 멀지 않아 보편적인 기술로써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농업은 농산물을 생산하되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채택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부산물이 함께 생산되어 환경에 부담을 주는 것을 국민들은 원치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농업기술을 개발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다. 저독성 또는 무독성 농약의 개발, 무인 헬리콥터에 의한 농약살포의 정밀작업 기술 개발, 비료의 효과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료 개발 등 환경 보전형 농업기술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논밭을 경운하지 않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토양 양분을 보전하고 토양의 유실을 막는 무경운 농법도 개발되고 있다.

우리는 정보화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시대는 국경이 없고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세계와 우리의 농산물 시장 움직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농업기술 동향을 재빨리 파악하여 대처하는 일은 다른 어떤 기술보다도 중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농자재의 구입이나 농산물의 판매도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유무선 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의 획득과 전파, 거래기술은 농업분야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3.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추진 현황

아직 남북한은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2005년 남북농업

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부 차원의 농업기술협력을 추진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의 미온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후속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당시 합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육묘시설,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기자재, 배합사료, 영농기술의 지원이다. 둘째, 현대적인 종자생산, 가공, 처리, 보관시설 지원이다. 셋째, 우량 유전자원의 교환, 육종 및 재배기술, 생물농약의 개발과 생산기술, 농작물 생육예보 및 병해충 종합관리(IPM) 등 농업기술협력과 전문가의 교류이다. 넷째, 축산, 과수, 채소, 잠업, 특용작물 분야의 협력이다. 다섯째, 토지, 생산 환경 보호를 위한 양묘장 조성 및 산림병해충 방제이다. 합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필요한 기술과 물자교류, 농업환경의 개선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당시 남북한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 실행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남북한 사이에 농업협력을 추진한다면 이러한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다.

한편 민간 차원의 남북한 농업기술협력은 비교적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농업 각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타 분야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북한이 필요로 하는 농업 기술을 제공하는데 머물고 있어 협력이라기보다는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기술과 물자가 함께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민간단체 중 대북 농업기술지원을 맨 먼저 시도한 단체는 월드비전이다. 월드비전은 1994년 채소온실 시설과 함께 채소 육묘 기술을 지원하였으며 북한이 감자농사혁명을 강조하면서 씨감자 생산기술을 지원하였다. 2001년부터 매년 한 차례씩 남북한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감자, 채소, 과수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월드비전의 이러한 농업기술협력 방식은 외국의 사례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다. 굿네이버스는 1995년 젓소 목장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닭공장, 사료공장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물자와 장비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양기술과 일차 생산물의 가공 기술도 함께 제공함으로써 농민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부터 축산 지원 사업, 농기계 수리공장 지원, 농기계 조립공장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물자 및 기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제옥수수재단은 1998년부터 북한 농업과학원과 함께 신품종 옥수수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다. 기술협력의 성격이 강하고 남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옥수수 유전자원의 교류라는 새로운 기술협력을 시도한 점이 특징이다. 북고성군농업협력단은 금강산 지역 채소온실농장을 중심으로 채소의 육묘에서 재배,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 기술 및 경영 지도를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과학자뿐만 아니라 농자재 관련 기업, 농업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기술협력의 성과를 높일 수 있었다.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민간단체의 성격도 있지만 정부의 대리인으로서 남북농업협력을 추진하였다. 2004년 금강산 지역의 벼농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개성 지역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주로 벼농사를 중심으로 남북한 벼 품종 비교 전시포의 운영, 이 모작 시범포, 미생물 발효시설 및 유기질 비료 생산체계 등 현재 북한이 농정의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기술과 물자를 교류함으로써 향후 정부 차원의 농업협력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표 1).

표 1. 주요 민간단체의 대북 기술지원 실적

단체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관심분야
국제옥수수재단	1998	● 신품종 옥수수 육종 ● 옥수수 재배법 시범사업	● 옥수수 신품종 개발
굿네이버스	1995	● 젓소목장 및 닭공장 지원 ● 사료공장 건설 지원	● 축산 설비 및 기술지원
남북농발협	1998	● 씨감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및 장비 지원 ● 씨감자 조직배양시설 및 저온저장고 지원	● 씨감자 재배 지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1996	● 축산 지원사업 ● 농기계 지원 및 수리센터 건설, 운영	● 농기계조립공장 건설
월드비전	1994	● 채소온실농장 및 육묘기술 지원 ● 씨감자 생산 시설 및 기술 지원 ● 농업과학자 학술세미나 개최(6회)	● 채소 수경재배 ● 씨감자 증식
한민족복지재단	2006	● 복토직파기술 및 직파기 지원	● 복토직파재배 지원
평화의 숲	1999	● 조림 및 산림보호사업 ● 양묘 기술 지원 및 양묘장 복구사업	● 유실수 단지조성
한국제이티에스	1997	● 농자재 및 농구 지원 ● 농업기술 지원	● 농업기술 교류
농협중앙회	2003	● 특수 콩 종자 지원 ● 돼지 사육을 위한 현대적 양돈장 건설	● 콩 종자 지원 ● 양돈장 건설
북고성군농업협력단	2002	● 온실 영농자재 및 기술 지원 ● 양돈장 지원	● 영농자재 및 기술 지원
통일농수산사업단	2004	● 벼 시범사업 및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 ● 미생물 발효 및 유기질 비료 생산 체계	● 복합영농 및 기술 지원

4. 외국의 농업기술협력 사례로부터 얻는 시사점

남북은 농업여건이 다르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술을 서로 확보하고 있다. 만일 우위에 있는 기술을 상호 교환한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재의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설

령 남북 모두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협력할 경우 서로가 가진 기술을 보완함으로써 상승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남북은 자연여건이 크게 다르지 않고 재배하는 작물에 있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력한다면 다른 어떤 국가들과의 기술협력보다도 더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남한도 이미 오래 전부터 외국과의 농업기술협력을 추진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협력의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그리고 외국의 농업기술협력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다. 우리의 경험과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 농업기술협력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농업전문가의 교류와 방문을 기술교류협력의 시발점으로 한다. 농업기술은 논문이나 책자를 통해서 교류될 수도 있으나 가장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은 그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전문가들을 통하는 길이다. 민간차원의 농업기술교류협력 이든 정부차원의 협력이든 전문가 교류를 기술교류협력의 시발점으로 삼는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둘째, 초기의 기술교류협력은 통상 비정기적이며 일시적인 방문에 국한되지만 교류협력 관계가 지속되면 정기적이고 일정 기간 상주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단기적인 방문은 깊이 있고 체계적인 기술을 교류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기술의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쌍방의 전문가가 일정 기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기술을 교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이전을 위하여 기술협력센터를 설치하여 농업기술자나 농민들에게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셋째, 전문가의 단기 파견이나 장기 체류방식은 교류협력사업의 범위와 성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협력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협력사업을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쌍방이 함께 참여하여 기술을 교류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추진은 상대국의 자조노력을 바탕으로 현지의 기술, 예산, 인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기술 공여국이 제공하기도 하고 국제기구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있다.

넷째, 교류협력사업의 사후 평가를 실시한다. 사후 평가는 교류협력사업을 실시하는 쌍방의 당초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도 될뿐더러 향후의 사업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 쌍방이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중국과 일본의 농업기술교류의 예를 보더라도 이러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농업기술교류는 형식과 내용면에서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계대전 직후인 1950년경부터 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73년까지의 기간으로 양국의 농업단체나 교류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차원의 농업기술교류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민간차원의 농업기술교류는 중국의 문화혁명기를 제외하고는 국교정상화 이전까지 지속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양국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1973년부터

1982년 ‘일·중 농업과학기술교류그룹’이 설치되기까지의 시기이다. 민간차원의 농업기술교류는 양국의 국교정상화를 계기로 정부차원으로 격상되었다. 이 시기의 농업기술교류는 ‘농업과학기술고찰단(農業科學技術考察團)’이라는 기술조사단의 상호파견을 통해 농업기술정보, 종자, 종묘를 교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일본은 수도재배(水稻栽培), 임업, 과수해충, 채소육종, 두류 생산, 돈육종(豚育種) 등을 포함하여 총 13개 고찰단, 114명을 중국에 파견하였다. 1982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된 ‘일·중 농업과학기술교류그룹’의 성과중의 하나로 평가되는 유전자원의 활용 및 기술개발, 보급의 맹아도 이 시기에 형성되었다. 세 번째 단계는 198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 정부차원의 농업기술교류는 ‘일·중 농업과학기술교류그룹’을 상설 운영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기술조사단의 상호파견 형태로 진행되던 농업기술교류는 1980년 12월 ‘제1회 일·중 각료회의’에 동반했던 양국의 농업담당 장관회의에서 농업기술교류의 촉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던 후 1981년 2월 ‘일·중 농업과학기술교류그룹’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교류그룹의 첫 번째 회의는 국교정상화 10년째인 1982년 2월 북경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회의 개최 이후 양국은 매년 정기적으로 동경과 북경에서 교대로 ‘일·중 농업과학기술교류그룹’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교류단의 역할은 제1차 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인 1981년 2월 중국의 ‘농업과학기술 방일단’과 일본의 농림수산성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합의되었다. 합의서에 따르면 교류그룹은 ①양국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림수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②농림수산과학기술정보, 자료, 서적의 교환, ③농림수산관련 기술자의 교환, ④종자, 종묘, 종축의 교환, ⑤기타 농업과학기술에 관한 교류(국제협력사업단이 실시하는 기술협력 제외)를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역할에 기초하여 교류그룹의 정기회의에서는 매년 양국 농림수산업의 기술상 제문제, 시험연구 현황, 공동연구의 실적평가 및 계획수립, 농업기술교류(고찰단의 상호파견) 실적 평가 및 계획 수립, 농업기술 정보, 종자, 종묘, 종축의 교환실적 평가 및 교환계획이 논의되었다.

일본과 중국의 농업기술교류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제협력 차원이 아닌 대등한 입장의 기술교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교류단의 역할과 관련된 사항을 실시한 후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이 교류단은 ‘일·중 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전반에 걸친 일본과 중국간 과학기술교류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한편 북한의 농업 및 농촌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국제 민간단체는 개별 단체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지원하였다(표 2). 그러나 이들 단체의 기술 지원은 북한의 농업 및 환경복구사업(AREP)이라는 큰 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단체에 비해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기술을 지원하였다는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표 2. 국제민간단체의 대북 농업 및 농촌 기술지원 실적

단체명	시작 연도	주요 활동	관심분야
ADRA (스위스 기독교 구호단체)	1995	- 태양열을 이용한 온수시스템 설치, 운영 - 바이오가스 활용을 위한 장비 및 기술지원	농촌에너지 개발
SDC (스위스개발협력처)	1995	- 종자 및 품종시험, 종자보증을 위한 시험소 운영 - 병해충종합개발(IPM) - 농장관리와 지력증진을 위한 유축농업 시범사업	- 인적 능력배양 - 녹색사업
CfC (스위스 기독교 구호단체)	1995	- 협동농장 우유가공설비 설치 및 기술지원 - 젖염소 번식 및 유가공 기술 지원 - 염소가죽 가공 수출을 위한 기술 지원 - 북한 농업기술자(75명)의 스위스 초청 훈련	- 축산설비 및 기술지원 - 인력훈련사업
Triangle GH (프랑스 자선단체)	2000	- 간척지 복구 지원 - 조립 및 양묘장 복구, 기술자 훈련	- 농업복구사업 - 조립사업
Concern Worldwide (아일랜드)	1997	- 협동농장에 비닐, 트랙터 타이어, 농약, 분무기, 채소 종자, 밀 종자, 콩 종자, 감자저장고 시설 지원 사업 - 작물다양화 사업을 통한 지력증진	- 식량안보사업 - 환경보호사업
DWH/GAA (독일 비영리단체)	1997	- 서해안 지역 농촌에너지 개발사업 - 종자관리 훈련, 감자 및 겨울밀 종자 증식 -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 훈련	- 농업복구사업 - 능력배양사업
PMU Interlife (스웨덴 구호단체)	1997	- 온실, 우유가공시설, 감자저장고 및 가공시설 지원 - 농업기술 및 농업설비 유지 관리 지원	농업복구사업
AFSC, MCC (미국 자선단체)	1997	- 녹비작물 시험재배사업 - 질소 비료원 생물자원 개발과 윤작시험 - 농업과학자 및 농민 초청 연수(중국, 미국)	- 농업복구 - 인력훈련사업
CESVI (이탈리아 자선단체)		- 황해북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 강원도 통천지역의 염소 사육 및 토양보존사업	지속가능한 농업

5. 남북한 농업기술협력 활성화 방안

남북한 사이에 농업기술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남북경협을 기조로 삼고 있는 ‘정경분리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남북한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그 상황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 만일 경제협력을 정치적 변화와 연계한다면 서로 신뢰를 쌓기 어렵고 과거의 전철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남북한의 농업기술협력은 당사자 사이에 직접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부를 대리한 기구를 통해 추진할 수도 있다. 만일 협력 상대방이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이를 통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남북 화해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고 유엔 등 국제기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해 농업기술을 교류할 때는 서로가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남북 농업기술협력은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농업기술은 기술 그 자체만으로 유용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경제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남북은 유사한 풍토와 기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기술협력에 비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농업기술체계의 근간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협력은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서로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한의 기술교류협력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서로 나눴으로써 서로가 더 많은 혜택을 보자는 데 그 뜻이 있는 만큼 먼 장래를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계획하에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즉, 남북 농업기술협력은 현재 남북이 당면하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에서 출발하여 통일조국의 농업문제까지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기술협력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서로가 강점을 가진 기술을 교류하는 상호 호혜적 형태의 협력이 추진되어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가지고 있는 농업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기술협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단계적 기술협력을 추진한다고 할지라도 시간적 간격에 따라 기술협력의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래와 같이 몇 단계로 나누어 그 방향을 설정코자 한다.

기술협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농업인의 인적 교류가 필수적이다. 현재 남북한의 인적교류는 매우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 농업기술협력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가의 초청과 파견, 시찰단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파견과 초청은 초기단계에서는 사전에 횟수와 분야를 설정하고 제한적으로 실시한 다음 그 성과를 보아 차츰 확대해 나간다면 인적교류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 전 단계로서 국제기구를 통한 인력교류도 가능할 것이며 비정부 조직(NGO)을 통한 전문가의 교류도 바람직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농업기술자 연수단을 상호 파견함으로써 직접 산업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양측의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남북한 사이에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기술협력사업으로는 농업분야의 기초 정보교류를 들 수 있다. 현재 세계기상기구(WMO)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다른 나라의 기상정

보를 교환하고 있으나 남북간 직접적인 농업기상정보 교환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기상 정보를 포함하여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문정보 및 피해상황을 신속하게 교환한다면 쌍방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봄철 대기 오염의 주범인 황사의 발생 정보 교류는 양측 모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는 남북이 함께 고민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다.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통상 화학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환경을 고려할 때 가능한 적은 농약으로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농약의 개발 및 방제방법이나 농약 이외의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매우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미생물 농약의 개발,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제 기술을 개발하여 이를 실용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남한은 병해충종합방제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시켰으며 독성이 약한 농약을 개발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은 계통분류상 같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병해충 방제 기술은 남북한 모두가 공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병해충종합관리(IPM) 기술, 예찰 기술, 천적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 등에 대해 서로가 개발한 기술을 나누고 함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병해충 발생에 관한 정보를 교류할 경우 쌍방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는 동식물 유전자원에 관한 정보 교류와 교환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유전자원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남북한은 서로가 가진 유용한 유전자원 정보를 교류하고 필요한 유전자원을 서로 교환한다면 남북한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북한의 유전자원 보관 시설이 낡고 낙후되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유전자원 교류협력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은 농산물 교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외국에서 생산된 농산물보다는 우리 땅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선호한다. 앞으로 남북간에 농산물 교역이 촉진되어 서로의 농산물 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우리 동포들이 선호하는 품질의 농산물을 우리의 제품 기준으로 설정함으로써 교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판매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동식물 검역 체계와 식품위생검사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품질등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농업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생산 이후 유통과정에서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선별, 포장, 저장, 운송 등 유통 기술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는 앞으로 예상되는 남북간의 농산물 교역 확대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해외에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북한은 약10만ha에 달하는 뽕밭을 보유하고 있고 비교적 넉넉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한 외화 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남한에서 사용하지 않는 유향 제사 시설을 이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생사를 생산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기능성 농산물의 생산이 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앞으로 남북간 합영 또는 합작 농장을 통해 특용작물 생산이 늘어날 경우 농작물의 재배법에서 가공기술에 이르기까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많다. 고려인삼은 세계시장에서 그 명성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다. 남한은 우수한 인삼가공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인삼제품의 수출을 통해 많은 외화를 획득해 왔다. 그러나 인삼 재배가 확산되면서 연작장애로 인하여 재배적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개성은 고려인삼의 본거지로서 인삼재배의 적지로 꼽히고 있다. 남북이 인삼 재배기술, 가공기술, 포장기술을 함께 교류하면서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출을 통해 상당한 외화획득이 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남북한이 가진 농업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반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분야의 기술협력이 필요하다. 농업자원의 활용은 비단 농업생산성 향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경보전적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반도는 인구에 비해 농지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질적으로도 낮은 수준에 있으며 남북이 고투입을 통한 집약적 영농을 지속해왔기 때문에 지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필요한 식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농업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지력의 증진, 영농방법의 개선, 새로운 영농자재와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원하는 우수한 농산물을 다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앞으로 머지않아 남북한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작물에 대한 유전자원은 지적 재산권으로서 철저히 보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필요한 유전자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남북은 지형과 기후가 유사하기 때문에 유전자원의 교류라는 측면에서 다양성은 떨어지지만 교차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현재 벼와 옥수수 등을 중심으로 비공식적인 유전자원의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대방 유전자원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필요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으며 수집된 유전자원의 활용이 촉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쌍방이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에 대해서라도 정확한 과학적 정보를 교환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로 필요한 유전자원을 공식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환경보전형 농업기술협력은 매우 긴요한 분야이다. 북한은 이미 심각한 환경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복구하지 않는 한 식량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 계획의 시작 단계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농업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남북한 사이의 장기 기술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업은 토양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다. 토양의 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많은 농자재를

사용하고 노력을 많이 투입하여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남한은 1958년 미국의 국제개발처(AID) 기술원조자금에 의해 토양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1963년에는 유엔특별기금과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협력하여 토양조사사업기구를 설치한 다음 5개년 계획으로 토양조사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그 후 1991년까지 전국의 논과 밭, 간척지, 개발 가능지, 산악지 등 490만 ha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완결하였다. 지금은 토양조사결과를 분석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리정보체계(GIS)를 구축하고 있다. 북한도 이미 전국적인 정밀토양도를 완성하고 이를 농업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토양은 계속해서 변하는 만큼 지금까지 남북한이 축적한 토양조사 및 분석기술을 교류하여 향후 한반도의 농지자원에 대한 조사사업을 함께 착수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남북의 농업 분야 통계조사 방법을 통일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공통의 방법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앞서 농업기술서적이나 전문 학술지의 교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분야의 용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농업용어집의 공동 편찬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남북한 사이의 농업기술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협력 합의서』의 교환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기술을 교류하기보다는 사전에 기술교류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계획에 따라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으며 협력의 효과도 높일 수 있는 길이 된다.

동향 분석

1. 농업정책
2. 벼농사
3. 축산
4. 감자농사
5. 이모작
6. 농업 기반
7. 산림
8. 기타 작물
9. 기타 보도 동향

동향분석 요약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농업의 주요 정책방침으로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자체적인 농사짓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를 위해 알곡생산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도입과 농업물자 지원의 보장도 강조하고 있다.

1월 23일 노동신문에서는 ‘태천의 기상’이라는 제목의 장문의 정론을 통해 ‘태천의 기상’을 “선군시대의 새로운 투쟁정신”이라며 자력갱생의 모델로 내세워 따라 배울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태천의 기상’을 본받아 모든 부문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새해 농사차비가 한창인 요즘 각 지역 협동농장에서는 새로운 모기르기와 모내기방법을 비롯한 앞선 농사방법을 받아들여 자체로 농사를 지을 목표를 제기하고,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앞선 벼농사방법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3월 들어서는 각 지역 협동농장의 농사준비동향과 함께 특히 벼랭낭모판씨뿌리기 준비, 모판걸구기와 모판만들기 등을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축산분야에서는 3, 4월이 수의위생방역기간임을 강조하고 계절적으로 가축의 체질이 약해지고 철새들의 조류독감 전파 등 병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수의방역기관들, 집집승을 기르는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수의방역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과 관련하여서는 봄철 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맞아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각지에서는 봄철나무심기와 도로, 강하천정리, 살림집 건설 등을 보도하고 있다. 특히 식수절을 맞아 각 지역에서 조림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혼합림 조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혼합림은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고, 땅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으며, 나무들이 빨리 자라 여러 가지 해충들과 병에 의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산림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산림이 물을 잡는 능력이 높아져 사태와 큰물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며 혼합림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업관리국의 겨울철 통나무 생산 작업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다.

미루벌물길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천개저수지와 리상저수지공사장에서 1월 3일 3만산과 1만산발파가 각각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도하면서 이 대발파들로 저수지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무늬이언제들이 기초굴착작업을 앞당겨 끝낼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외에 감자, 콩, 버섯, 메기양어, 수산업과 관련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올해 농사차비를 위한 각 지역의 생물활성퇴비와 같은 거름생산과 니탄캐기, 흙보산비료 생산, 운반 등을 보도하고 있다.

1. 농업정책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을 주공전선으로 틀어쥐고 앞선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여야 함.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을 위해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함.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리려는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미루벌물길공사를 적극 다그쳐 나가야함.

□ 농업정책

-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기사 게재(로동신문 1. 2)

- 우리는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농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여 올해농사를 잘 짓겠음. 우리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필승의 신념과 의지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가면서 올해 영농전투를 철두철미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해나가겠음. 앞선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음. 그리고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모든 영농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겠음.
- 올해에 우리는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시켜 농장원들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음. 또한 농장들에서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며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겠음.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리려는 당의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미루벌물길공사를 적극 다그쳐나가겠음. 우리 농업성 일군들은 모든 일을 패기있게,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해나감으로써 올해가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 전진을 이룩하는 해로 되게 하겠음.

○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기사 게재(로동신문 2. 1)

- 온 나라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큰 성과들을 거두었음.
- 당의 농업혁명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있는 우리의 협동벌들을 보라. 벌방이면 벌방, 산골이면 산골마다 지대적인 특성에 맞게 다수확품종의 종자들로 과학농사를 짓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두벌농사가 이제는 북방의 자강땅에서도 우리 식의 영농방법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음. 백두삼천리벌의 미더운 세대군인들은 대홍단식 과학농법의 요구대로 감자농사차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으며 새해벽두부터 온 나라의 농업근로자들은 콩농사를 본때 있게 하여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기여할 불같은 결의안고 콩밭의 지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성을 기울이고 있음.

○ 전국 농근맹조직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민주조선 1. 16)

- 호소문은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지니고 포전마다에 불타는 애국의 마음, 깨끗한 농민의 양심을 바치며 자체로 농사짓는 분조, 작업반, 농장대열을 늘이고 알곡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갈 데 대하여 지적하였음.
- 농업실천에서 그 우월성이 확증된 우량품종들과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며 두벌농사면적을 늘이고 감자농사와 콩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할 것임.
- 또한 트랙토르 등 농기계들의 수리정비와 기대관리를 간지게 하여 그 만가동을 보장하며 정보당 20t이상의 자급비료와 5t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내고 부림소를 영농작업에 적극 이용해 나가야 함.
- 축산업을 발전시켜 고기와 알, 젖생산을 늘이고 토끼기르기 운동을 힘있게 전개하며 줄당콩심기, 피마주심기, 버섯기르기 등을 활발히 벌려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임.
- 농장과 마을들을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꾸리며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는 한편 혁명적 군인문화를 따라 배워 혁명적이고 낙천적인 생활기풍과 투쟁기풍이 차 넘치도록 하여야 함.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농업생산의 주인” 게재(민주조선 3. 3)

- 농사는 강성대국건설의 천하지대본이며 농업생산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임.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생산은 자신들이 책임진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자체로 농사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킬 수 있고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칠 수 있음.
 - 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어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일으키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임. 농업부문에 관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유례없는 간고한 시련을 겪어야 했던 최근 년간에도 농업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대규모의 토지정리사업이 힘있게 추진되어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조선의 땅답게 변모되었고 개천-태성호물길, 백마-철산물길이 조국의 대지에 번어나갔으며 종자혁명방침관철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투쟁에서 귀중한 성과들이 이룩되었음. 최근 년간에 농업부문에서 이룩된 자랑스런 전진은 농업생산을 늘여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이 자랑스런 현실로 펼쳐지게 될 내일을 확신성 있게 내다보게 하고 있음.
 - 강성대국의 여명이 밝아왔고 농업생산을 더욱 늘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진 오늘의 현실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농업생산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음.
-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당면하게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게재(민주조선 3. 29)
-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위대한 창조와 변혁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농업생산을 빨리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푸는 것임. 농사를 잘 지어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더 힘있게 추진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생활을 보장하여 줄 수 있음.
 - 올해의 공동사설과 선군혁명선구자대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올해농사를 잘 짓자면 당면한 봄철농사일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을 비롯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올해의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 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음. 당면한 씨불임을 잘하는 것은 천하지대본인 농사를 잘 짓는데서 매우 중요함. 봄철인 지금 농작물재배의 첫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씨불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올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문제로 나섬.

-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함.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우리는 지난해에도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알곡생산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음.(로동신문 1. 3)

□ 과학영농

○ 농업성 국장 최용남 동무 소개(민주조선 1. 17)

- 당의 농업혁명방침관철에서 자신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그는 두벌농사작전을 통이 크게 한데 기초하여 유기질비료와 미생물비료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그는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해 생육기일이 짧은 논벼종자를 선택하는 한편 비료의 효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시비방법을 찾아 내여 전국에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 있음.

○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보도(민주조선 1. 18)

○ “과학적인 영농방법의 도입해야” 소개(로동신문 1. 24)

- 평양시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이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알곡생산을 훨씬 높일 수 있는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일 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올해에 과학농사를 잘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짜고 들고 있음.
- 형제산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평양농업대학의 연구사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새로운 벼재배방법을 받아들여 성과를 거둔 좋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그리하여 이미 모내는 기계들을 이 재배방법에 맞게 기술적으로 개조하고 그 수리정비를 완전히 끝낸 기세로 다른 준비사업들을 다그치고 있음.

○ 립천협동농장의 앞선 영농방법 도입 보도(로동신문 3. 10)

- 태천의 기상 넘치는 한드레벌에 가면 앞선 영농방법을 남 먼저 받아들인 새 소식을 자랑스럽게 들을 수 있음.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데서는 립천협동농장의 일군들이 누구보다 앞장에 섰음. 여러해 전부터 농장의 일군들은 영농자재들을 적

게 쓰면서도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새로운 영농방법들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여 왔음.

- 지난해에 이들은 농장경지면적의 10~20%의 논밭에 여러 가지 새로운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한해농사를 지었음. 신심을 얻은 농장의 일군들은 올해에 지난해 농사경험을 살려 앞선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기로 하였음.

□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임.

□ 자체로 농사짓기

○ “농사를 자체로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자” 사설 게재(로동신문 1. 18)

-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는 지금 농촌경리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격동시키고 있음.
-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더 높은 영마루를 점령하기 위해서는 농사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알곡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함.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것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업생산을 늘이는데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방침임. 우리 당의 농업정책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정당하며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방도도 명백하게 서 있음.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어떠한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당의 농업정책을 관철하는가 하는데 달려 있음.
- 농촌에서 <농장포전은 나의 포전이다!>라는 구호 밑에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농사를 자체로 짓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함.

○ “자체로 농사짓는 훌륭한 모범-영농조직사업을 앞질러 하여” 게재(로동신문 3. 20)

- 농촌에서 농사를 자체로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 앞장선 락랑구역 정백협동농장 일군들의 사업을 취재하는 과정에 우리는 한가지 문제를 찾아보게 되었음. 그것은 일군들이 머리를 써서 영농조직사업을 짜고든다면 얼마든지 농장자체의 로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임.
- 이 농장 일군들이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짓자고 결심을 내리게 된 것은 옳은 타산을 앞세운데 있었음. 정백협동농장은 경지면적구성에서 논이 절반,

밭이 절반인 농장임. 이런 실정엿 농장의 경영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음. 특히 5월과 6월에 남새모옹겨심기와 모내기가 겹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음.

- 그러나 영농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짜고 들어 자체의 힘으로 모내기와 남새모옹겨심기를 해결하였으며, 남새수확고와 벼수확고를 최대한로 높일 수 있었음.

□ 선군혁명선구자 대회

○ 선군혁명선구자대회 개최 보도(로동신문 2. 6, 민주조선 2. 7)

- 2월 5일 선군혁명선구자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되었으며 농업관련 주요토론은 아래와 같음.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 동지의 보고: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혁명충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강성대국건설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자.”
-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 송윤희 토론: “미곡리를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 리상촌으로 더 잘 꾸리겠다.”
- 강원도 인민위원회 국토환경보호관리국 국장 김창혁 토론: “열렬한 조국애와 향토애를 지니고 올해 국토관리사업에서 전변을 일으키겠다.”
- 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토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알곡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겠다.”
- 국가과학원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원장 허광춘 토론: “높은 실력과 창조적 열정으로 첨단과학기술의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겠다.”
- 조선인민군 군관 정치혁 토론: “부대의 축산기지를 더욱 강화하여 풀먹는 집짐승 기르기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
- 대흥단군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동일 토론: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겠다.”
- 구성닭공장 초급당비서 김광암 토론: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공급하겠다.”

2. 벼농사

□ 새해농사차비가 한창인 요즘 각 지역 협동농장에서는 새로운 모기르기 방법과 새로운 모내기방법을 비롯한 앞선 농사방법을 받아들여 자체로 농사를 지을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음. 협동농장의 일꾼들은 대담하게 앞선 벼농사방법을 받아들이고 있음.

□ 벼 재배기술 도입

○ 온천군 서화협동농장 보도(로동신문 1. 6)

· 새해농사차비가 한창인 요즘 온천군 서화협동농장에서는 새로운 모기르기 방법과 새로운 모내기방법을 비롯한 앞선 농사방법을 받아들여 자체로 농사를 지을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음. 최근 년간 이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음. 농장일꾼들은 대담하게 앞선 벼농사방법을 받아들였음.

· 이 농장의 올해농사작전에서 주목되는 다른 한 가지는 새로운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일 목표를 제기하고 모판에 낼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 것임. 지난 기간 농장일꾼들과 기술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벼모를 키워내었음. 그 과정에 짧은 기간에 벼모를 키워내어 적기에 모내기를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모기르기방법을 받아들이게 되었음. 이 방법을 받아들이니 좋은 점은 우선 벼랭상모판자재를 훨씬 적게 들이면서 벼모를 키워낼 수 있어 좋았음. 또한 종자도 적게 들고 긴장한 로력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좋았음. 지난 기간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농장에서는 새로운 모내기 방법도 받아들일 목표를 세웠음.

○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게재(로동신문 2. 20)

· 온천군 보석협동농장에서는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 그러나 모판, 비닐박막 등 영농자재가 모자라 매우 어려웠음. 이러한 실정에서 농장일꾼들은 자체로 농사를 짓기 위한 방도를 찾는 과정에 앞선 논벼재배방법을 받아들여야 로력뿐 아니라 영농자재도 대폭 절약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음.

- 농장일꾼들은 새로운 재배방법을 받아들일 결심을 하고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에 대하여 배워오기도 하고 참고서들을 통하여 새 기술을 부단히 습득해 나갔음. 이와 함께 농업과학기술지식선전실운영을 통하여 농장원들 속에서 새로운 논벼재배방법에 대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하였음.
- 농장원들은 새로운 재배방법에 따라 모판 만들기과 씨뿌리기부터 시작하여 모내기과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들이 과학기술적 욕대로 진행되도록 하였음. 그리고 모든 공정들이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진행되도록 하였음. 첫해농사에서 논두렁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확고가 많은 차이를 보였음.
- 앞선 논벼재배방법은 평당 포기수가 줄어드는 것만큼 종자도 종전에 비하여 절반밖에 들지 않게 되었음. 또한 모판수가 적어져 모판관리와 모뜨기 로력, 박막 등이 훨씬 적게 들어 거기에서만도 수만공수의 로력예비를 찾을 수 있게 되었음. 앞선 영농방법의 도입, 이것은 커다란 로력예비의 원천이었으며 자체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였음.

□ 각지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랑낭모판씨뿌리기준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각지의 협동농장들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종자들을 마련하고 씨뿌리기에 필요한 중소농기구들을 빈틈없이 갖추면서 역량을 집중하여 모판걸구기와 모판만들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다그치게 하고 있음.

□ 벼농사 준비 동향

○ 미곡협동농장의 벼농사 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1. 9)

- 미곡협동농장에서는 수백정보의 논에 깊이갈이를 100%하였음. 땅이 얼기 전에 논 깊이갈이를 말끔히 끝낸 것은 예년에 볼 수 없던 일임.

○ “과학농사에 큰 힘을” 보도(민주조선 2. 25)

- 승호구역 삼청협동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과학농사준비에 큰 힘을 넣고 있음. 농장에서는 올해에 선진영농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농업생산을 새로운 궤도 위에 올려 세울 대담한 목표를 세웠음. 특히 많은 자재와 로력을 절약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리있는 벼모기르기와 논벼재배방법이 주목됨

○ 황해북도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7)

- 황해북도의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별과 미루별, 긴등별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별들이 씨뿌리기준비로 끓어번지고 있음.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농촌들에 내려가 영농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끝낼 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도록 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짜고 들고 있음. 거름실어내기와 봄밀, 보리심기를 끝내고 씨뿌리기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계절을 앞당겨가며 영농공정들을 적극 추진시켜온 이들은 봄철에 들어서면서 모든 농촌들에서 종자처리와 모판준비 등 당면한 씨뿌리기준비에 박차를 가하도록 힘있게 떠밀고 있음.

- 신흥군안의 협동농장들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랭상모판들에 당장 씨를 부릴 수 있게 바람막이바자를 전부 둘러친 기세를 늦춤이 없이 모판준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신천군의 벼랭상모판씨뿌리기 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9)

- 신천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봄기운이 약동하는 포전들에서 신심에 넘쳐 벼랭상모판씨뿌리기준비를 다그치고 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백석협동농장 제7작업반에서 씨뿌리기 준비에 대한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협동농장들을 맡고 내려가 기술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6)

- 동림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준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군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는 종자들을 마련하고 씨뿌리기에 필요한 중소농기구들을 빈틈없이 갖추면서 역량을 집중하여 모판결구기와 모판만들기를 기술적 요구대로 다그치게 하고 있음.
- 마성, 인두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모판만들기에서 매일 높은 실적을 내고 있음. 이들은 모판을 평탄하게 닦아야 벼모를 충하가 없이 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떨쳐나 다시 손이 가지 않게 모판을 일매지게 만들고 있음. 청송, 룡산협동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벼모를 실하고 튼튼하게 키워야 정보당 알곡소출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질 좋은 거름을 모판마다에 듬뿍 실어내고 모판만들기를 실속있게 진행하고 있음.

○ 각지의 벼랭상모판씨뿌리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3. 23)

- 사회주의 협동벌에 벼랭상모판씨뿌리기철이 왔음.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잘하는

것은 논벼농사에서 매우 중요함.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잘하여야 모를 잘 길러 제 때에 낼수 있으며 논벼농사의 모든 공정을 제철에 질적으로 할 수 있음. 각지 농업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농사에서 씨뿌리기가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당면한 농사일을 성과적으로 해제끼기 위한 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야 함.

- 황해남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시작하였음. 미리부터 씨불임준비를 빈틈없이 하여온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때가 되자 일제히 벼랭상모판씨뿌리기에 들어갔음.

○ 서해곡창벌의 씨뿌리기 전투 보도(로동신문 3. 24)

- 서해 양서벌 신암협동농장에서 씨뿌리기전투가 시작되었음. 겨우내 얼어붙었던 대지를 적셔주며 끝없이 뻗어간 백마-철산물길, 바둑판처럼 정리된 규격포전들을 갈아엎는 트랙트르들의 힘찬 동음, 랑상모판들마다에서 씨뿌리기에 신바람난 농장원들의 작업이 시작되었음.

○ 황해남도의 벼랭상모판 씨뿌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5)

- 황해남도안의 드넓은 협동벌 마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시작되었음. 도농촌 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한해농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영농공정인 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도록 청단군 청정농장에서 먼저 보여주기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농촌들을 맡고 내려가 전투지휘와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 청단군에서 첫시작을 떴데이어 봄기운이 약동하는 연백벌과 재령벌을 비롯한 도안의 농촌들에서 씨뿌리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 있음. 도안의 농촌들에서는 자기 고장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적기를 바로 정하고 날자별, 모판별 계획에 맞게 벼랭상모판씨뿌리기를 질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 청단군의 모판씨뿌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9)

- 청단군안의 들넓은 벌들에서 벼랭상모판씨뿌리기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찬바람이 스며들지 않게 바람막이바자와 사이바자를 탐탁히 둘러치고 모판고루기와 씨뿌리기, 복토작업과 박막씨우기 등 모든 작업공정을 기술적 요구대로 내밀고 있음.

○ 숙천군의 씨뿌리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3. 29)

- 선군혁명선구자대회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 위해 한결같이 떨쳐나선 숙천군농업경영위원회 일군들

이 당면한 벼랭상모판씨부리기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실속있게 하고 있음.

○ 평안남도 봄씨불임 동향 보도(민주조선 3. 31)

-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의 일군들은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제철에 씨를 뿌리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얼마 전 안주시 송학협동농장에서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도안의 시, 군 농업부문 일군들에게 봄씨 불임을 자기 지방의 기후풍토조건과 벼품종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제철에 질적으로 하는데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음.

3. 축 산

- 3, 4월은 수의위생방역월간임. 수의방역사업은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임. 3, 4월은 겨울을 난 집짐승들이 체질적으로 약해지고 계절적 조건으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며,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기이므로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수의방역기관들, 집짐승을 기르는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의방역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함.

□ 축산 동향

○ 연산군의 축산 소개(로동신문 3. 4)

- 산간군으로 알려진 연산군치고 외진 산골인 대산협동농장이 오늘은 별방 부럽지 않은 윤택한 살림으로 사람들의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음. 이 협동농장 축산작업반의 모든 건물들은 지방에 흔한 자재들을 이용하여 주변풍치에 어울리게 규모있게 건설되어 있었음. 축산작업반은 전문축산농장이나 목장들에 못지않은 그쁜 토대를 갖춘 하나의 <종합적인 종축장>이라고 말할 수 있음.
- 규모있게 늘어선 돼지우리들과 닭, 오리, 게사니, 토끼, 염소우리들에는 살찐 집짐승들이 우글거리고 있으며 그쁜하게 꾸려진 먹이가공실들과 먹이창고들, 절임탱크들은 영양가 높은 집짐승먹이들로 꽉 차 있었음. 이 작업반에는 100kg이 넘어 보이는 종축돼지가 근 180마리나 되는데 한해에 생산하는 새끼돼지만 해도 수천마리나 된다니 실로 대단하였음.
- 해마다 매 농가에 2마리씩의 새끼돼지를 생산·공급해주고 있으며 여러해 전부터는 주변협동농장들과 가정들에까지 보내주고 있는 사실을 놓고서도 우리는 이들의 남다른 정신세계와 일본새를 뜨겁게 엿볼 수 있었음. 또한 이들은 피타는 노력으로 이제는 농장적으로 염소마리수가 수천마리수준을 훨씬 넘어섰다고 함. 여기에 셀 수 없을 정도로 육질거리는 토끼들과 닭, 오리, 게사니들까지 합치면 그 마리 수는 참으로 놀랄 정도임.

○ 연산군의 축산물 생산 보도(민주조선 3. 9)

- 대산협동농장에서는 산을 끼고 있는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을 잘 이용하여 집짐승기르기에 큰 힘을 넣어 농장원들의 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해주고 있음. 농장의 종축작업반은 물론 매작업반마다 비육분조가 훌륭히 꾸려져 있으며 집짐마다에도 돼지, 염소, 토끼, 닭을 비롯한 집짐승들이 육실거리고 있음. 농장 한가운데로 흘러 내리는 룰리천에는 게사니, 오리들이 육실거리며 농촌특유의 풍경을 더 한층 돋구어 주고 있음.

○ 각지의 축산동향 보도(로동신문 3. 27)

- 함흥시청년염소목장에 수천정보의 풀판이 더 조성됨. 함흥시에서는 올해 염소를 비롯한 풀먹는 집짐승기르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수천정보의 풀판을 더 조성하기 위한 대담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상창리지구와 검산령지구에서 나간 시책임일군들은 풀판조성작지를 밟아보면서 염소마리수가 더욱 늘어나는데 맞게 여러 개의 분장들을 더 내오고 수십 동의 염소우리를 새로 건설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음. 이에 기초하여 시일군들은 시안의 기관, 기업소로동자, 사무원들을 풀판조성사업과 염소우리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방목도로건설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방목도로건설에 떨쳐나선 시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은 구덩이도 메우고 바위도 굴러내면서 방목도로를 자연지리적 특성에 어울리면서도 염소방목에 편리하게 건설하고 있음. 풀판조성사업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의 드높은 열의로 하여 짧은 기간에 1,000여 정보의 풀판이 조성되고 여러 구간에 방목도로가 건설되었음.
- 강계토끼종축장에서는 올해 지난해에 비해 더 많은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것은 종축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풀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르기에 큰 힘을 넣은 결과임.

□ 부림소

○ 겨울철 부림소 관리 보도(민주조선 1. 16)

- 화평군 흑수협동농장에서 겨울철부림소관리를 잘하여 부림소의 이용률을 높이고 있음. 농장의 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 나가 부림소들의 영양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본데 기초하여 해당 농장원들이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도록 잘 이끌어 주고 있음. 농장일군들이 앞장서서 소우리도 보수해주고 부림소관리에 필요한 도구들도

충분히 마련해주었으며 겨울철먹이를 넉넉히 장만하도록 적극 도와주었음.

□ 토 끼

○ 토끼 사육 동향 보도(민주조선 2. 23)

- 천마군에서 토끼기르기를 힘있게 벌려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군에서는 산골군의 특성에 맞게 올해에 지난해보다 토끼마리수를 1.5배 이상 늘일 대담한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있음.

○ 각지의 토끼기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8)

- 삭주군 읍협동농장에서 우량종토끼를 더 많이 퍼지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고 있음. 풀먹는 집짐승을 더 많이 길러 인민들이 그 덕을 입도록 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올해 이곳 농장에서는 우량품종의 새끼토끼를 지난 시기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할 높은 목표를 내세웠음.
- 양덕군에서는 협동농장 축산작업반들에서 우량종의 새끼토끼생산을 늘이는 한편 분산사육을 조직하여 농장원세대들에서 토끼를 많이 기르도록 하는데 힘을 넣고 있음. 농장의 축산작업반과 작업반 비육분조들에서는 새끼토끼를 많이 생산하여 농장원 세대들에 나누어 주고 있음.

□ 돼 지

○ 원산시에 돼지공장이 새로 건설된다고 보도(로동신문 3. 10)

- 원산시에 돼지공장이 새로 건설됨. 이번에 새로 건설되는 돼지공장은 종축사와 육성사, 비육사를 비롯한 기본생산거물과 보조건물들을 훌륭히 갖추게 됨으로써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음. 공장에는 도한 먹이가공장과 고기가공장이 꾸려지게 됨.

□ 닭, 오리

○ 광포오리공장 소개(로동신문 1. 7)

- 광포오리공장 일군들은 먹이 수송전투와 종자오리확보, 알깨우기, 새끼오리키우기

등 모든 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빈틈없이 짜고 들어 오리고기생산을 지난해보다 훨씬 앞당겨 시작하였음.

- 봉대종금직장과 선덕종금직장에서는 종자오리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관리공들의 책임서과 역할을 높여 알낱이률을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높여나가고 있음. 봉대종금직장과 선덕종금직장의 일군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알낱이를 할 수 있는 오리들을 수만마리 이상으로 확보해 놓고 알생산을 부쩍 늘일 수 있게 하고 있음.

○ 두단오리공장 소식 보도(로동신문 1. 23)

- 공장에서는 이미 새해 첫 하루 동안에만도 450여t의 거름을 생산하여 먹이지지들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공장에서는 기술자들과의 기밀한 연계를 가지고 먹이소비기준을 낮추고 증체율을 훨씬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하여 종전보다 오리의 증체율을 1.5배로 높여 오리고기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과학기술적 담보를 확고히 마련해나가고 있음.
- 이에 기초하여 비육직장들에서는 마리당 증체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양관리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기술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이 직장일군들과 노동자들은 여러 가지 광물질먹이들을 비롯한 필요한 보충먹이들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음. 배합직장에서도 영양가 높은 먹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계량계측과 분쇄, 혼합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설비들에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있음.

○ 구성닭공장 소개(로동신문 2. 14)

- 구성닭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고기와 알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섰음. 공장에서는 높이 세운 고기와 알생산목표를 수행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이 먹이를 어떻게 보장하는가 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전투를 벌이고 있음. 온 공장이 먹이확보와 운반으로 끓고 있음. 공무작업반장을 비롯한 작업반초급 일군들이 앞장에서 먹이신기와 부리우기를 하면서 작업반원들을 혁신예로 불러일으키고 있음.

○ 오리고기저장 랭장고 건설 보도(민주조선 2. 21)

- 흥덕구역에 오리고기저장을 위한 랭장고가 새로 건설되고 있음. 이 랭장고가 건설되면 함흥시안의 근로자들에게 보다 신선한 오리고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됨. 구역인민위원회에서는 건설자들의 혁명적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함께 내부예비를 적

극담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기초공사가 마감단계에 이른데 맞게 작전과 지휘를 더욱 짜고 들어 건설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음.

○ 사리원 닭공장 개건공사 소개(로동신문 2. 25)

- 사리원닭공장 개건공사장에 새로운 공격전의 기상, 태천의 기상이 세차게 약동하고 있음. 시당위원회에서는 당의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닭공장 개건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빠른 기간에 완공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혁명적으로 짜고 들고 있음.
- 사리원주택건설사업소, 사리원주택보수사업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여러 호동의 비육우리와 종금우리, 고기가공실을 비롯한 많은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해 창조적 지혜를 합쳐 앞선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고 있음.

□ 수의방역사업

○ “수의방역사업을 잘하자” 보도(로동신문 3. 5)

- 3, 4월은 수의위생방역월간임. 수의방역사업은 우리 당의 축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책임적인 사업임. 3, 4월은 겨울을 난 집짐승들이 체질적으로 약해지고 계절적 조건으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임. 또한 우리나라에서 철새들이 이동하는 시기이므로 이 사업을 실속있게 잘하는 것은 중요함. 각급 농업지도기관들과 수의방역기관들, 집짐승을 기르는 모든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의방역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서야 함.

○ 중앙수의방역소 소개(로동신문 3. 20)

-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중앙수의방역소의 일군들이 3, 4월 수의위생방역월간에 진행하여야 할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음. 중앙수의방역소에서는 각 도수의방역소들에서 수의위생방역월간에 접종하여야 할 예방약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짜고 들어 진행하는 한편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이와 함께 집짐승마리수를 장악하고 그에 따르는 집짐승예방접종을 빠짐없이 제때에 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보도(로동신문 3. 22)

-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0일과 21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발표회에는 전국각지의 수의축산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 근로자들이 참가하였음. 발표회에서는 집짐승기르기에 대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이 소개되었음. 풀먹는집짐승기르기에서 효과성이 높은 새 품종의 토끼를 널리 퍼치는데서 나서는 과학적인 사양관리방법과 토끼의 주요 질병의 예방치료경험들이 발표회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음.

4. 감자농사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량강도가 전국의 앞장을 서야함. 량강도의 일군들은 감자산지들을 밟아가며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감자종자싹틔우기, 농기계수리정비,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가고 있음.

□ 감자농사 동향

○ 랑림군의 감자농사차비 보도(민주조선 1. 11)

- 해발 1,000m가 넘는 높은 지대에 자리잡고 있는 랑림군안의 협동농장들이 감자농사차비로 들끓고 있음. 눈 덮인 대지에 강추위가 엄습해오지만 알림땅 사람들은 애국의 성실한 땀을 아낌없이 바치며 감자밭을 갈고 있음. 읍협동농장에서는 소식회, 구운흙과 함께 여러 가지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음.

○ 대흥단군의 감자농사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1. 13)

- 대흥단군에서는 승리의 신심 드높이 올해 감자농사에서 혁신을 일으킬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는 대중의 열의에 맞게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전투적으로 짜고 들었음. 지난기간 감자농사를 통하여 지력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명심한 군일군들은 모든 감자밭들에 정보당 수십t의 거름을 널 높은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작전을 펼쳤음.

○ 장진군 백암협동농장의 니탄캐기 보도(로동신문 1. 13)

- 지난해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분조에서 찾은 다수확의 비결은 포기농사였음. 포기농사를 잘 짓자면 질 좋은 거름과 유기질비료가 더 많아야 하였음. 포기마다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주어 감자산을 더 높이 쌓을 것을 결심하였음. 지난해에 분조원들이 캐여들인 니탄더미들도 적지 않았음. 그러나 분조원들은 더 많은

니탄을 캐어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많이 만들기 위해 거름생산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부전군의 감자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2. 22)

- 부전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 감자조직배양공장, 감자종자저장고들과 싹틔우기장을 비롯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려놓고 대흥단군에서처럼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음.
-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대흥단식과학농법을 따라 배워 감자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대흥단군 농기계수리정비사업 보도(로동신문 2. 29)

- 대흥단군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를 위하여 군농기계작업소에서는 50여대의 트랙토르 수리, 40여개의 수천개의 농기계부속품 생산, 회전식틀보습날 260여개 등을 생산하였음.

○ 장진군의 감자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

-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장진군 갈전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된 자각을 안고 떨쳐나 감자밭거름실어내기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지대적 특성에 맞게 산비탈포전부터 먼저 거름을 실어내도록 농사차비작전을 구체적으로 세웠음. 그리고 농장원들이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주인다운 책임과 역할을 다할 데 대한 공동사설의 사상정신을 가슴깊이 새기고 농사차비에서 애국적 열의를 높이 발휘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짜고 들었음.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을 결사 관철하여 기어이 감자산을 높이 쌓을 불타는 열의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감자포전마다 질 좋은 유기질거름을 정보당 30t씩 실어내고 있음. 작업조건이 불리하였지만 농장에서는 농장원들을 사상적으로 발동시키고 소달구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운반수단들을 동원하여 산비탈포전들에 대한 거름실어내기를 완전히 끝내었음.

○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 소개(로동신문 3. 7)

- 농업과학원 감자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당의 종자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음. 연구소에서는 지금 시험관식물체

생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지난 시기보다 더 많은 무비루스잔알감자를 생산할 높은 목표를 세운 일군들은 그 첫 공정으로서 시험관식물체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혁명적으로 벌려나가고 있음. 연구사들에게 시험관식물체생산과제들을 똑똑히 주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음.

○ 각지의 감자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6)

- 당의 감자농사혁명방침 관철에서 량강도가 전국의 앞장을 서야함. 량강도의 일군들은 감자산지들을 밟아가며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계속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는 한편 감자종자싹틔우기, 농기계수리정비,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대책들을 제때에 세워나가고 있음. 특히 감자명산지들인 대흥단군과 삼지연군, 백암군들의 감자농사차비에 큰 힘을 넣고 있음. 그리하여 도급, 시급기관, 기업소, 해산시안의 동, 인민반들에서 수천t의 질 좋은 도시거름과 많은 량의 영농자재와 물자들을 정성껏 마련하여 삼지연군과 대흥단군, 백암군들에 보내주었음.

○ 고원군의 감자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6)

- 고원군 송천협동농장에서 감자종자준비를 기술적 요구대로 착실히 해나가고 있음. 다수확품종의 감자를 더 많이 심어 올해 감자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로 한 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씨불임 시기가 다가올수록 종자준비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일군들은 수시로 작업반들에 내려가 종자보관과 싹틔우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이미 감자포전들마다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수십t이나 실어낸 이곳 농장원들은 씨불임 시기를 가까이하면서 마음의 탕개를 더 바짝 조이고 있음.

○ 앞그루감자농사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1)

- 봉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앞그루감자농사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일군들은 협동농장에서 파악이 있는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도록 한데 이어 적지로 선정된 포전들에 질 좋은 거름과 흙보산비료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실어내는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음. 이와 함께 지난해보다 더 많은 감자를 심는 조건에 맞게 싹틔우기를 잘하도록 기술지도를 따라 세우고 있음.

5. 이모작

- 평안북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봄밀, 보리심기, 유채씨뿌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량찬 성과를 이룩하였음. 각지의 협동농장들에서 봄밀, 보리심기, 유채씨뿌리기를 최적기에 끝낼 수 있게 된 것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두벌농사를 널리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일 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 때문임.

□ 이모작 동향

○ 평안북도안의 이모작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

- 평안북도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봄밀, 보리심기가 한창임. 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올해공동사설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두벌농사를 잘 지을 결의 밑에 봄밀, 보리씨뿌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음.
- 도안의 농업부문 당조직들에서는 그 우월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농업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정주시 압두협동농장에서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을 위한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여 봄밀, 보리심기에서 나서는 기술적 요구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으며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밀, 보리심기를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기술지도에 큰 힘을 넣고 있음. 특히 올해 봄철날씨가 특이한 실정에 맞게 모든 농촌들에서 적기를 바로 선정하고 거름을 많이 내면서 씨부리기를 다그치게 하고 있음.

○ 각지의 두벌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

- 연안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두벌농사에서 앞장서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고 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일군들이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뜻깊은 올해농사에서 장훈을 부르기 위한 작전을 대담하게 하

고 혁신적인 안목에서 영농조직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지난 기간 두벌농사를 잘하여 도의 본보기 단위로 된 소정, 읍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두벌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달리고 있음. 이곳 협동농장들의 일군들은 가을밀, 보리 비배관리에 힘을 넣으면서 논앞그루작물을 적기에 심기 위한 영농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음.
- 소정협동농장에서 봄유채씨뿌리기를 질적으로 끝낸 기세로 지난해 가을에 심은 밀, 보리에 대한 비배관리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다그치고 있음. 농장일군들은 봄바람이 세고 강수량이 적은 봄날씨조건에 맞게 가을밀, 보리비배관리에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농장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실천적 모범을 보이면서 대중의 양양된 열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하고 있음.

○ 은률군의 두벌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3)

- 은률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선군혁명선구자대회 호소문에 적극 호응하여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앞그루감자심기준비에 드바쁜 일터에 가보아도 지난해 가을에 심은 밀, 보리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기 위한 전투장에 가보아도 앞뒤그루에서 다같이 옹근소출을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 수 있음.

○ 평안북도의 이모작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7)

- 평안북도안의 농업부문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봄밀, 보리심기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음.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봄밀, 보리심기를 최적기에 끝낼 수 있게 된 것은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두벌농사를 널리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기 때문임.
- 도농촌경리 위원회에서는 시, 군들에서 봄밀, 보리심기계획을 실정에 맞게 세우고 철저한 준비를 갖추도록 한데 이어 일제히 씨뿌리기에 들어서도록 하였음. 이곳 시, 군들의 협동농장들에서는 두벌농사를 널리 받아들여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다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봄밀, 보리적지를 바로 정하고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앞그루농사와 뒤그루농사에서 다같이 알곡소출을 높일 수 있게 하였음.

6. 농업 기반

-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전국 각지에서는 봄철나무심기와 도로, 강하천정리, 도시살림집들과 농촌마을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릴 데 대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만 정보의 혼합림을 조성하며 수도의 거리들과 공원, 유원지, 산들에 수많은 나무들을 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 국토관리사업

○ 국토부문 일군회의 보도(민주조선 2. 25)

- 최근에 국토부문 일군회의가 있었음. 회의에는 박봉주총리를 비롯한 내각성원들, 성, 중앙기관의 책임일군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 전국의 국토환경보호 부문 및 연관단위 일군들이 참가하였음.
- 박송남 국토환경보호상의 보고에 의하면 국토관리총동원사업발단 10돐을 맞은 지난해에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져 모든 산들을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쓸모있는 산으로 전변시킬 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산림조성사업에서는 황해북도, 자강도, 함경북도, 홍원군 등이 모범을 보였음.
- 도로의 기술개건과 강하천정리, 제방 및 호안공사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음. 강원도, 함경남도, 평안북도, 김책시, 명간군, 고산군, 태천군, 름산군, 우시군, 안변군, 천리마군을 비롯한 도, 시, 군들에서 도로의 기술개건과 강하천정리, 제방 및 호안공사에 큰 힘을 넣어 자동차운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통과능력을 훨씬 높이였으며 큰물피해를 미리 막고 올해농사를 더 잘 지을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어 놓았음.
- 평양시와 함흥시, 청진시를 비롯한 시, 군들에 수만세대의 살림집들이 새로 건설되고 수천세대의 공공건물들과 살림집들이 개건되어 도시와 마을이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졌음. 수천정보의 토지정리와 수백정보의 양어장건설 및

보수, 수만정보의 뽕나무림 조성, 수유나무림 조성, 수십만㎡의 오수침전지건설 및 보수 등의 사업에서도 전진이 있었음.

○ 봄철국토관리사업 보도(로동신문 3. 11)

- 평양시에서는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혁명의 수도를 새롭게 변모시킬 데담한 목표를 내세웠음. 시당위원회에서는 봄철나무심기와 도로, 강하천정리, 도시살림집들과 농촌마을들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더 잘 꾸릴 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능력있는 일군들로 지휘부를 꾸렸음. 그리고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 시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2,000여 정보의 뽕나무림을 조성하며 수도의 거리들과 공원, 유원지, 산들에 수많은 나무들을 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 황해남도의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보도(민주조선 3. 20)

- 황해남도안의 시, 군들에서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이번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도앞에는 능력이 큰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며 광명저수지 자연흐름식물길공사, 웅진조수력발전소건설, 구월산과 장수산유원지를 더 잘 꾸리기 위한 건설 등 여러 가지 중요대상건설을 다그쳐 끝내야 할 방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 농업부문에서는 수백정보의 토지정리와 1만 수천정보의 흙갈이, 수천정보의 토지개량을 비롯하여 중소하천제방건설과 토지복구, 해안방조제공사를 진행하게 됨.

□ 뜻깊은 새해전투로 들끓는 미루벌물길 천개저수지와 리상저수지공사장에서 1월 3일 3만산과 1만산발파가 각각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날에 있던 대발파들로 저수지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무늬이언제들이 기초굴착작업을 앞당겨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음.

□ 미루벌 물길공사

○ 미루벌물길공사 소식 보도(민주조선 1. 4)

- 뜻깊은 새해전투로 들끓는 미루벌물길 천개저수지와 리상저수지공사장에서 3일 3

만산과 1만산발파가 각각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이날에 있는 대발파들로 저수지 공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무덤이언제들이 기초굴착작업을 앞당겨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음.

- 물길공사중앙지휘부의 작전에 따라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과 물길건설자들은 물길을 선군시대를 빛내이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울 불타는 결의안고 천개저수지와 리상저수지 무덤이언제기초굴착을 위한 대발파준비를 힘있게 다그쳤음.

○ 미루벌물길공사 진행 보도(로동신문 1. 6)

-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 지난 3일 올해 첫 발파가 있었음.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 나갈 데 대한 새해공동사설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미루벌물길공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이룩하려는 물길 중앙지휘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열의에 의하여 발파는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 물길중앙지휘부에서는 모든 돌격대원들이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물길공사를 힘있게 내밀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미루벌의 협동농장 소개(민주조선 1. 12)

- 미루벌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작업반마다 흙보산비료 생산기지를 꾸리기 위한 사업이 활기있게 벌어지고 있음. 협동농장들에서는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서 <보약>과 같은 흙보산비료를 더 많이 생산할 목표 밑에 새해정초부터 흙보산비료 공장건설을 본때 있게 내밀고 있음. 이번에 모든 작업반들에서 이미 있던 것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하는 흙보산비료공장은 연간 생산능력이 수백 t에 달함. 흙보산비료공장들은 미루벌을 다수확지대로 전변시키는데서 큰 은을 낼 것임.
- 미루벌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축산이자 농산이라는 관점에서 작업반마다 10t규모의 축산기지를 새로 건설하게 됨. 도의 지원 밑에 이미 설계가 완성되었으며 건설역량이 현지에 전개되고 있음. 건설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혁명적 열의에 의하여 수백개의 축산기지건설이 짧은 기간에 끝나게 됨. 앞으로 축산기지들이 꾸러지면 얻는 것이 많음. 축산기지를 이용하여 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짐짐승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여 농업근로자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해마다 많은 물기름을 받아 땅의 지력을 높일 수 있음.
- 지금 미루벌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토지정리준비사업이 착실하게 진척되고 있음. 협동농장들에서는 해당 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농사의 주인인 농업근로자들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토지정리할 포전들을 확정하였으며 그것을 다시 한번 따져보는 사업을 진해하고 있음. 앞으로 논농사를 위주로 하게 되는 만큼 논으로 풀 포전들과 10정보당 1갓기 담면저류지를 만들 대상들을 선정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돌려지고 있음. 이와 함께 토지정일에 참가하는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도와 주기 위한 대책도 예견성 있게 세우고 있음.

○ 미루벌물길공사장 소식 보도(로동신문 2. 24)

- 지난 23일 미루벌물길공사장에서 6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이번에 황해북도려단 신계군대대에서 6만산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천개저수지 무덤이언제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낼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음.

○ 미루벌 물길 천개저수지공사 보도(민주조선 2. 24)

- 태천의 기상안고 들끓는 미루벌 물길 천개저수지공사장에서 23일 무덤이언제 기초 굴착을 위한 2단계 6만산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었음. 지난 1월 3일에 이어 이번 에 또다시 있는 발파로 저수지 무덤이언제 기초굴착작업을 앞당겨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음.

□ 자연흐름식 물길

○ 개성시의 자연흐름식물길공사 적극 추진 보도(로동신문 2. 21)

-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지난해 말에 모든 저수지들의 저수능력과 물길상태, 샘줄기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통이 큰 작전을 펼치었음. 이에 따라 자연흐름식물길공사와 저수지보수, 물주머니만들기 등을 진행하여 3천여정보의 논에 물을 보다 원만히 대주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세워졌음. 설계를 앞세우고 강력한 건설지휘부와 돌격대를 무은 일군들은 6개의 기본공사대상들에 굴착기, 트랙토르를 비롯한 기계수단들을 집중하였음.
- 이 공사가 완공되어 100여리나 떨어진 저수지에서 끌어오던 물길과 6대의 양수동력설비들을 쓰지 않으면서도 물원천을 옆에 두고 물을 마음껏 쓰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음. 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작은 대상의 자연흐름식물길공사들도 자체의 힘으로 해내고 있음. 협동농장들의 농업근로자들이 맡아하고 있는 수십개 대상의 공사가 완공되면 20여대의 양수동력설비가 없이도 자연흐름식에 의한 물보장으로 물 걱정이 없어지게 됨.

○ 각지의 자연흐름식 물길 보도(민주조선 3. 1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청단군을 비롯한 10여개의 시, 군들에서 자체의 힘으로 자연 흐름식 물길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도처에 뻗어가는 자연흐름식 물길, 이것은 농촌경리의 수리화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보다 높은 수준에서 해결하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이 현실로 꽃피는 자랑스러운 모습임.

□ 새땅찾기

○ 새땅찾기 소식 보도(민주조선 1. 6)

- 운전군인민위원회에서 간석지개간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원칙에서 간석지개간목표를 대담하면서도 현실성있게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결패있게 해나가고 있음. 공사를 시작한지 1년도 못되지만 벌써 수십만㎡의 토량과 막돌을 운반하여 해안방조제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위원회에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 개간한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내부망공사도 와닥닥 끝내기 위한 사업을 보다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음.

□ 토지개량사업

○ 온천군의 흙구이시설 보도(로동신문 2. 14)

- 온천군 마영협동농장에서 토지개량사업을 위해 모든 논밭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고 농업생산을 늘일 수 있는 흙구이가 한창임. 지금 이 농장별에는 많은 흙구이시설이 있음. 흙구이시설마다 은을 내고 있음.
- 농장에서는 뜻깊은 2월에 거름생산을 늘이는 한편 많은 흙을 구워낼 높은 목표를 제기하였음. 농장에서는 우선 모든 작업반, 분조들에서 실정에 맞게 포전마다 흙구이시설을 맞게 포전마다 흙구이시설을 만들고 흙을 구워내도록 하였음. 작업반, 분조들에 내려간 농장일꾼들은 흙구이시설을 만드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면서 실천적 모범으로 대중을 불러일으켰음.

7. 산 림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각지에서 관광도로와 고속도로 주변, 철길, 마을주변과 산들에 혼성림을 조성하여 나라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이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혼성림을 조성하면 땅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으며, 나무들이 빨리 자라 여러 가지 해충들과 병에 의한 피해도 줄임. 또한 혼성림은 산림자원을 늘일 수 있고 물을 잡는 능력이 높아져 사태와 큰물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음.

□ 산림정책

-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 하자” 게재(로동신문 3. 2)
 - 조국의 산과들을 푸른 숲으로 뒤덮게 하기 위한 산림조성사업에 국토환경보호성 산림국 일군들이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고 있음. 지난 시기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한 국의 일군들은 올해에도 산림조성사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기 위하여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 있음.
 - 올해 국에서는 수억그루의 나무를 고속도로와 관광도로를 비롯하여 주요도로주변과 철길, 마을주변에 심을 통이 큰 목표를 세웠음. 또한 상록수와 비상록수, 넓은잎나무와 바늘잎나무를 잘 배합하여 혼성림을 조성하며 나무모밭의 지력을 높여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을 세웠음.
- “혼성림조성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게재(로동신문 3. 28)
 -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줄 수 있음.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배합하여 혼성림을 조성하는 것임.

- 정주시에서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혼성림조성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혼성림조성에 필요한 나무모를 확보한데 기초하여 시 일군들은 나무심을 적지들을 돌아보고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과 토양조건에 맞게 혼성비율과 혼성형식, 나무사이거리, 구멍이 크기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였음. 시에서는 기관, 기업소별로 분담을 정확히 주고 힘있게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음.
- 혼성림을 조성하면 땅의 산성화를 막을 수 있음. 소나무,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등 바늘잎나무의 잎은 몇해 지나야 떨어지므로 그 양이 적고 잘 썩지도 않으며 썩는 과정에 많은 산성물질을 내보내어 땅을 산성화시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넓은 잎나무는 잎이 해마다 많이 떨어지고 빨리 썩으며 토양이 산성화되지 않게 함. 그러므로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배합하여 심으면 땅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혼성림을 조성하면 겨울에 바늘잎나무들의 잎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충치를 돈구는 데도 좋음. 혼성림에서는 나무들이 빨리 자라며 여러 가지 해충들과 병에 의한 피해도 적음. 혼성림을 조성하면 산림자원을 늘일 수 있고 물을 잡는 능력이 높아져 사태와 큰물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음. 혼성림은 지대적 조건에 따라 줄식, 띠식, 점식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성하며 그 비율도 수종에 따라 각이하게 정함.

□ 종 묘

○ 동림군의 나무모생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

- 동림군의 나무모밭들과 나무모온실에서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음. 그중에서 오동나무모밭은 군의 자랑임. 지난해 봄에 심은 오동나무모들이 벌써 한길이나 되게 자랐음. 군에서는 오동나무모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오동나무를 전문생산하는 사업소를 내오고 오동나무모 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 들었음. 군에서는 올해에도 많은 오동나무를 심을 목표를 세우고 미리부터 나무모생산에 힘을 넣었음. 그리하여 많은 오동나무모를 생산하게 되었음. 군안의 나무모밭들에는 오동나무뿐 아니라 아카시아나무, 창성이깔나무 등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들이 자라고 있음.

○ 운산군의 나무모생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5)

- 운산군에서 올해 봄철나무심기기간에 650여 정보의 산림조성목표를 세우고 그 성과적 실현을 위하여 나무모생산을 확고히 앞세워나가고 있음. 군에서는 가까운 몇

해 안으로 군안의 산과 들에 푸른 숲이 더욱 무성해지게 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 들었음. 군산림경영소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산림조성사업에서 나무모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알고 양묘장을 더 잘 꾸리게 하였으며 수종이 좋은 여러 가지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도록 기술지도에 큰 힘을 넣었음.

- 식수절을 맞아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음.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궤기모임들이 3월 2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되었음.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는 여맹원들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의 궤기모임이 열려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 조 립

○ 연탄군의 조림사업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

- 연탄군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안고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음. 봄철에 들어서면서 군에서는 더 많은 나무를 심어 모든 산들에 푸른 숲 우거지게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였음. 산림경영소에서는 군안의 모든 산들을 푸르게 하기 위하여 250여만 그루의 나무모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군에서는 이분이 아니라 매개 리에 있는 나무모밭들에서도 많은 나무모들을 생산하도록 하였음. 그리하여 여기에서만도 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평양뽕뿌라나무 등 수종이 좋은 310여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였음.

○ 식수절을 맞아 각지의 궤기모임 진행 보도(로동신문 3. 3)

- 승리의 신심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기 위한 총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속에 식수계절이 왔음. 식수절을 맞이한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봄철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음.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벌리기 위한 궤기모임들이 2일 근로단체들에서 진행되었음.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는 여맹원들의 궤기모임이 열려 보고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인민무력부 군인궤기모임이 2일 금수산기념궁전 수목원에서 진행되었음.
- 황해남도 도당위원회에서는 국토관리사업을 잘하여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

로 만들데 대한 공동시설의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렸음. 도인민위원회와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의 일군들이 혁신적 안목으로 작전을 잘하고 드팀없이 실천해나가고 있음. 도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산림조성과 보호관리계획을 혁신적으로 세운 일군들은 각 시, 군들에 봄철나무심기과제를 정확히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조직함으로써 나무심기가 보다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고 있음.

○ 봄철나무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5)

- 강원도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산림조성사업을 통이 크게 벌려 도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 도에서는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필요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더 많이 생산하여 심는 사업을 올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해야 할 중요과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강하게 내밀고 있음.
- 락랑구역에서 봄철나무심기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구역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을 이용하여 거리와 마을에 많은 나무들을 심어 녹음이 우거지게 할 목표밑에 나무심기를 다그치고 있음. 당위원회에서는 온 구역을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양묘장들에서 느티나무, 두충나무, 버드나무, 평양단풍나무, 수유나무를 비롯하여 거리와 마을을 수림화, 원림화하는데 알맞은 수종의 나무모생산을 앞세우게 한 다음 기관, 기업소들에 조림구역을 정해주고 나무를 심을 계획을 세웠음.

○ 봄철나무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0)

- 평안남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 조국강산을 푸른 숲 설레이는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나갈 불타는 열정을 안고 봄철 나무심기에 떨쳐나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다 바쳐가고 있음. 8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식수질을 뜻깊게 맞이한 그 기세로 한사람같이 분발해나선 이들은 고향땅의 산과 들, 거리와 마을, 일터와 학교, 공원과 유원지 등 이르는 곳마다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정성껏 심고 있음.
- 각지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9일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과 만경대혁명사적지에서 식수를 하였음. 농근맹중앙위원회와 승호구역, 순안구역, 중화군, 안주시, 평원군, 벽성군, 황주군, 봉산군, 름산군, 연탄군, 서흥군, 개성시, 피현군, 녕변군안의 농근맹일군들, 농근맹원들은 이번에 잣나무, 은행나무, 앵두나무를 비롯한 17종에 1,500여 그루의 나무들과 5만여개의 꽃뿌리를 준비해가지고 왔음.

○ 영광군의 혼성림조성사업 보도(로동신문 3. 18)

- 영광군안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 혼성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한결같이 떨쳐나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군에서는 혁명사적지들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더 많이 심으며 상중리에 100정보이상의 혼성림을 조성하고 모든 리의 산들에도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한 사업을 통이 크게 밀고 나가고 있음. 일군들은 양묘장들에서 여러해동안 잘 키운 잣나무와 이팝나무, 림홍뽕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한개 단위씩 맡고 나가 나무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음.

○ 혼성림조성의 유익성과 방도 소개(로동신문 3. 18)

- 최근 산림부문에서는 혼성림조성사업을 힘있게 내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모든 산들에 혼성림을 조성할 데 대한 당정책에는 하루빨리 나라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어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과 밑천을 마련해주려는 우리당의 깊은 뜻과 사랑이 깃들어 있음.
- 혼성림을 조성하는 것은 산림을 보다 울창하게 하여 산림축적을 빨리 늘이며 산림을 보호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모든 산들에 혼성림을 조성하면 유익한 점이 매우 많음.
- 무엇보다도 산림토양의 지력을 높여줌.
- 산림의 생산성을 높여줌.
- 산림병해충을 미리 막을 수 있게 함.
- 강한 바람이나 눈사태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고 숲속에서 자라는 어린 나무들이 자라는데도 유리할 뿐 아니라 산림의 면모를 개선하고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 줌.

○ 통천군의 바람막이숲 조성 보도(로동신문 3. 20)

- 통천군에서 바람막이숲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 벌리고 있음. 해안선을 길게 끼고 있는 이 군에서는 바람막이 숲조성에 특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음.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의 자연지리적 특성에 맞게 봄철나무심기기간에 해안바람막이숲을 더욱 전망성있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당적으로 끈기있게 내밀고 있음. 군에서는 이미 조성하여 놓은 바람막이숲관리를 잘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바람막이숲을 조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 있음.

○ 각지의 혼성림 조성사업 보도(로동신문 3. 24)

- 전국을 수림화, 원림화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각지에서 관광도로와 고속도로주변과 산들에 혼성림을 조성하여 나라의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사업이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평양-향산관광도로와 평양-원산관광도로 그리고 청년영웅도로와 평양-개성고속도로주변을 비롯하여 여러 지역들에서 요즘 나무심기가 활발함.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하며 보기 좋은 수종의 나무들을 구색이 맞게 심는 혼성림조성사업은 중요한 사업임.
- 함경남도에서는 도안의 모든 시, 군들에서 100정보씩의 혼성림을 조성할 목표를 세우고 설계와 나무모준비를 앞세우면서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제철에 질적으로 심도록 하고 있음.

○ 각지의 나무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8)

- 618건설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뜨거운 조국애, 향토애를 안고 봄철나무심기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돌격대현장지휘부 일군들은 돌격대원들 속에 산림조성사업은 숭고한 애국사업임. 돌격대에서는 삼수발전소지구와 삼지연지구에 10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안고 봄철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음. 연합기업소 일군들은 수림화, 원림화의 전망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질적으로 진행하도록 조직사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이곳에서는 짧은 기간에 기업소구내와 공원, 직장주변들에 8,300여 그루의 백살구나무, 추리나무를 심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떨쳐나선 종업원들은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배합하여 혼성림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식수절 나무심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3. 2)

-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여야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고 국토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으며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음.
- 남포시 시인민위원회에서는 항구문화도시의 특성에 맞게 시주변의 수림화와 도로주변의 원림화에 모를 박고 수종이 좋고 빨리 자라는 나무들을 더 많이 심을 통이 큰 작전을 펼친데 이어 군중적 운동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음. 위원회책

임일군들은 혁명군대지휘관들처럼 나무모심기 전투장들에 나가 살면서 나무모를 정성들여 운반도 하고 때로는 구덩이를 파고 나무모를 심으면서 기술지도를 빈틈 없이 짜고 들어 나무의 사름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금야군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을 군산림경영소에 내려보내어 경영소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 잣나무, 이깔나무, 뽕뿌라나무, 아카시아나무, 금야왕밤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지도사업을 강화하게 하고 있음. 읍지구와 인흥, 삼봉 등 여러 지구들에 구려진 수십 정보에 달하는 기본 양묘장과 숲사이 양묘장들마다에서 올해에 수백만그루의 튼튼한 나무모를 생산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음.
- 승호구역에서는 올해 봄철에 수백정보의 뽕나무림을 조성하는 한편 새로 건설된 남강다리도로주변에 많은 나무를 심어야 하는 조건에서 위원회 일군들은 미리부터 모체양묘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양묘장들에 나가 나무모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나무모생산을 적극 앞세우기 위한 대책적인 문제들도 토론하고 필요한 자재들도 풀어주어 겨울철나무모생산에서 자그마한 지장도 없도록 하였음.

○ “혼성림 조성에 큰 힘을 넣자” 게재(민주조선 3. 17)

- 현시기 봄철나무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혼성림조성에 큰 힘을 넣는 것임. 혼성림을 조성한다는 것은 나무심기에서 상록수와 비상록수, 바늘잎나무와 넓은잎나무를 올게 배합한다는 것을 말함.
- 잣나무와 전나무를 비롯하여 잎이 사철푸른 상록수와 아카시아나무, 평양단풍나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종이 좋은 비상록수들을 자 배합하여 혼성림을 조성하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국강산을 더욱 아름답게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혼성림을 조성하면 나무들이 잘 자라고 땅이 산성화되는 것도 막을 수 있음.

○ 황해남도의 나무심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7)

- 황해남도에서는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는데 맞게 일군들이 현지에 내려가 나무심을 면적과 지대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나무심기계획을 현실성있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하였음. 식수절날 도와 시, 군들에서 군중적으로 더 많은 나무를 심기 위한 쫓기모임이 진행되었음. 이날 도급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과 근로자들, 대학교직원들과 학생들은 해주시주변에서만도 2만 5천여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각지의 혼성림 조성사업 보도(민주조선 3. 23)

- 연탄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뜨거운 조국애와 향토애를 안고 혼성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 있음. 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올해에 250만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생산하였음. 매개 리들에 있는 나무모밭들에서도 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 잣나무, 평양뽕뿌라나무, 뽕나무 등 수종이 좋고 빨리 자라는 310여만 그루의 나무모들을 생산하였음. 군에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가두인민반별로 나무심기구간을 바로 정하여주고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혼성림조성을 위한 나무심기에서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가도록 하고 있음.
- 초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혼성림조성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 봄철나무심기를 적극 벌려나가고 있음. 와인리, 앙토리, 런무리를 비롯한 군안의 리들에서는 사름률이 좋은 아카시아나무, 잣나무를 비롯하여 수종을 바로 정하고 모든 단위들에서 나무심기를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고 있음.

○ 미루벌물길공사장의 산림 조성 사업 보도(민주조선 3. 28)

- 미루벌물길공사에 참가하고 있는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열렬한 조국애를 안고 산에 수종이 좋은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사업을 끈기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물길공사중앙지휘부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 건설자들을 동원하여 주변의 200여 정보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심을 계획을 세우고 그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음.
- 지휘부에서는 곡산군국토환경보호관리부, 산림경영소와의 긴밀한 연계밑에 나무심을 구역들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각 단위별로 분담을 정확히 주었으며 양묘장에서 여러 해 동안 잘 키운 잣나무와 이깔나무, 아카시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예견성있게 세웠음. 황해북도려단의 일군들은 며칠동안에만도 30여만 그루의 나무를 심는 혁신을 일으켰으며 200여 정보의 산림을 조성하였음.

○ 강원도의 혼성림조성 보도(민주조선 3. 28)

- 도인민위원회에서는 수백정보의 면적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혼성림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음. 고산군, 세포군, 판교군에 나간 일군들은 자기 고향산천을 풍치수려하게 꾸리려는 한마음안고 일떠선 군

중의 열의에 맞게 나무의 사름를 높이는데 모를 박고 나무모뜨기와 운반, 구덩이 파기와 거름넣기, 나무방향잡아주기와 물주기, 버팀대세우기 등 모든 공정에 따르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기술지도를 잘하고 있음.

- 임업관리국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생산성과를 높이고 있음. 관리국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더 높아진 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음. 림산사업소들과 갭목생산사업소들에서 통나무생산작업반을 더 늘려 산지에 로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 통나무 생산

○ 고인임산사업소 소식 보도(로동신문 1. 20)

- 고인임산사업소 운포작업소에서 산판에서 동발나무생산전투가 벌어졌음. 노동자들이 기계톱이며 도끼를 들고 재빨리 전투진지를 차지하였음. 운포작업소에서는 지난해 동발나무생산계획을 초과하여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음.

○ 삼수임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 소개(로동신문 1. 21)

-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삼수임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통나무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사업소 각지 임산작업소들에서는 나무베기와 모으기, 사이나르기 등 매 공정별작업을 동시에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음. 중평청년작업소에서는 트랙또르길과 소달구길을 잘 정리하여 사이나르기실적을 부쩍 높이는 동시에 통소이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사이나르기에서 매일 1.2배의 실적을 올리고 있음.

○ 생장임산사업소의 통나무생산 소식 보도(로동신문 1. 24)

-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펼쳐나선 생장임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첫 달 통나무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혁신을 일으켰음. 상산작업소에서는 사이나르기에 유리하게 길을 잘 닦아놓고 윤전기재들의 가동율을 부쩍 높여 제일먼저 1월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음.
- 침봉작업소의 제대군인들은 사이나르기 속도를 부단히 높여나갔으며, 신전수작업소에서는 작업 전과 작업후 윤전기재들의 점검보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예비부속품확보에 힘을 넣어 그 가동율을 높여나갔음. 임철직장의 노동자들은 들

끓는 산판을 찾아다니면서 운전기재들에 대한 이동수리를 책임적으로 보장하였음.

- 자동차운전자들과 트랙터 운전수들, 임철기관사들은 수송이자 곧 생산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긴장한 전투를 벌려 매일 맡겨진 수송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통나무생산 동향 보도(민주조선 2. 25)

- 함경북도 임업관리국에서는 겨울철통나무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생산성파를 높이고 있음. 관리국에서는 올해에 지난해보다 1.5배로 더 높아진 통나무생산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있음. 립산사업소들과 갭목 생산사업소들에서 통나무생산작업반을 더 늘려 산지에 로력을 집중시키고 있음. 한편 앞선 통나무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기술적 지도를 따라 세우고 있음. 또한 생산된 통나무를 제때에 실어나르기 위해 사업소들마다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통쏘이길을 더 많이 뚫아 통쏘이에 의한 통나무나르기 비중을 높이도록 하면서 대용연료에 의한 운재수단을 활발히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 강원도 립업관리국의 통나무생산 보도(민주조선 3. 7)

- 강원도 립업관리국 일군들은 배낭을 메고 들끓는 채벌장들에 나가 립지확정으로부터 나무베기와 사이나르기, 마감나르기에 이르기까지 생산조건보장과 후방사업 등을 빈틈없이 짜고 들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현지에서 기동적으로 풀어주고 있음. 특히 일군들은 벌목공들과 함께 나무베기와 나르기를 하면서 화선식정치선전, 경제선동을 참신하게 벌려 통나무생산자들의 열의를 부쩍 높여주고 있음.

○ 삼수림산사업소 보도(민주조선 3. 11)

- 립업부문에서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를 피끓는 가슴마다에 받아 안은 삼수림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통나무생산에서 전례 없는 혁신을 창조해나가고 있음. 사회주의 경제강국건설에서 통나무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이곳 립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산판마다에서 태천의 기상으로 드세찬 공격전을 벌리었음. 하여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을 앞둔 지난 2월 15일 현재로 사업소 앞에 맡겨진 뜻깊은 올해의 연간통나무생산계획을 100.2%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치었음.

8. 기타 작물

- 콩농사를 잘하는 것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 콩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농작물의 하나임. 콩음식은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도 매우 좋음.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콩농사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바싹 다그쳐야 함.

□ 콩

○ 길주군의 콩밭 걸구기 작업 동향 보도(민주조선 1. 27)

- 길주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군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콩농사를 잘 짓기 위해 콩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적극적으로 벌리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콩밭면적을 1.5배로 늘인 조건에 맞게 더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기 위한 계획을 명확히 세우고 그를 적극 실현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 “콩농사 준비를 잘하자” 게재(민주조선 2. 23)

- 태천의 기상안고 올해농사차비를 다그치는 각지 농촌들 앞에는 콩농사 준비도 함께 내밀어야 할 중요한 과업이 나서고 있음. 콩농사를 잘하는 것은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 콩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농작물의 하나임. 콩음식은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도 매우 좋음. 농촌경리부문 지도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콩농사를 잘하기 위한 준비를 바싹 다그쳐야 함.
- 콩농사 준비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하여야 함. 좋은 종자를 선택하여 심는데 첫째가는 관심을 돌려야 함. 다른 농사와 마찬가지로 콩농사에서도 종자가 기본임. 종자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품들여 농사를 지어도 높은 소출을 낼수 없음. 협동농장들에서는 기후풍토조건에 맞으면서도 수확고가 높은 종자를 빨리 확보하여야 함. 콩밭적지를 옳게 정하고 지력높이기에 힘을 넣어야 함. 콩농사를 한두해가 아니라 끈기있게 내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콩재배 적지를 바로 정하여야 함. 콩

밭적지선정에서도 적지적작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함. 기본면적, 습해를 받지 않으면서 가물 때에는 관수하기에 유리한 땅을 적지로 정하기 위한 사업을 서둘러야 함. 그리고 기본면적에 원그루로도 심고 두벌농사뒤그루로도 심으며 사이섞음그루와 겹재배주작으로 배치할 면적을 발리 확정하여야 함.

○ 은률군의 콩농사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7)

- 은률군에서 콩농사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음. 종자확보를 끝낸 군에서는 흙보산비료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군에서는 포전들에 정보당 많은 흙보산비료를 널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콩농사를 짓는 협동농장, 작업반들에 흙보산비료생산과제를 똑똑히 주고 총화사업을 따라 세우고 있음. 관해협동농장이 콩농사준비를 잘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지난 시기 청년들을 앞세워 콩농사를 힘있게 벌린 좋은 경험을 살려 흙보산비료생산전투에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 “콩농사를 잘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게재(로동신문 3. 17)

- 올해에도 황주군에서는 협동농장의 일군들은 물론 농장의 초급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콩농사준비에 모든 힘을 다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음. 책임일군들이 앞장에 서서 여러 계기 때마다 콩농사에 대한 당의 방침을 적극 해설해주고 그 관철을 위한 사업을 힘껏 떠맡어주고 있음. 그리고 협동농장들에 내려가 10일지령총화를 비롯한 여러 모임에도 참가하여 콩농사준비와 관련한 모든 영농공정들이 다른 농사차비에 확고히 앞서도록 도와주고 있음.
- 평강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콩농사준비를 더욱 빈틈없이 하고 있음. 농장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이신작적의 모범으로 콩농사에 품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도록 대중을 조직동원하고 있음.

○ 각지의 콩농사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8)

- 평안북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콩농사를 잘하기 위한 조직지도사업을 혁명적으로 진행해나가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콩농사를 본때있게 지을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자기의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이끌어주고 있음.
- 연산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올해 콩농사차비를 잘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보다 콩밭면적이 더 늘어난데 맞게 종자준비 적지선정, 지력높이기, 관수준비를 실속있게 내밀고 있음.

○ 각지의 콩농사 동향 보도(로동신문 3. 30)

- 숙천군에서 콩농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군에서는 부침땅 면적이 제한된 조건에 맞게 과학적인 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콩생산량을 더욱 늘리기 위한 준비에 힘을 넣고 있음. 당의 콩농사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군농업경영위원회가 힘을 넣은 것은 기술일군들이 논농사가 기본인 군의 실정에 맞게 콩농사를 과학화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실속있게 하도록 한 것임.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콩의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콩농사를 과학화하여 당의 콩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시하도록 하는데서 찾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음.
- 신천군 건산협동농장에서 콩농사에서 앞선 재배방법을 받아들여 부침땅의 리용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이 농장에서 콩밭면적을 늘이고 콩농사에 힘을 넣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부터임. 그때부터 농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콩을 심고 가꾸어 왔음. 그 과정에서 농장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재배방법을 개선해야 부침땅의 리용률을 높여 콩생산을 늘일수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음.
- 무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콩농사준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지난해 콩농사 경험에 기초하여 적지를 바로 정하고 콩밭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데 큰 힘을 넣고 있음. 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서 흙보산비료생산과 생물활성퇴비생산을 비롯하여 유기질비료생산에 계속 힘을 넣도록 하는 한편 한줌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해도 그 질을 높이도록 하고 있음.

- 안변 버섯공장에서는 버섯을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기 위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공장에서는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적은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사철 버섯을 중단없이 생산하고 있음. 이 버섯공장의 버섯기르기 경험을 전국각지에서 배워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 버섯종균을 도처에서 받아가고 있음.

□ 버섯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버섯연구소 과학자들 소개(로동신문 1. 17)

- 국가과학원 생물분원 버섯연구소에서는 삼복철이나 겨울철에도 버섯재배를 중단없이 내밀수 있도록 팽나무버섯, 저온성느타리버섯 등 새로운 품종들을 연구 완성

하였음. 근류생리연구실의 과학자들은 미생물 발효기술에 의거하여 벼짚, 강냉이숙 등 우리나라에 흔한 각종 부산물들을 버섯기질로 효과있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남김없이 바쳐가고 있음.

○ 팽나무버섯 재배기술 소개(로동신문 1. 17)

- 팽나무버섯은 낮은 온도에서 자라는 식용버섯으로서 일명 겨울버섯이라고도 함. 버섯균실은 4~30℃에서 성장하는데 최적온도는 24℃임. 이때 요구하는 기질의 습도는 60~70%이며 빛은 요구하지 않음. 버섯이 돋는 온도는 5~18℃이며 빛은 적당하게 보장하는 것이 좋음.
- 팽나무버섯재배에 쓰이는 원료는 강냉이숙, 톱밥, 벼겨를 비롯한 농부산물이며 보충영양물질로는 쌀겨를 씀. 기질처리는 고압멸균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100℃에서 8~10시간간정도 증기 처리할 수도 있음. 무균상태에서 기질에 종균을 접종한 후 23~25℃에서 25일간 배양함. 균배양이 끝난 다음에는 물을 뿌려주어 마르지 않게 적셔주면서 재배관리를 함. 이때 재배실온도는 10~15℃로 낮추고 상대습도는 80~85% 보장함.
- 병재배를 할 때 병아구리에 종이토시를 씌워주면 버섯자루가 길어지고 색이 연해지면서 품질과 수확고가 높아지게 됨. 팽나무버섯은 다른 버섯들과 달리 처음에 총수확량의 거의 전부가 돋음. 기질총량의 70~80%수준에서 수확할 수 있음.

○ 소문난 버섯집 소개(민주조선 1. 18)

- 신암구역 해안동 제7인민반 리명희 동무의 가정에서는 버섯재배를 잘하여 소문을 내고 있음. 이 가정에서는 한해에 보통 느타리버섯재배를 잘하여 소문을 내고 있음. 이 가정에서는 한해에 보통 느타리버섯을 비롯한 각종 버섯을 1.5t이상 재배하여 인민군인들에게 보내는 한편 시안의 여러 급양망들과 인민반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음. 특히 주목되는 것은 리명희 동무가 연구하여 속성재배한 느타리버섯은 한 개의 무게가 최고 9.7kg이나 되며 그 모양이 매우 곱고 먹음직스러운 것임.

○ “유용한 버섯자원과 그 이용전망” 소개(로동신문 3. 4)

- 버섯은 7월초부터 9월말까지 많이 돋지만 맛 좋고 향기로운 팽나무버섯같이 한해 동안 계속 돋는 것도 있음.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버섯종수는 1만종 정도이며 그 가운데서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5천여 종임. 우리나라에서는 900여종의 버섯류가 발견되었으며 경제적으로 가치있는 250여종 가운데 식용버섯이 200여종이고 약용버섯이 50여종임.

-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이미 느타리버섯과 참나무버섯, 버짚버섯, 비닐먹물버섯과 같은 10여종의 버섯에 대한 재배방법을 연구·완성하여 인미줄의 식생활향상에 널리 이용할 수 있게 하였음. 버섯은 식용으로는 물론 대사촉진, 로화방지, 피로회복에 좋은 건강장수식품으로 그리고 항암, 항균, 항비루스, 진정, 리노작용과 혈압 및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약용적 가치로 하여 그 수요가 계속 높아지고 있음. 오늘날에는 독버섯까지도 고가생물시약생산의 원천으로 이용되고 있음.

○ 각지의 버섯재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6)

- 안변버섯공장에서는 앞선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음. 환하고 아늑하게 꾸려진 2개의 버섯재배장과 갱도식 버섯재배장에는 버섯송이들이 물기를 함복 머금고 키돋움하고 있음. 고압멸균가마와 송치분쇄기를 비롯하여 생산설비들도 그쯘하게 갖추었음.
- 이곳 종업원들과 배양공들은 기질배양을 잘하고 병충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 버섯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할 수 있었음. 이 버섯종균으로 버섯을 생산하면 생산량이 아주 높다고 함. 공장에서 생산하는 새로운 느타리버섯은 한송이가 수십kg까지 나가는 것도 있음.
- 공장에서는 버섯을 과학기술적으로 기르기 위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공장에서는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적은 노력과 자재를 가지고 사철 버섯을 중단없이 생산하고 있음. 이 버섯공장의 버섯기르기 경험을 전국각지에서 배워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생산한 버섯종균을 도처에서 받아가고 있음.

□ 양 어

○ 동신군 원흥메기공장 소개(로동신문 1. 23)

- 새해공동시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동신군 원흥메기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메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음. 원흥메기공장에서는 현재 알개우기 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새해 첫 전투를 메기 알개우기로부터 시작한 그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알을 깨워 새끼메기를 생산한 기세로 수백만 마리의 새끼메기를 더 생산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음.

○ 함경남도의 양어사업 소개(민주조선 1. 23)

- 함경남도인민위원회에서는 도안의 여러 곳에 품 들여 마련해 놓은 양어장들에서 더 많은 민물고기들을 생산할 수 있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음.
- 양어장들의 능력을 확장하고 보수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다그치고 있음. 땅이 녹는 데 따라 도안의 모든 양어장들에서 바닥파기와 고루기, 수로파기를 비롯한 양어못들의 보수를 빠른 시일 안에 와닥닥 끝낼 수 있게 노력조직과 자재준비를 사전에 잘해나가도록 하고 있음.
- 종자물고기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해당부문과의 연계밑에 지역의 조건과 특성에 맞는 새품종의 종자물고기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잘하고 있음. 새품종 종자물고기들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도적인 방식상학과 강습도 실속있게 조직하고 필요한 기술서적들도 보내주어 물고기의 어종별, 나이별에 따르는 사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운산군의 메기양어 소개(민주조선 1. 23)

- 운산군인민위원회에서는 메기생산량을 늘이기 위한 단계별계획들을 높이 세운데 맞게 그 집행을 위한 사업들도 혁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위원회에서는 이미 계획도니 먹이확보사업을 힘있게 내미는 것과 함께 비알곡먹이 이용률을 높여 먹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동시에 내밀고 있음.

○ 신천군 화산협동농장의 양어사업 소개(로동신문 2. 21)

- 신천군 화산협동농장에서 양어사업을 힘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농장일 군들과 농장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저수지주변에 10여개의 양어못들이 생겨났음. 농장에서는 능력있고 책임성이 높은 농장원들을 선발하여 양어분조를 조직하고 붕어, 잉어를 비롯한 물고기를 기르기 시작하였음.

○ 각지 양어사업소의 양어사업 보도(로동신문 3. 26)

- 양어를 발전시키자면 양어장들을 잘 꾸리고 그 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함. 양어지도 국에서는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 건설한 메기공장들과 양어장들에 대한 봄철 양어장관리를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전투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도, 시, 군들에서 이 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군중적으로 벌리도록 이끌고 있음. 대동강양어사업소를 비롯한 평양시 양어관리국 아래 양어사업소들에서는 양어장보수정리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하기

위함임.

-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염주군에서는 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그 전날의 간석지가 양어장으로 전변된 염주청년양어사업소에 대한 못보수정리사업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내밀어 매일 수천명의 로력이 동원되어 15일 동안에 수십 정보의 못을 정리하는 혁신을 일으켰음. 양어지도국의 일군들은 메기공장들과 원종장들, 종어장, 양어사업소들에 내려가 겨울을 난 물고기들에 대한 못웁기기사업을 실속있게 하도록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있음.

□ 수 산

○ 인공배양 해삼 소개(민주조선 1. 6)

- 홍원군인민위원회에서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끈기있게 내밀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홍원수산사업소에 건설된 새끼해삼인공배양장을 이용하여 수산자원보호증식사업을 잘하고 있음. 새로 건설된 인공배양장은 새끼해삼들의 인공배양에 필요한 기술적 조건들이 충부니 갖추어져 있음. 여러 배양탱크들과 산소발생기, 냉동설비들이 갖추어진 이 배양장에서는 해마다 많은 새끼해삼들을 안전하게 키워낼 수 있음.

○ 홍원수산사업소 소개(로동신문 1. 19)

- 홍원수산사업소는 바다가양식사업을 잘하는 사업소임. 사업소일군들은 바다동식물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인공배양하여 증식시켜 수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하나의 추세라고 하면서 지난 몇해 동안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두 떨쳐나 바다동식물 인공배양장을 그쁘히 꾸려놓았음.
- 바다동식물인공배양장의 배양탱크에서는 바다미생물들의 먹이를 키우며, 기르기탱크 2개호동에서는 새끼해삼과 밥조개, 생복, 피조개, 섭조개들의 먹이로 여러 가지 바다풀과 조개껍질 등을 이용하여 이들을 기르고 있음.
- 이 사업소에서는 앞바다에 수백정보의 증식구역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해마다 많은 해삼과 생복, 밥조개, 피조개, 섭조개들을 자래우고 있음.

○ 부포바닷가 양식사업소 소개(로동신문 1. 29)

- 황해남도수산관리국 부포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다시마 생산이 시작되었음. 백수리직장의 종업원들은 태천의 기상의 창조자들이 발휘한 자력갱생의 투쟁기풍과 일본

새를 본받아 이미 많은 배들을 수리·정비하여 바다에 띄운데 이어 배, 기중기들의 점검보수를 짜고 들어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음.

○ 청진수산사업소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4)

- 청진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어로공들은 뜻깊은 2월에 계획을 넘쳐 수행한 그 기세, 그 기백을 조금도 늦춤없이 계속 적극적이며 기동적인 어로전을 벌려 물고기잡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일군들은 바다날씨가 불리하고 애로가 적지 않은 조건에서도 배들의 출어일수를 늘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어로공들과 힘과 지혜를 합쳐 여러 가지 어로방법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과 방도를 명확히 세우고 있음.

□ 채 소

○ 봄남새심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3. 24)

- 사동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봄남새심기를 집중적으로 내밀고 있음. 구역당위원회의 지도밑에 협동농장들에 내려간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은 적지선정과 종자, 거름확보, 자재준비와 물보장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봄남새심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도록 하였음. 그리고 협동농장 남새작업반들의 온실에서 남새모를 충분히 자래우게 하였음.

9. 기타 보도 동향

- 각지의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차비를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힘을 농사차비에 집중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각 군에서는 농사차비의 중심고리를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찾고 여기에 모든 노력과 운반수단들을 집중하게 하고 있음. 영농실천과정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입증된 생물활성퇴비, 흙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게 하고 있음.

□ 농사차비

○ 은산군의 새해농사차비 보도(로동신문 1. 5)

- 새해농사차비에 떨쳐나선 은산군안의 농장들에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전투를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군에서는 생물활성퇴비를 비롯하여 질 좋은 거름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음.
- 군에서는 농장들에서 작업반장들이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책임지고 그 질을 정확히 보장하게 하고 있음. 군의 일군들은 농장들에 내려가 생물활성퇴비생산정형을 작업반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량과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그리하여 생물활성퇴비생산과 흙보산비료 생산준비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있음.

○ 평산군의 새해농사차비 보도(로동신문 1. 11)

- 평산군당위원회에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새해농사차비의 첫 전투부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수많은 중소농기구들과 질 좋은 거름을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지난 몇일 동안에만도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비롯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19종에 1만5천여점의 중소농기구들과 수만t의 거름을 군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 황해남도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1. 11)

- 황해남도에서 총력량을 집중하여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새해 첫 전투가 시작된 3일 하루 동안에 도적으로 20만3,600여t의 분토를 생산하여 협동농장포전들에 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청진시안의 협동농장들의 농사차비 보도(민주조선 1. 14)

- 청진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에서 높이 세운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데 기본을 두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협동농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유기질비료 생산과 실어내기, 모판자재확보, 농기계와 농기구준비 등 농사차비계획을 월별, 날자별로 구체적으로 세웠음.

○ 각지의 새해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1. 17)

- 사리원시 만금협동농장의 모판자재준비 동향 보도
- 신의주시 남민협동농장에서 풀거름과 생물활성퇴비를 논과 밭에 운반하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 력포구역 소삼정협동농장의 올해 첫 농사 전투로 거름과 흙보산비료생산, 중소농기구준비 동향 보도

○ 새해 농사차비 보도(민주조선 1. 24)

- 농사차비는 한해농사에서 매우 중요함.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도 있는 것처럼 농사차비를 빈틈없이 해 놓아야 한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음. 지난 시기 농사를 실속있게 지은 협동농장들의 경험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음.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데 모를 박아야 함.
-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에 힘을 넣어야 함. 기후풍토조건과 자체의 실정에 맞으면 서도 알곡수확고가 높은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기 위한 사업을 서둘러야 함. 그리고 그에 따르는 종자를 빨리 확보하고 보관관리를 착실하게 하여야 함.
- 부침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함. 아무리 좋은 종자를 심고 앞선 영농방법을 받아들인다 해도 지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응당한 소출을 기대할 수 없음. 그리고 땅을 걸구기 위한 일을 제때에 하지 못하면 다음영농공정이 처지게 됨. 각지 농촌들에서는 흙보산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비료생산과

실어내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함. 농기계와 중소농기구도 소홀히 하지 말고 원만히 준비해 놓아야 함.

○ 백암군의 새해농사차비 보도(로동신문 1. 19)

- 백암군 군일군들은 농사차비에서 품이 많이 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였음. 군에서는 일군들을 농장들에 내려 보내어 농업근로자들에게 공동시설의 전반적인 사상과 함께 농업부문에 제시된 과업을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켰음.
- 조영준, 한정일동무가 일하는 농장에서는 한개 작업반씩 맡고 내려가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이면서 거름원천을 최대한 탐구동원하기 위한 사업을 알심있게 해나가고 있음. 이들은 작업반비육분조들과 세대들에서 더 많은 거름을 내도록 하는 한편 열두바닥파기와 진거름생산, 흙구이도 힘있게 내밀고 있음.
- 재열군 재천협동농장에서 흙갈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농장에서는 지력이 낮은 포전들에 흙갈이를 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더욱 높일 목표를 제기하고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음. 현지를 밟아보며 흙갈이를 해야 할 포전들을 바로 정한 농장 일군들은 짧은 기간에 흙갈이를 전부 해낼 면밀한 계획 밑에 대중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각지의 새해농사차비 보도(로동신문 1. 21)

- 사동구역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난해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지어 알곡생산에서 앞장선 리현협동농장과 장천협동농장이 이 사업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음. 리현협동농장에서 질 좋은 거름을 정보당 논밭에는 20t, 남새밭에는 50t씩 낼 목표를 세우고 강하게 내밀고 있음.

○ 농사차비로 들끓는 사회주의 협동벌 개재(로동신문 1. 23)

- 운산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올해 농사차비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시설의 과업을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거름생산과 거름실어내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군에서는 토지개량에 힘을 넣고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어 수백t의 소식회를 마련하게 하였으며 협동농장들의 곳곳에 매장되어있는 린회토를 찾아내어 논밭에

실어내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음.

○ 은파군의 농사준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1. 28)

- 은파군안의 협동벌들이 농사차비로 세차게 들끓고 있음.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1만여t의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낸 군에서는 태천의 기상으로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음.

○ 자강도의 새해농사차비 보도(민주조선 1. 28)

- 자강도에서는 올해 농업생산을 늘이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당의 두벌농사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찾고 여기에 큰 힘을 넣고 있음. 도농경리위원회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 있는 장강군 읍협동농장을 본보기단위로 하여 도안의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두벌농사준비를 활발히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장강군, 초산군, 자성군, 동신군, 위원군을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앞그루 밀, 보리, 감자와 뒤그루 강냉이종자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두벌농사를 지을 준비를 빈틈없이 해나가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1. 31)

- 온 나라 농장벌이 태천의 기상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음. 올해도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긴 서해곡창지대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태천의 투쟁기질과 본때로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들의 힘있는 투쟁으로 이미 도적으로 계획의 90%에 달하는 거름이 생산되고 많은 량이 논밭에 나갔으며 흙갈이 실적도 지난해 이맘때보다 1.2배로 올라갔음.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는 연백지구의 농촌들이 앞장서고 있음. 청단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거름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논밭에 정보당 수십 t씩 낼 수 있는 량을 생산하였으며 그 실어내기를 다그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2. 3)

- 단천시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태천의 기상으로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음. 시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올해에 많은 협동농

장들에서 지원노력을 받지 않고 자체로 농사를 짓기로 한 실정에 맞게 농사차비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치밀하게 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2. 11)

- 함경북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농사차비에서 기본인 거름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도안의 농업근로자들도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준비에 너도나도 떨쳐나서 기세를 올리고 있음. 태천의 기상 협동별마다에 내려치는 속에 며칠사이에만도 도적으로 수만의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으로 실어내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2. 11)

- 온천군 서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음. 농사차비전투계획을 면밀하게 세운 농장일군들은 한개 작업반씩 맡고 내려가 모든 영농작업이 드팀없이 집행되도록 강하게 내밀고 있음. 농장에서는 질 좋은 유기질비료생산에 각별한 힘을 넣고 있음.
- 작업반기술원은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가 농작물의 생육과 지력을 높이는데 미치는 좋은 점을 작업반원들에게 알기 쉽게 해설해주면서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생산하도록 조직사업을 간지게 하고 있음. 다른 작업반에서도 흙보산비료와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전격적으로 내밀고 있음.
- 농장에서는 소농기구준비와 초물농기구생산, 나래와 바람막이바자를 비롯한 모판자재생산도 힘있게 내밀고 있음.

○ 곡산군의 농사준비동향 보도(로동신문 2. 13)

- 곡산군 평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거름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붉은기가 휘날리는 거름생산전투장들마다에서 화선식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면서 앞채를 메고 달리고 걸이대가 휘도록 거름을 실어내고 있음.

○ 경원군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2. 19)

- 태천의 기상으로 떨쳐나선 경원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에서는 땅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었음.

- 일군들은 협동농장, 작업반별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총화하면서 앞선 단위들의 성과와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는 사업을 짜고 들어 거름생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게 하였음. 이와 함께 경제선동을 화선식으로 기백있게 벌리고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데 기초하여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지도를 잘해나갔음.
- 군안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포전에 실어내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진행되었음. 군급기관들이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전투에 앞장섰음. 여기에 고무된 군안의 공장, 기업소로동자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거름생산실적을 계속 높여나갔음. 이들은 뜻 깊은 2월에 들어와 며칠사이에 수천t의 거름을 생산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날마다 거름생산실적을 올렸음.

○ 구장군의 농사차비 소개(민주조선 2. 21)

- 구장군 읍협동농장은 군적으로도 농사일을 잘하는 것으로 소문난 농장임. 그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바로 모든 영농과정마다에서 일군들이 앞채를 메고 뛰고 있는데 있음. 이 농장의 일군들은 올해의 농사차비에서도 인민군대지휘관들처럼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모든 일에서 이신작척의 모범을 보이고 있음.
- 특히 거름생산이 한해농사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구체적인 실례를 가지고 농장원들 속에 깊이 인식시키면서 모두가 태천의 기상안고 이 사업에 떨쳐나서도록 이끌어 주고 있음.

○ 각지 농촌들에서 올해 농사차비가 힘있게 추진된다고 보도(로동신문 2. 24)

- 온 나라 농장벌이 태천의 기상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 있음.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받들고 떨쳐나선 각지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대규모의 수력발전소를 일떠세운 태천의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처럼 투쟁해나갈 불타는 열의를 안고 거름생산과 실어내기, 물잡이 등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사설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긴 서해곡창지대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태천의 투쟁기질과 본때로 농사차비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음.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는 연백지구의 농촌들이 앞장서고 있음. 청단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거름원천을 적극 탐구동원하여 논밭에 정보당 수십t씩 낼 수 있는 량을 생산하였으며 그 실어내기를 다그치고 있음. 도에

서는 트랙토르와 중소농기구 수리정비사업도 실속있게 하고 있음.

○ 력포구역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2. 25)

- 최근 력포구역에서는 로력을 집중적으로 동원하여 추당리로부터 대현동사이의 2천여m구간에 대한 자연흐름식물길공사를 진행함으로써 이 일대의 수습 정보의 논에 전기를 쓰지 않고 물을 충분히 댈 수 있게 하였음. 그리고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양수기들과 모내는 기계들의 수리정비도 완전히 끝냈음. 또한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논밭 정보당 30t의 질 좋은 거름과 5t이상의 흙보산비료를 낼 목표를 내세우고 투쟁하고 있음.

○ 대흥단군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2. 26)

- 대흥단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태천의 기상으로 떨쳐나 올해 농사차비를 붙이 번쩍나게 다그치고 있음. 군당위원회에서는 공동시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근로자들을 올해농사차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음.
- 군에서는 모든 단위들에 거름생산계획을 구체적으로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삼덕농장에서는 매장량이 많은 니탄생산지를 충분히 마련하여 놓고 로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니탄생산을 본격적으로 벌리고 있음.
- 돼지목장들에서는 탱크들에서 말끔히 건어낸 물거름에 밀, 보리짚을 곁고루 섞고 온도보장과 공기갈이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생산한 질 좋은 거름을 포전들에 실어내고 있음.
- 군에서는 농기구전시회를 통하여 30여종에 3만8,500여개의 각종 소농기구와 농기계부속품,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농장들에 보내준데 이어 농촌지원사업을 계속 내밀고 있음.
- 군에서는 감자종자보관과 관리, 농기계준비에도 힘을 넣고 있음. 이에 따라 농장들에서는 감자저장고들에서 종자뒤집기와 바람쏘이기, 온도관리를 비롯한 감자종자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있음.

○ 통천군의 농사차비 소개(민주조선 2. 28)

- 통천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태천의 기상안고 농사차비에 한결같이 떨쳐나섰음.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

을 이룩할 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드높은 혁명적 열정에 넘쳐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서 연일 성과를 이룩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3. 2)

- 황주군 3대혁명붉은기 룡천협동농장에서 태천의 기상으로 농사차비를 다그치고 있음. 농장에서는 거름생산과 실어내기를 빨리 끝내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보도(로동신문 3. 4)

- 룡천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깊은 올해에 농업생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결의밑에 태천의 기상안고 떨쳐나 실한 짚을 턴내내기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갖추어 가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씨뿌리기에 앞서 종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힘을 넣고 그와 관련한 조직사업과 기술지도를 실속있게 하고 있음.
- 우선 지대적 특성에 맞고 높은 소출을 내는 종자들을 마련하게 하면서 협동농장들에서 품종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게하고 있음. 또한 종자처리장을 잘 꾸린 룡송, 산투협동농장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보여주기 사업을 조직하여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종자처리장을 현실적 요구에 맞게 잘 꾸리게 하고 있음.

○ 대흥단군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3. 7)

- 대흥단군 당조직의 지도밑에 군농업경영위원회에서는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남김없이 확증된 대흥단식과학농법의 요구대로 농사짓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음. 위원회일군들은 농장들에서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거름생산과 실어내기에 계속 역량을 집중하면서 종자보관관리와 농기계수리정비에도 힘을 넣도록 하고 있음.

○ 강령군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민주조선 3. 10)

- 강령군의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말 현재 군적으로 3,700t의 소석회를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논밭의 지력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알곡수확고를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곳 군에서는 씨뿌리기가 시작되기 전에 1만여t의 소석회를 생산할 통이 큰 목표를 세우고 작전과 지휘를 주도 세밀하게 하고 있음.

○ 신평군 계수협동농장의 흙보산비료 생산동향 보도(민주조선 3. 13)

- 농장에서는 올해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땅의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하여 포전에 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특히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확증된 흙보산비료를 논밭 정당 10t이상씩 낼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4)

- 태천의 기상안고 정주시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농사차비를 더욱 다그치고 있음. 씨부리기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시안의 협동벌들은 농사차비전투로 더욱 끓어 번지고 있음.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개바닥흙을 파내어 900여 정보의 논밭에 흙갈이를 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그리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생물활성퇴비, 흙보산비료생산이 훨씬 더 늘어났음.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커다란 성과들임.
- 숙천군에서는 올해 알곡 정보당 수확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를 논밭의 지력을 높이는데서 찾고 질 좋은 유기질거름을 더 많이 내기 위한 작전을 펼쳤음. 군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들에서 수십대의 자동차와 운반기재들이 동원되어 유기질거름을 집중적으로 날라다 논밭에 내기 위한 전투가 벌어졌음.
- 은파군 초구협동농장에서 흙보산비료생산에 계속 힘을 넣고 있음. 영농실천을 통해 흙보산비료의 우월성을 잘 알고 있는 농장의 일군들은 모든 작업반들에서 흙보산비료생산기지를 실리가 나게 꾸리도록 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그리고 작업반들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함께 일도 하고 힘있는 정치사업도 하면서 흙보산비료 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도록 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5)

- 재령군에서는 흐르는 물을 모조리 잡아 농사에 이용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실천에 옮기고 있음. 특히 겨울철 강수량이 적었던 조건에 맞게 모든 가능성을 적극 이용하여 물잡이 전투를 대대적으로 벌리고 있음. 책임일군들은 관개부문 일군들속에 들어가 물잡이의 중요성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면서 저수지는 물론 보막이와 논관물잡이 등 실정에 맞게 물잡이를 힘있게 내밀도록 그들의 책임성을 높여 주고 있음.
- 문덕군안의 협동벌들이 벼랭상모판씨뿌리기준비로 들끓고 있음. 군에서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미 150여동의 종자처리실을 기술적 요구대로 말끔히 보수하고 박막과 말장, 바람막이바자, 활창대 등 모판자재들은 물론 씨앗처리에 필요한 시약들도

확보해 놓았으며 1단계 벼모판갈이를 끝내고 모판만들기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각지의 농사차비 동향 보도(로동신문 3. 19)

- 안악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 트랙또르들의 출동식을 끝내기 바쁘게 봄논밭갈이전투를 힘있게 벌리고 있음. 협동별마다에 태천의 기상아 세차게 내려치고 논밭갈이실적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음.

□ 비료생산(거름생산)

○ 강서군 청산리협동농장의 동향 보도(민주조선 1. 5)

- 강서군 청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뜻 깊은 올해에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결의 드높이 새해 첫 시작부터 힘찬 투쟁을 벌려 나가고 있음. 작업반원들이 도시거름 실어들이기를 다그치고 있으며, 새해 첫 하루 동안에만도 1,000여t의 질 좋은 도시거름을 실어들이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각지의 농사준비동향 보도(민주조선 1. 5)

- 황해북도에서 3일 8만여t의 질 좋은 거름을 논밭에 실어내는 것으로 새해 첫 농촌지원의 날을 보내었음. 이날 사리원시의 도급, 시급기관 일군들은 한사람같이 떨쳐나 주변농장들에 1,600여t의 거름을, 곡산군의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은 수천 t의 거름을 보내주었음.
- 농촌지원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해주시, 청단군, 신천군, 배천군, 벽성군 등 황해남도안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드높은 애국의 열정으로 계획보다 두배나 되는 많은 거름이 포전들에 운반되었음.
- 평안남도에서는 도급,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 로동계급이 수천t의 거름과 중소농기구들을 농촌들에 보내주었으며 평안북도안의 시, 군들에서도 많은 거름을 마련한데 이어 4만4,000여t의 거름을 농장별에 냈음.

○ 각 지역의 거름내기 동향 보도(민주조선 1. 7)

- 평원군 송석협동농장에서는 논밭 정보당 거름을 수십t씩 내며 두벌농사포전에는 이보다 더 많은 거름을 내기로 하였음. 지난해 한달동안에만도 3,200여t의 거름을 생산한데 기초하여 농장에서는 새해에 들어와 그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정주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지난해보다 수천t의 니탄을 더 생산하여 흙보산비료를 만들 높은 목표를 세웠음. 시험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니탄캐기를 전부 끝내도록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고 있음. 위원회일군들은 니탄매장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데 기초하여 협동농장들에서 전투조직을 짜고 들도록 하고 있음. 또한 농장들에서 운반수단들을 총동원하고 로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는 한편 일군들이 힘든 일에 몸을 잠그면서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음.

○ 재령군의 소식회 생산기지 소개(로동신문 1. 10)

- 재령군 삼지강협동농장에서는 소식회생산기지를 잘 꾸려놓고 매일 많은 량의 소식회를 구워내고 있음. 농장에서 소식회생산기지를 새로 일떠세우고 생산을 시작한지는 한해밖에 되지 않음. 하지만 농장에서는 지금 많은 량의 소식회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그쁘히 갖추어놓고 그 덕을 보고 있음.
- 농장에서는 소식회 생산목표를 높이 세운데 기초하여 이미 있던 소식회로를 대담하게 허물고 보온상태도 좋고 생산능력도 종전에 비해 2배나 높은 큰 규모의 소식회생산기지를 꾸려놓았음. 농장의 일군들은 부침당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가 소식회생산정상화에 있다는 것을 농장원들에게 깊이 인식시켜주어 그들 모두가 이 사업에 적극 발동되도록 하였음. 또한 생산경험이 있고 책임성이 높은 사람들로 작업조직을 하여 질 좋은 소식회를 매일 정상적으로 생산하도록 하였음.

○ 황해남도의 거름내기 보도(로동신문 1. 14)

- 황해남도에서는 농촌지원사업을 통해 8만여t의 도시거름을 실어 협동농장포전들에 보내주었음. 힘있는 농촌지원사업에 크게 고무된 도안의 농업부문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농사차비목표를 높이 세우고 힘찬 전투를 벌리고 있음. 재령벌과 연백벌을 비롯한 도안의 모든 농촌들에서 흙보산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강계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흙보산비료 생산동향 보도(로동신문 1. 17)

- 강계시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일군들은 흙보산비료의 질을 농작물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보장하여 실지 농사에서 은이 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이들은 원료가 충분히 마련된 조건에서 강계애국복합미생물비료공장에서 질 좋은 흙보산비료를 생산하여 시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힘있게 내밀고 있음.

○ 각 지역의 흙보산비료 생산동향 보도(로동신문 1. 20)

- 곡산군 물리협동농장과 평암협동농장에서는 질 좋은 거름을 많이 생산하여 부침땅의 지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 들었음.

○ 정주시의 니탄캐기 동향 보도(로동신문 2. 27)

- 정주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니탄캐기에 로력과 운반수단을 집중하여 매일 많은 니탄을 캐내고 있음. 특히 흙보산비료생산에 쓰이게 될 니탄을 더 많이 캐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웠음. 니탄이 매장되어 있는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체로 니탄을 태내고 있으며 다른 협동농장들에서는 니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는 오산협동농장에 로력과 운반수단들을 집중시켜 니탄을 캐고 있음.

○ 각지의 흙보산비료 생산 보도(민주조선 1. 28)

- 벽성군 장현협동농장에서는 경지면적에 따르는 흙보산비료생산량을 정확히 알아보고 원료확보문제와 생산정상화문제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높이 세운 계획에 맞게 그 생산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방도들을 놓고 농장원들과 집체적으로 의논한 다음 현실성 있게 물어나가고 있음.
- 고성군 운곡협동농장에서는 흙보산비료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 1,000여t의 니탄을 짧은 기간에 캐낼 목표를 세우고 경제조직사업을 짜고 들고 있음.
- 철산군 선주협동농장에서도 집집승우리 배설물을 모조리 긁어모으고 흙보산비료를 만들기 위한 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탈곡장주변에 퇴적장을 만들어 놓고 질 좋은 거름을 생산하고 있음. 종축작업반, 비육분조들에서는 소우리, 돼지우리들에 북데기와 마른풀들을 밟혀내어 거름생산을 다그치고 있음.

○ 강동군의 흙보산비료 생산 보도(민주조선 2. 28)

- 강동군 봉화협동농장에서 흙보산비료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음. “땅을 갈구는데서 보약과도 같은 흙보산비료가 많으면 알곡생산을 얼마든지 늘일 수 있다”. 지난 기간의 농사실천을 통해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모든 가능성과 조건을 이용하여 흙보산비료 생산을 늘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농장일군들은 질 좋은 흙보산비료 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음. 특히 작업반들에 흙보산비료 생산을 위한 태양열온실을 만들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었음. 하여 작업반들에는 비료생산에서 실리를 보장할 수 있는 온실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지난해에 많은 양의 흙보산비료

를 생산하여 효과있게 이용하게 되었음.

○ 성간군의 생물활성퇴비생산 보도(민주조선 1. 30)

- 성간군에서는 올해농사에서 흙보산비료와 함께 미생물비료를 많이 써서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극력 줄이면서도 농업생산을 늘일 목표를 내세우고 생물활성퇴비생산을 적극 내밀고 있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생물활성퇴비생산과 관련한 군적인 방식상학을 조직하였음. 방식상학을 통하여 군안의 농업부문 일군들이 생물활성퇴비의 효과서오가 우월성을 깊이 인식하는 것과 함께 생물활성퇴비생산에서 지켜야 할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였음.

□ 농촌지원사업

○ 내각사무국과 성, 중앙기관들의 농촌지원사업 보도(민주조선 1. 4)

- 내각사무국과 성, 중앙기관들에서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내각사무국 책임일군들은 3일 140여대의 자동차에 많은 영농물자를 싣고 곡산군안의 10여개 협동농장을 찾아가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리라고 한 공동시설의 구절구절을 가슴깊이 새기고 새해농사차비를 다그치고 있는 농업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해주었음.

○ 전국각지 일군들의 새해 첫 금요로동 보도(민주조선 1. 6)

- 전국각지 일군들이 5일 뜻깊은 새해 첫 금요로동을 농촌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여러 전투장들에서 진행하였음. 성, 중앙기관 정무원들은 력포구역 소삼정협동농장에서 금요로동의 하루를 보냈음. 농업성, 철도성, 화학공업성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정무원들은 혁명의 지휘성원된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공동시설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어 새해 첫날전투에서부터 실적을 올린 기세로 거름실어내기에서 앞장섰음. 또한 교육성, 국토환경보호성, 룡해운성, 무역성, 채취기계공업지도국 일군들은 농촌을 적극 도울 열의 밑에 하루작업을 불이 번쩍나게 해제켰음.

○ 협동농장들과 강철공장 지원사업 보도(민주조선 1. 6)

- 평양시에서 5일 협동농장들과 강철공장에 대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음.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데 대한 올해 공동시설을 뜨거운 심장마다에 받아안은 수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수만t의 거름과 영농자재

들을 자동차와 트랙토르 등 륜전기재들에 가득 싣고 새해농사차비로 들끓는 시 주변 농장들을 찾았음.

○ 평양시의 농촌지원사업 보도(로동신문 1. 8)

· 시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시인민위원회의 일군들은 주변협동농장들에 나가 농사차 비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본 다음 시안의 기관, 기업소들과 동, 인민반들에 나가 올해농사를 잘하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면서 대중을 힘있게 불러 일으켰음. 그리하여 평양시에서는 1,150여대의 화물자동차와 290여대의 트랙토르, 여러 가지 운반수단들을 이용하여 2만4,780여t의 도시거름과 수많은 소농기구들을 만경대구역, 강남군, 강동군, 순안구역 등 주변농촌들에 보내주었음.

○ 황해북도의 거름 지원사업 소개(민주조선 1. 17)

· 새해에 들어와 하루 동안에만도 도안의 수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성의껏 마련한 질 좋은 거름 4만7,510여t을 농촌들에 보내주었음. 송림시의 책임일군들은 농촌 지원의 불길이 온 시에 타 번지도록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 들었음. 지난 3일 하루 동안에만도 송림시에서는 6,170여t의 질 좋은 거름을 농촌들에 보내주었음.

○ 평성시의 농촌지원사업 소개(로동신문 1. 19)

· 평성시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안의 일군들은 농업발전의 전망에 대한 신심을 가지고 정초부터 농촌지원사업을 통이 크게 조직하고 내밀고 있음. 시에서는 방송 선전차를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올해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음. 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최근 며칠동안에만도 1만2,000여t의 거름을 생산하여 협동농장포전들에 실어냈음.

○ 철도성의 미루벌 농사지원사업 보도(로동신문 2. 27)

· 철도성의 일군들이 월양협동농장에 내려가 제기되는 문제들과 농장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였음. 땅을 기름진 옥토로 개간하며 당면하게는 올해농사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보장하기 위한 분공조직 등 여러 가지 대책들이 취해졌음. 역사업국, 행정조직국, 대렬국을 비롯한 성의 정무원들이 앞장에 서서 삼과 호미, 낫 등 많은 소농기구들을 짧은 기간에 준비하였음.

○ 해주시의 농촌지원사업 소개(로동신문 2. 29)

· 해주시 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인민위원회 일군들은 시안의 공장, 기업소는 물론 동, 인민반들에도 내려가 대중속에 공동사설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면서 그들이

농촌지원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게 하고 있음. 또한 그들이 생산한 도시거름의 질과 양을 정확히 평가해주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고 있음. 해주련결농기계공장, 해주백화점을 비롯하여 맡겨진 거름생산과제를 훨씬 넘쳐 수행하고 있는 단위들이 날을 따라 늘어나고 있음.

- 시주택보수사업소와 승마동, 옥계동, 연하동을 비롯한 시안의 공장, 기업소 근로자들과 동, 인민반의 주민들은 질 좋은 거름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기 위해 애국의 뜨거운 마음을 바쳐 농촌지원사업을 추진해가고 있음. 시에서는 이와 동시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영농물자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힘있게 내밀고 있음.

○ 량강도의 농촌지원사업 보도(민주조선 3. 9)

- 량강도에서는 단계별 목표를 세우고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 들어 계획적으로 내밀고 있음. 그리하여 도에서는 수천t의 거름과 수만점의 중소농기구를 1차적으로 마련하여 삼지연군안의 농장들을 비롯한 감자산지들에 보내준데 이어 최근에 또다시 50여종에 2만여점에 달하는 각종 중소농기구들을 장만하여 농촌에 보내주었음.

○ “미루벌농사를 힘있게 지원” 게재(로동신문 3. 16)

-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올해공동사설의 전투적 호소를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들에서 미루벌농사를 힘있게 지원하고 있음. 금속공업성, 국가품질감독국, 재정성, 은하지도국, 건설건재공업성, 석탄공업성을 비롯한 성, 중앙기관의 일군들과 정무원들은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릴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수많은 영농물자를 마련하여 가지고 미루벌로 달려 나가 공동사설과업관철에 떨쳐나선 농장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음.

○ 개성시의 농촌지원사업 보도(로동신문 3. 18)

- 개성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 들어와 여러 차례에 걸쳐 농사일에 절실히 필요한 중소농기구와 영농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었음. 시의 책임일군들은 협동농장들에 나가 실태를 료해한데 기초하여 시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쓸모있는 중소농기구와 모판자재, 농기계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유허자재를 마련하여 협동농장들에 보내주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대중을 적극 불러일으켰음.

□ 농민휴양소 운영

○ 각지의 농민휴양소들 활발히 운영 보도(민주조선 1. 6)

- 전국각지의 농민휴양소들에서 올해 첫 휴양생활이 시작되었음. 휴양생들은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참고나, 답사도 하고 영화관람, 예술공연, 유희오락,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음. 지금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함경북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각지의 농민휴양소들마다에서 농업근로자들의 행복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리고 있음.
- 석담구곡휴양소, 온포휴양소, 학사대휴양소, 리원휴양소, 정평휴양소를 비롯한 각지 휴양소들에서 농업근로자들은 즐거운 휴양의 나날을 보내며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음. 대동강기슭에 자리잡고 있는 고방산휴양소, 우리나라 명산의 하나인 묘향산에 위치하고 있는 묘향산휴양소에서는 휴양생들에게 생활조건을 잘 보장해주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 농기구 전시회 개최

○ 사리원시의 중소농기구전시회 진행 보도(민주조선 2. 24)

- 얼마 전 사리원시에서는 도급과 시급기관, 기업소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중소농기구들에 대한 전시회가 있었음. 전시회는 올해공동사설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고 있는 시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뜨거운 마음을 잘 보여주었음. 전시회에서는 근 50종에 4만 5,000여점에 달하는 중소농기구들이 출품되었음. 중소농기구전시회에서는 도인민위원회, 도송배전부, 도체신관리국과 사리원신발공장, 사리원기계공장, 사리원기초식품공장들에서 출품된 중소농기구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음.

□ 메탄가스화

○ 메탄가스화된 살림집에 대해 보도(민주조선 3. 3)

- 안악군인민위원회에서 더 많은 농촌살림집들에 메탄가스화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내밀고 있음. 올해에 메탄가스화가 도입된 60동의 문화적인 농촌살림집을 건설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음.

- 살림집설계부터 메탄가스를 도입하고 그 이용률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있음. 살림집의 부엌 가까이에 메탄가스탱크를 설치하고 그 위에 온실을 지어주어 농업근로자들이 사철 신선한 남새를 키워 먹으면서도 가스발생에 필요한 온도도 보장하게 함으로써 계절에 구애됨이 없이 메탄가스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김치

○ 영채김치 소개(로동신문 2. 20)

- 영채김치는 함경도지방음식임. 영채김치는 단백질, 지방질, 탄수화물, 여러 가지 비타민들과 광물질 등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부식물로서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아 장수식품으로 일러줌.
- 음식감으로는 200그릇분일 때 영채 50kg, 마른 고추 100g, 배 2kg, 사과 2kg, 파 1kg, 마늘 400g, 생강즙 200g, 새우젓 1kg, 소금 800g, 사탕가루 300g, 고춧가루 200g, 성근 고춧가루 200g, 사자고춧가루 200g을 준비함.
- 만드는 방법은 우선 영채를 깨끗이 다듬어 색이 노랗게 될 때까지 2~3일 동안 띄운 다음 씻어서 (흐르는 물에 5~6번) 소금에 20~24시간 초절임하였다가 다시 씻음. 사과와 배는 각각 네쪽으로 쪼개어 씨속을 파내며 파는 깨끗이 씻어 6~8cm 길이로 썰어놓고 마늘은 다지며 마른 고추는 씨를 뽑고 깨끗이 씻어 큼직큼직하게 썬. 초절임한 영채에 고춧가루, 마늘, 생강즙, 파, 마른 고추, 사탕가루를 두고 버무려 속에 넣으면서 사이사이에 사과와 배를 놓음. 새우젓과 소금물을 끓여 식힌 다음 속에 붓고 독아구리를 봉한 다음 10~13℃되는 온도에서 7일 동안 익혀냄. 다음 유리그릇 또는 사기그릇에 담고 김치국물을 부어서 냄.

□ 기초식품

○ 함경북도 기초식품공장 소개(민주조선 1. 23)

- 함경북도인민위원회에서 인민들에게 맛 좋고 질 좋은 기초식품들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년 초부터 도안의 기초식품공장들에서 생산을 활성화할 수 있게 작전을 바로하고 그 실행을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도안의 모든 기초식품공장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음. 위원회에서는 해당 국 일군들을 아래에 내려 보내어 그들이 해당 단위들에서의 기초식품 생산정형을 일별, 주별로 장악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게 하고 있음.

- 청진기초식품공장의 위원회일군들은 근로자들과 함께 일도 하면서 그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키는 한편 모든 근로자들이 480분 노동시간을 효과있게 이용하면서 표준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생산에서 혁신적 성과를 이룩하도록 일군들의 사업을 이끌어주고 있음.

□ 김정일화 축전

○ 제11차 김정일화 축전 개막 보도(로동신문 2. 15)

- 제11차 김정일화 축전이 14일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되었음. 축전장인 대동강 기슭의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는 축전기발들이 게양되었으며 <제11차 김정일화축전>이라는 글발과 축전마크가 걸려있었음. 축전장은 무력기관, 내각 위원회,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들, 인민군군인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정성을 다해 피운 2만 5,000여상의 태양의 꽃들이 축전장에 축원의 꽃바다를 펼쳐었음. 축전장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와 해외동포들, 남조선인민들, 주조 외교대표부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친선단체, 사회단체, 개별적 인사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화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답게 피운 김정일화가 전시되었음.

□ 들쭉

○ 들쭉가공공장의 기술개건사업 소개(민주조선 1. 6)

- 혜산시인민위원회에서 들쭉가공품의 량과 그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들쭉가공공장의 기술장비수준을 개건하는 사업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농업교류협력 동향

●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3.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남북한 농업교류협력 동향*

1.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6년 12월 중 남북교역액은 8,590만 달러로 전년 동월 7,712만 달러에 비해 11.4% 증가하였음.(전월 9,450만 달러 대비 9.1% 감소)
- 반입은 4,37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223만 달러에 비해 35.6% 증가하였음.(전월 5,030만 달러 대비 13.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17.9%, 농림수산물 39.6%, 광산물 19.4%, 철강·금속제품 8.8%, 기계류 4.7% 등임.
- 반출은 4,219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4,489만 달러에 비해 6% 감소하였음(전월 4,420만 달러 대비 4.5%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7.6%, 기계류 15.5%, 섬유류 24.1%, 철강·금속제품 21.2%, 생활용품 10.1% 등임.

□ 1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6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731만 달러로 전월 1,682만 달러 대비 2.9% 감소하고 12월 전체 반입액 4,371만 달러의 39.6%를 차지했음.

* 통일부 교류협력국에서 발간하는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과 통일부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재정리한 것임.

- 반입 농림수산물: 표고버섯·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490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1.2%), 기타 육류가공품 등 축산물이 2,000달러(전체 반입액의 0.004%),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7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2%),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1,23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8.2%)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6년 12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20만 달러로 전월 424만 달러 대비 24.5% 증가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대두유 등 농산물이 25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6.0%), 기타 산동물 등 축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건축용 목제품 등 임산물이 38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9%), 어패류 등 수산물이 26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6%)를 차지했음.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1월 중 남북교역액은 9,274만 달러로 전년 동월 6,310만 달러에 비해 47% 증가하였음.(전월 8,590만 달러 대비 7.9% 증가)
- 반입은 5,558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674만 달러에 비해 107.9% 증가하였음.(전월 4,371만 달러 대비 27.1%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3.4%, 농림수산물 29.4%, 광산물 13.6%, 철강·금속제품 21.3%, 전자·전기제품 3.5% 등임.
- 반출은 3,716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636만 달러에 비해 2.2% 증가하였음.(전월 4,219만 달러 대비 11.9% 감소)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8.3%, 기계류 17.6%, 섬유류 29.1%, 철강·금속제품 14.4%, 전기·전자제품 9.9% 등임.

□ 1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636만 달러로 전월 1,731만 달러 대비 5.5% 감소하고 1월 전체 반입액 5,558만 달러의 29.4%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표고버섯·호두 등 농산물이 299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5.4%),

목제식탁용품 등 임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0.03%),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1,334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24.0%)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1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310만 달러로 전월 320만 달러 대비 3.1% 감소하였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당근 등 농산물이 300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8.1%), 소시지 등 축산물이 3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8%), 기타 목재류 등 임산물이 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1%), 어패류 등 수산물이 2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05%)를 차지했음.

□ 2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2월 중 남북교역액은 8,222만 달러로 전년 동월 6,648만 달러에 비해 23.7% 증가하였음(전월 9,274만 달러 대비 11.3% 감소)
- 반입은 4,44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2,841만 달러에 비해 56.4% 증가하였음.(전월 5,558만 달러 대비 20.1% 감소)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4.3%, 농림수산물 22.7%, 광산물 14.9%, 철강·금속제품 25.4%, 전자·전기제품 2.5% 등임.
- 반출은 3,770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3,806만 달러에 비해 0.7% 감소하였음(전월 3,716만 달러 대비 1.5% 증가)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4.9%, 기계류 11.1%, 섬유류 22.8%, 철강·금속제품 15.8%, 전기·전자제품 25% 등임.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교역전반)

- 2007년 3월 중 남북교역액은 10,315만 달러로 전년 동월 13,100만 달러에 비해 21.3% 감소하였음(전월 8,222만 달러 대비 25.5% 증가)
- 반입은 5,863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4,133만 달러에 비해 41.9% 증가하였음.(전월 4,443만 달러 대비 31.9% 증가)
 - 품목별 구성은 섬유류 27.6%, 농림수산물 20.0%, 광산물 14.3%, 철강·금속제품

25.4%, 전자·전기제품 3.4% 등임.

- 반출은 4,451만 달러로 전년 동월의 8,967만 달러에 비해 50.4% 감소하였음(전월 3,779만 달러 대비 17.8% 증가)
- 품목별 구성은 농림수산물 9.7%, 기계류 18.6%, 섬유류 16.5%, 철강·금속제품 12.5%, 전기·전자제품 13.0% 등임.

□ 3월 중 남북한 교역 동향(농림수산물)

- 농림수산물 반입 동향
 - 2007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입은 1,174만 달러로 3월 전체 반입액 5,863만 달러의 20.0%를 차지했음.
 - 반입 농림수산물은 마늘·식물성 한약재 등 농산물이 20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3.5%), 목제생활용품 등 임산물이 5,000 달러(전체 반입액의 0.009%), 기타 조개 등 수산물이 966만 달러(전체 반입액의 16.5%)를 차지했음.
- 농림수산물 반출 동향
 - 2007년 3월 중 농림수산물 반출은 431만 달러로 3월 전체 반출액 4,451만 달러의 9.7%를 차지했음.
 - 반출 농림수산물은 마늘·감자 등 농산물이 311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7.0%), 분유 축산물이 29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7%), 수목류 등 임산물이 77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1.7%), 어패류 등 수산물이 14만 달러(전체 반출액의 0.3%)를 차지했음.

표 1. 2006년 12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증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2,316,711	4,901	11.2	농산물	2,163,429	2,534	6.0
강낭콩	151,000	61		쌀	4,114	10	
들깨	49,740	26		쌀가루	1,800	4	
감	39,900	67		밀가루	524,167	165	
기타곡실류	6,720	171		오렌지	405	1	
무	10,000	7		수박	161	1	
호박	182,250	114		마늘	324,375	626	
마늘	287,135	301		고추	10,552	28	
기타채소	451,788	592		기타채소	41,634	89	
고사리	40,258	228		기타산식물	147,040	92	
죽순	3,240	5		대두유	777,404	699	
영지버섯	6,710	45		사료	18,450	5	
표고버섯	242,749	1,929		기타식물성물질	125,200	26	
기타버섯류	40,756	190		된장	6	0	
기타건과류	206,840	109		고추장	15,000	225	
된장	74,004	47		커피조제품	596	8	
기타소스류	1,000	1		초코렛	170	1	
커피조제품	2	0		녹차	2	0	
제조담배	525	5		제조담배	85	3	
식물성한약재	246,065	929		소주	1,720	2	
맥주	4,650	4		맥주	2,952	3	
물	241,380	47		위스키	538	34	
면류	29,000	21		기타주류	752	7	
				정당	3,216	10	
				기타음료	1,717	3	
				사탕	800	5	
				비스킷	3,778	25	
				곡류가공품	15	0	
				빵	12,946	58	
				면류	16,103	53	
				기타농산가공품	94,308	233	
				면	33,424	117	
축산물	600	2	-	축산물	5,721	29	0.1
기타육류가공품	600	2		기타산동물	370	18	
				돼지고기	970	4	
				소시지	3,613	6	
				기타낙농품	768	1	
임산물	61,771	74	0.2	임산물	639,300	382	0.9
합판	10	0		합판	7,144	19	
건축용목제품	230	0		건축용목제품	551,411	302	
목제식탁용품	12,300	16		기타목재생활용품	994	4	
기타목재류	16,656	14		기타목재류	1,051	1	
기타임산부산물	32,575	43		수목류	78,700	55	
수산물	8,353,741	12,342	28.2	수산물	48,132	261	0.6
기타어류	759	4		오징어	30	0	
새우	180,760	881		기타조개	1,520	1	
기타게	72,308	568		미역	30,000	240	
오징어	6,344	63		기타해조류	20	0	
문어	347,641	1,068		기타수산물통조림	33	0	
낙지	10,000	22		기타수산가공품	4,929	10	
굴	247,898	379		기타수산물	11,600	10	
피조개	55,852	130					
기타조개	5,816,148	6,083					
기타연체동물	1,079,887	1,551					
어육	10,000	32					
기타수산물통조림	2,120	23					
기타염장수산물	44,850	67					
기타수산가공품	438,789	1,387					
기타수산물	40,385	85					
합 계		17,319	39.6	합 계		3,206	7.6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86호(2006.12.1~12.31).

표 2. 2007년 1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246,006	2,996	5.4	농산물	4,962,041	3,002	8.1
강낭콩	131,000	52		쌀	6,709	16	
기타곡실류	5,000	16		감자	18,237	40	
무	2,780	3		팥	8,182	20	
마늘	341,273	294		강낭콩	4,648	11	
고추	7,975	6		기타두류	2,548	6	
기타채소	265,460	341		밀가루	24,226	21	
고사리	8,454	54		바나나	21	0	
표고버섯	108,458	839		오렌지	1,864	4	
기타버섯류	50,421	361		감귤	300,000	88	
호도	80,000	545		당근	4,000,000	1,434	
기타견과류	11,000	7		토마토	88	0	
들기름	16,500	17		가지	1,456	5	
기타식물성유지	1,080	10		양파	5,701	19	
식물성한약재	127,830	372		마늘	347,605	671	
소주	4,320	5		부추	1	0	
맥주	4,500	4		기타채소	35,501	69	
기타주류	5,250	7		사료	71,550	33	
면류	31,505	24		고추장	35	0	
기타농산가공품	43,200	38		마요네스	320	2	
				기타소스류	5,052	9	
				커피조제품	498	3	
				초코렛	9,463	20	
				제조담배	3,388	97	
				소주	2,176	4	
				맥주	7,727	7	
				위스키	1,132	54	
				기타주류	607	12	
				기타당류	11,997	57	
				기타음료	1,413	3	
				사탕	210	2	
				비스킷	6,852	50	
				곡류가공품	18	0	
				빵	12,236	33	
				면류	13,046	65	
				기타농산가공품	57,534	147	
축산물	-	-	-	축산물	11,125	32	0.08
				돼지고기	1,229	5	
				소시지	6,171	20	
				버터	96	0	
				치이즈	2,563	6	
				기타낙농품	1,067	2	
임산물	19,448	26		임산물	17,465	41	0.1
목재식탁용품	3,000	4		합판	7,324	6	
기타목재생활용품	4,500	5		섬유판	1,158	17	
기타목재류	948	9		건축용목제품	5,258	6	
기타임산부산물	11,000	9		기타목재생활용품	10	0	
				기타목재류	3,315	10	
				종자류	400	2	
수산물	8,561,978	13,345	24.0	수산물	15,589	27	0.05
넙치	406	3		기타게	294	1	
기타어류	30,974	37		오징어	12	0	
새우	135,510	1,187		기타조개	4,446	6	
기타게	72,111	632		기타연체동물	5,040	7	
문어	407,167	1,307		김	1,288	4	
낙지	35,414	71		기타수산물통조림	29	0	
굴	232,477	284		기타수산가공품	4,480	8	
피조개	65,971	189					
기타조개	5,742,595	6,268					
기타연체동물	1,286,035	1,590					
기타염장수산물	3,618	7					
건조수산물	23,796	184					
기타수산가공품	453,543	1,514					
기타수산물	72,362	72					
합 계		16,367	29.4	합 계		3,102	8.3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87호(2007.1.1~1.31).

표 3. 2007년 3월 중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반 입				반 출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품목	중량(kg)	금액(천달러)	구성비
농산물	1,044,930	2,069	3.5	농산물	1,554,672	3,111	7.0
쌀	8,000	7		쌀	8,549	18	
기타서류	16,814	26		감자	322,744	359	
강낭콩	85,560	36		밀가루	100,167	52	
마늘	415,162	452		사과	45	0	
기타채소	146,312	184		바나나	15	0	
고사리	4,861	32		오렌지	461	2	
죽순	3,240	5		토마토	10	0	
영지버섯	3,486	20		마늘	427,386	825	
표고버섯	39,743	275		기타채소	26,757	60	
기타버섯류	38,521	272		기타산식물	331,180	347	
밤	17,000	15		대두유	74,250	91	
기타견과류	103,100	62		사료	97,600	39	
식물성한약재	94,160	617		마요네스	1	0	
소주	1,806	2		기타소스류	600	14	
맥주	4,500	4		커피조제품	2,535	14	
기타주류	3,570	10		초코렛	2,148	18	
면류	38,565	33		녹차	11	1	
기타농산가공품	20,530	18		제조담배	11,050	187	
				인삼류	1,187	87	
				소주	1,120	2	
				맥주	2,664	3	
				위스키	7,876	248	
				기타주류	1,617	37	
				기타당류	8,000	7	
				음료베이스	3,333	288	
				과일주스	1,787	6	
				기타음료	1,714	3	
				사탕	1,776	15	
				비스킷	1,534	11	
				곡류가공품	50	0	
				빵	9,106	19	
				면류	14,967	69	
				기타농산가공품	92,302	267	
				종자류	32	18	
				면	100	1	
축산물	-	-	-	축산물	41,696	291	0.7
				돼지	6,720	32	
				쇠고기	92	1	
				돼지고기	7,232	60	
				소시지	3,908	5	
				분유	22,000	87	
				기타낙농품	735	1	
				난류	10	0	
				단백질류	1,000	105	
임산물	3,030	5	0.009	임산물	517,790	774	1.7
기타목재생활용품	3,030	5		합판	282,858	329	
				단판	1	3	
				섬유판	4,700	6	
				건축용목제품	6,050	18	
				목재장식품상자	53	8	
				기타목재생활용품	113	0	
				기타목재류	2,265	22	
				수목류	221,350	386	
				종자류	400	2	
수산물	7,111,308	9,666	16.5	수산물	67,258	143	0.3
넙치	547	6		기타조개	40,050	39	
기타어류	63,815	63		기타해조류	8	0	
새우	97,210	654		기타수산물통조림	20	0	
기타계	33,674	289		건조수산물	4,980	40	
문어	698	2		기타수산가공품	15,080	48	
굴	63,486	94		수산부산물	7,120	16	
피조개	65,787	179					
기타조개	4,712,351	5,167					
기타연체동물	1,815,082	2,084					
한천	600	19					
기타염장수산물	10,200	22					
건조수산물	38,590	280					
기타수산가공품	203,864	765					
기타수산물	5,404	43					
합 계		11,740	20.0	합 계		4,319	9.7

주: 구성비는 전체 반입액과 전체 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89호(2007.3.1~3.31).

□ 남북한 교역 통계

표 4. 연도별·월별 남북한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건수	품목수	금액(A)	건수	품목수	금액(B)		
1989	66	24	18,655	1	1	69	18,724	△ 18,586
1990	79	23	12,278	4	3	1,188	13,466	△ 11,090
1991	300	43	105,719	-	16	5,547	111,266	△ 100,172
1992	510	69	162,863	62	25	10,563	173,426	△ 152,300
1993	601	69	178,167	97	37	8,425	186,592	△ 169,742
1994	708	80	176,298	267	87	18,249	194,547	△ 158,049
1995	976	109	222,855	1,668	167	64,436	287,291	△ 158,419
1996	1,475	130	182,400	1,908	167	69,639	252,039	△ 112,761
1997	1,806	143	193,069	2,185	284	115,270	308,339	△ 77,799
1998	1,963	136	92,264	2,847	379	129,679	221,943	37,415
1999	3,089	172	121,604	3,421	405	211,832	333,436	90,228
2000	3,952	204	152,373	3,442	527	272,775	425,148	120,402
2001	4,720	201	176,170	3,034	492	226,787	402,957	50,617
2002	5,023	204	271,575	3,773	495	370,155	641,730	98,580
2003	6,356	186	289,252	4,853	530	434,965	724,217	145,713
2004	5,940	202	258,039	6,953	575	439,001	697,040	180,962
2005	9,337	381	340,281	11,878	712	715,472	1,055,754	375,191
2006	16,412	421	519,539	17,039	697	830,200	1,349,739	310,661
소 계	63,313	2,797	3,473,404	63,432	5,599	3,924,251	7,397,655	450,848
2007.1	1,759 (953)	169 (152)	55,581 (26,741)	1,848 (1,162)	340 (296)	37,168 (36,364)	92,749 (63,105)	△ 18,431 (9,623)
2007.2	1,533 (871)	170 (165)	44,431 (28,419)	1,586 (1,191)	339 (309)	37,797 (38,068)	82,228 (66,486)	△ 6,634 (9,649)
2007.3	1,939 (1,253)	166 (176)	58,636 (41,335)	1,823 (1,425)	399 (345)	44,515 (89,671)	103,151 (131,005)	△ 14,121 (48,336)
소계	5,231	245	158,647	5,257	525	119,480	278,127	△ 39,186
총 계	68,544	3,042	3,632,051	68,689	6,124	4,043,731	7,675,782	425,783

주: 1) ()안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1995년 교역금액은 대북 쌀 지원 237,213천 달러 반출을 제외한 것임.

3)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89호.

그림 1. 연도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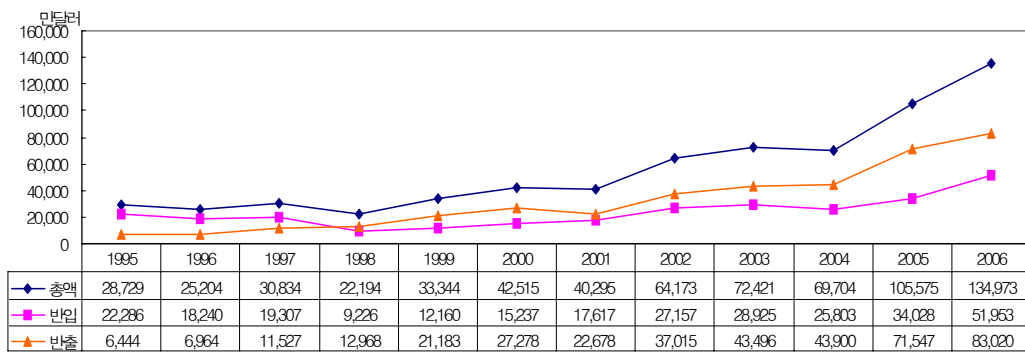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 월별 남북한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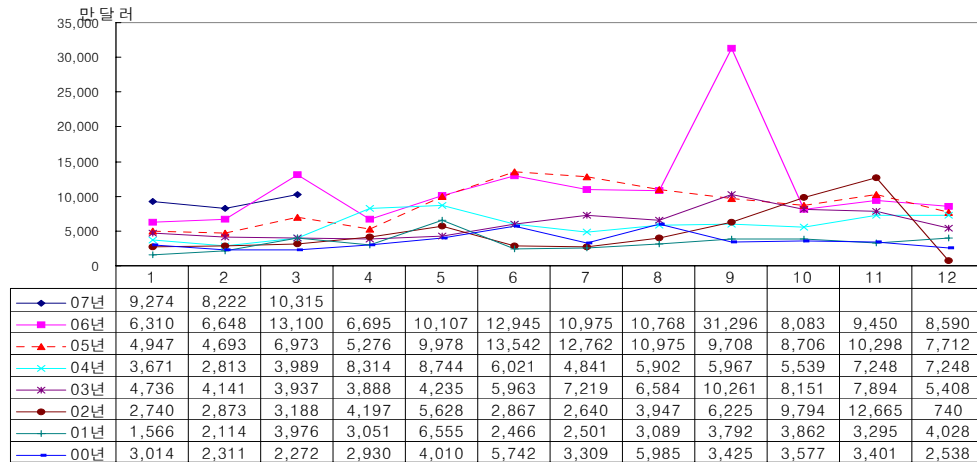


표 5. 연도별·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실적

단위: 천 달러

연 도	반 입					반 출					총교역액 (A+B)	교역수지 (B-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소계(B)		
1989	2,178	-	-	174	2,352	-	-	-	-	-	2,352	△2,352
1990	5,130	-	49	393	5,572	10	-	-	-	10	5,582	△5,562
1991	6,364	-	1,402	3,052	10,818	1,607	-	-	-	1,607	12,425	△9,211
1992	9,546	-	2,277	5,083	16,906	64	-	-	-	64	16,970	△16,842
1993	6,916	-	4,221	879	12,016	63	-	-	6	69	12,085	△11,947
1994	5,315	-	7,212	2,723	15,250	3,220	-	-	97	3,317	18,567	△11,933
1995	13,506	-	6,003	2,810	22,319	8,879	-	273	154	9,306	31,625	△13,013
1996	11,853	-	2,014	9,588	23,455	6,044	-	57	613	6,714	30,169	△16,741
1997	7,871	-	4,902	14,553	27,326	16,525	-	116	383	17,024	44,350	△10,302
1998	7,895	-	3,526	13,377	24,798	18,732	-	510	398	19,640	44,438	△5,158
1999	15,057	-	4,484	28,327	47,868	15,682	-	1,796	189	17,667	65,535	△30,201
2000	23,352	-	7,014	41,566	71,932	23,910	-	1,005	464	25,379	97,311	△46,553
2001	38,703	78	5,717	45,316	89,814	26,939	2,157	424	2,977	32,497	122,311	△57,317
2002	28,881	395	95	70,531	99,902	103,080	5,079	1,102	934	110,195	210,097	10,293
2003	36,203	1,474	245	89,714	127,636	112,345	7,425	2,206	3,583	125,559	253,195	△2,077
2004	32,965	443	244	68,209	101,862	60,649	2,411	2,006	2,075	67,141	169,003	△34,721
2005	21,425	664	318	57,430	79,837	73,303	1,638	2,160	821	77,922	157,759	△1,915
2006	37,670	184	437	99,563	137,854	206,702	1,745	4,451	994	213,892	351,746	76,038
소 계	310,830	3,238	50,160	553,288	917,517	677,754	20,455	16,106	13,688	728,003	1,645,520	△189,514
2007.1	2,996 (2,323)	- (36)	26 (73)	13,345 (7,845)	16,367 (10,277)	3,002 (833)	32 (107)	41 (183)	27 (161)	3,102 (1,284)	19,469 (11,561)	△13,265 (△8,993)
2007.2	- (1,550)	- (71)	- (41)	- (5,049)	- (6,711)	- (1,078)	- (645)	- (227)	- (31)	- (1,981)	- (8,692)	- (△4,730)
2007.3	2,069 (2,191)	- (14)	5 (53)	9,666 (9,539)	11,740 (11,797)	3,111 (1,080)	291 (198)	774 (248)	143 (33)	4,319 (1,559)	16,059 (13,356)	△7,421 (△10,238)
소 계	5,065 (6,064)	- (121)	31 (167)	23,011 (22,433)	28,107 (28,785)	6,113 (2,991)	323 (950)	815 (658)	170 (225)	7,421 (4,824)	35,528 (33,609)	△20,686 (△23,961)
총 계	-	-	-	-	945,624	-	-	-	-	735,424	1,681,048	△210,200

주: 1) ()은 2006년 동기 실적임.

2)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끝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3) 2007년 2월 반출입 실적은 <통일부 월간 남북교류협력동향>의 오류로 작성을 보류함.

자료: 통일부, 남북무역 통계자료(1989-1997), 1998.,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27~189호. <http://www.unikorea.go.kr>

그림 3. 연도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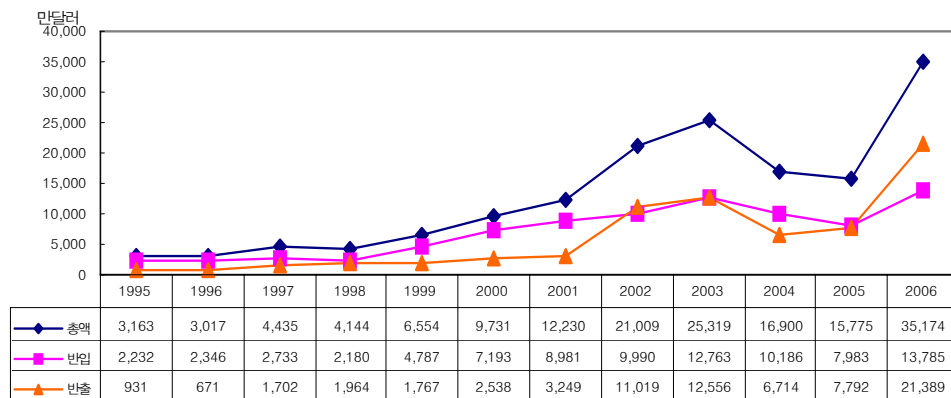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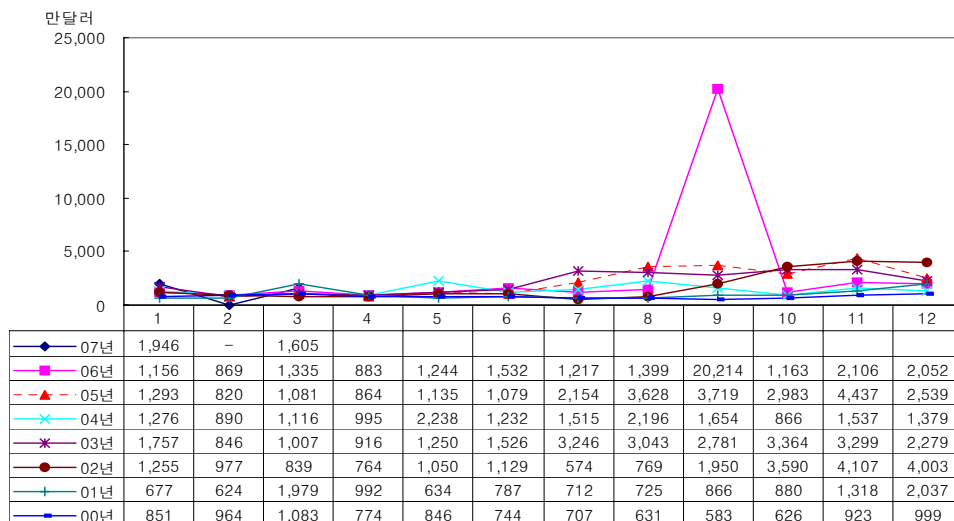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 월별 남북한 농림수산물 교역 동향



2. 교류협력사업 동향

□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 2006년 12월부터 2007년 3월 중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이나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은 없음. 3월 말 현재, 농림수산분야에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 기업(단체)는 총 16개로 전체 272개 기업(단체)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승인된 협력사업 246건 중 농림수산분야는 14건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 현황, 2007년 3월 말 현재

기 업	사업상대자	사 업 내 용	지 역	금 액	사업자 승인일
미홍식품**(합 영)	조선왕실무역총회사	수산물 제하가공양식 및 판매	청진, 함흥 원산, 남포	15만불 (47만불)*	'97.5.22 (*98.3.13)*
과라우수신(합 영)	조선은과산무역상사	수산물 생산·가공	원산, 해주	300만불	'97.8.1
금오식품(합 작)	은하무역총회사	냉면·고구마전분 제조	평양	40만불	'97.8.1
태영수산·LG상사** (합 영)	광명성총회사	가리비 양식·생산	나진, 원산	200만불 (65만불)*	'97.10.14 (*98.8.28)*
인홍개발(합 작)	조선6무역회사	참기름 가공공장 설립	남포	50만불	'98.3.13
두레아울영농조합법인** (합 작)	라선경제협조회사	나진·선봉지대 합영농장 운영 및 계약재배사업	나진, 선봉	800만불 (200만불)*	'98.4.8 (*98.7.27)*
국제육수수제단** (조사연구)	농업과학연구원→ 농업과학원 (*99.3.25)	새품종 생산력 검증시험 및 제배적지 확정, 신품종 육육수수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평양, 기타	30.9억원 →216억원* (*99.3.25)*	'98.6.18 (*99.6.18→ '01.6.20)*
백산식품**(합 영)	함경북도 선봉군 온실농장	벼·쌀배지 생산 및 국내농가 보급, 포고노타라진주 등 벼·쌀류 생산 수출	나진, 선봉 (선봉군읍)	20.8만불*	'98.10.28 (*98.10.28)*
(주)해주(합 작)	광명성총회사	북한 수산물 생산 및 판매	서해인근	299만불	'99.1.8
(주)G 원산 (주)경평인터내셔널**	광명성총회사	식품가공업 (김치, 된장, 상화버섯음료)	평양	-	'03.10.31 (*04.3.20)*
(주)안동대마영직**	새별총회사	북한내 대마재배 및 삼베제품	평양, 황해도	250만불*	'04.2.18 (*04.9.17)*
제일유통**	개산무역총회사	포고버섯 재배 및 가공	평양	546만불*	'04.8.21 (*04.8.21)*
상하세염**(계약)	개산무역총회사	농수산물 및 도산물 가공공장 설립·운영	남포	5만불*	'04.9.17 (*04.9.17)*
(주)제이유네트웍스**	광명성총회사	김치제조공장 설립 및 유통·판매	평양	160만불*	'04.12.30 (*04.12.30)*
(주)에너지극동개발	광명성총회사	사료 제조·판매	평양	-	'04.12.30
아이니무역**	개산총회사	다슬기 가공설비 투자 및 판매·판매	원산	15만불*	'05.06.15 (*05.06.15)*
제일유통**	개산총회사	나무재배 및 판매	황북 봉산 황남 연덕	26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산총회사	과수재배 및 생산물 판매	평양 단경대	164만불*	'05.12.30 (*05.12.30)*
제일유통**	개산총회사	소사육 생산 및 판매	평양	30만불*	'05.12.30 (*05.12.30)*

- 주: 1) *는 협력사업 승인 금액 및 날짜임.
 2) **는 협력사업 승인까지 받은 기업(단체)임.
 3) 현대아산과 금강산관광총회사간의 계약에 의한 금강산영농장사업은 현대아산이 영농장의 시설·농자재를 금강산관광총회사에 연불수출(延拂輸出)하고 북한측은 생산물로 연불수출금을 상환하는 형태임(금강산관광총회사에서 영농장 운영은 고성군인민위원회에, 생산물 납입 가격 협의는 광명성총회사에 위탁).

자료: <http://www.unikorea.go.kr>, 통일부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및 인도적사업 동향, 제189호.

3.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

□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통일부, 2007. 1. 29)

-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1월 25일 개최되어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남북협력기금 손실보조제도 개선 : 주요 내용은 손실보조 수수료율 인하, 손실보조 약정요건 완화, 가입절차 개선 등으로 구성. 이는 경협 기업들의 대북투자 안정성을 제고하고 손실보조제도 가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
 -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소요경비 남북협력기금 대출 : 2007년도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설 관리운영비를 장기·저리로 대출(104억원).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과(2007년도 소요액 29억 8천만원),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이산가족 교류 촉진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3억1,590만원)을 결의

□ 전략물자 사전 판정 업무 위탁 협약 체결(통일부, 2007. 2. 15)

- 통일부와 한국무역협회 부설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전략물자(기술) 사전판정 업무를 위탁하는 협약 체결
 - 전략물자 관련 상담 및 판정과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업무처리를 효율화
 - 대북 전략물자 반출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업무 위탁의 범위는 전략물자 사전 판정 업무 외에 전략물자 관련 사전 상담과 홍보·교육 업무 등도 포함
 - 전략물자무역정보센터는 대북 사업자들을 상대로 전략물자 관련 정보 제공
 - 대북 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교육 및 홍보를 실시

□ 2007년도 통일부 업무계획 발표(통일부. 2007. 2. 10)

1) 2007년도 정책추진 방향

○ 4대 정책기조

- 북한 핵 폐기 촉진,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영역 확보, 원칙과 신뢰 형성, 『평화 변영』의 기초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 구축

○ 정책추진 방향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 가동
- 미래지향적 화해협력의 동력 창출
- 남북간 신뢰기반 강화
- 남북교류협력 추진역량 내실화
- 대북정책의 대내외 지지기반 확충

2007년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전략목표	성과목표
한반도 평화체제 기반 구축	-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 평화체제 토대 마련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 남북경협 확대 여건 조성 - 공동 남북경협사업 확대 -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 여건 마련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발전	- 개성공단사업의 단계적 발전 추진 -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국내·외 투자환경 조성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 이산가족교류 프로그램 안정적 시행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인도적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 - 새터민 자활체계 구축
사회문화교류협력 심화·발전	- 사회문화교류협력의 다변화·제도화 - 민족문화유산 교류협력 확대
대북정책 추진기반 확충	- 남북회담의 제도화 -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 - 평화교육의 콘텐츠 개발과 체계적 운영 - 대북정책에 관한 국제사회의 협력 강화

2) 전략목표 해설 1 : 남북 상생의 경제협력 추진

○ 남북 경협 확대 여건 조성

-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등 대규모 경협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경협확대 여건 조성
- 민간경협의 확대와 내실화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강구
 - 기업보호를 위한 전략물자 통제시스템 구축, 교류협력 법·제도 정비,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도적 장치 마련
 - 민간 경협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대북투자기업 애로 해소 추진

○ 공동 남북경협사업 확대

- 경협이 실질적으로 남북 쌍방에게 이익을 주고 공동번영과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적 모델 모색
- 농업협력, 수산협력,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등 새로운 방식의 경협사업 추진
-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 제3국 공동진출 등으로 사업영역 확대 추진

○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 여건 마련

- 북한 핵문제 해결 진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 국제기구 등을 통해 북한의 경제·기술 분야 인적자원 개발 지원

3) 전략목표 해설 2 : 인도적 과제의 실질적 진전

○ 이산가족교류 프로그램 안정적 시행

-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과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고 상봉 방식을 다양화

○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

- 당국 간 별도 협의채널 구축 추진 및 전후 납북피해자 지원 법·제도 마련

○ 인도적 지원체계의 효율적 운영

- 당국 차원의 쌀·비료지원 검토, 중장기적 지원 프로그램 마련
- 민간 및 국제기구를 통해 보건의료, 농업복구, 취약계층 지원과 영유아 지원사업 추진

○ 새터민 자활체계 구축

- 정착지원금 개선 등 자립지원제도의 종합적 보완
- 취업지원을 위해 노동부 등 유관부처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결과(통일부, 국회 통일통위 보고자료, 2007. 3. 5)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평양 고려호텔에서 개최하여, 한반도 비핵화 초기조치 이행을 위한 공동노력의 의지와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일정 등을 담은 6개 항의 합의를 도출

○ 주요 협의 내용

- 「2.13 합의」 이행 촉구 : 기초발언 및 수석대표 접촉 등을 통해 「2.13 합의」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촉구하고, 북측도 「2.13 합의」의 이행의지를 공동보도문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
-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재개 :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재개를 위한 적십자 단체간 실무접촉(3.9)→ 제5차 화상상봉 실시(3.27-29)→ 제8차 적십자회담 개최(4.10-12)→ 제15차 이산가족 상봉(5월 초순)
- 남북자·국군포로 문제 : 제8차 적십자회담(4.10-12, 금강산)을 개최하여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 남북 경협 현안 문제 :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18-21일 간 평양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사안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 열차시험운행 :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 데 따라 올해 상반기 내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경추위 위원급 접촉을 3.14-15일 간 개성에서 갖기로 합의
- 쌀·비료지원 문제 : 북측이 예년 수준의 비료 30만 톤, 쌀 40만 톤을 요청하여, 비료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북측의 구체적인 요청과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쌀은 제13차 경추위에서 차관합의서 체결 등을 통해 제공하기로 함.

< 자료 >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공동보도문 요지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6.15 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

1. 남북관계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쌍방 당국사
이의 회담을 통하여 협의 해결
2.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보장을 위해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에서 이룩된 합의들
이 원만히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
3.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
로 하고, 6.15와 8.15를 계기로 평양과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게 될 민족통일대축전에
적극 참가
4. 인도주의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재개하고 이산가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노력
 - ① 제5차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제15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를 5월 초순에 금강산에서 실시
 - ②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하기로 하고, 쌍방 적십자 단체인
실무접촉을 3월 9일 금강산에서 진행
 - ③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4월 10일부터 12일까지 금강산에서 개최하고 전쟁시기
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비롯하여 상호 관심사항들을
협의 해결
5. 민족공동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을 보다 확대 발전
 - 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평양에서 개최
하고 제반 경제협력문제들을 협의 해결
 - ② 쌍방은 군사적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올해 상반기 안으로 열차시험운행을
실시, 이와 관련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
접촉 개최
 - ③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
6.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통일부, 공고 제2007-3호, 2007. 3. 13)

○ 주요골자

- 반출·반입 승인 취소 규정을 신설하고 조정명령에 관한 규정을 보완 :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남북교류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 방문 및 협력사업자 승인 절차 간소화 : 방문증명서 발급 이후 방문증명서상의 방문 기간 이내 재방문할 경우에는 추가로 방문신고를 하지 않도록 하고, 협력사업자승인 규정을 협력사업승인규정에 흡수하여 승인절차를 1원화하는 등,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

< 자료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2조(정의)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교역”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간의 물품, 기술,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이라고 한다)의 반출·반입을 말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와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횟수의 제한 없이 북한 또는 남한을 방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수시방문증명서”라 한다)로 나눈다. ③수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북한 또는 남한을 최초 방문한 이후 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 내에 북한 또는 남한을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남·북한 왕래)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이하“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③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방문증명서상의 방문기간 동안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할 수 있고, 방문기간 만료 후 재방문하기 위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방문신청을 하여 새로운 방문기간을 부여받아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방문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교역당사자 등) ①교역(북한과 제3국 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대외무역법」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②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교역당사자가 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생략)

③<신설>

⑤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자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신청을 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방문증명서의 발급 또는 새로운 방문기간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방문증명서 발급 또는 방문기간 부여 후 위와 같은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발급결정 또는 방문기간 부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현행 ⑤항과 같음)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와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남·북한 주민접촉) ①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 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민족내부거래)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본다.

제13조(반출·반입의 승인) ①물품의 반출·반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반출·반입 승인을 얻은 자(이하 “교역당사자”라고 한다)가 승인을 얻은 사항 중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현행과 같음)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교역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교역에 관한 협정의 준수나 물품의 반출·반입의 질서유지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사업자의 승인 등)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현행과 같음)

1.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반출·반입 승인을 얻은 경우
4.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위반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역당사자에게 반출·반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의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반출·반입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현행 제2항과 같음)

제16조 <삭제>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사업마다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협력사업 승인을 얻은 자(이하 “협력사업자”라 한다)가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현행과 같음)
- ②(현행과 같음)
- ③통일부장관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투자액·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 승인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협력사업이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자에게 그가 시행하는 협력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시행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4.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능력이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에 부합될 것
5. (현행과 같음)
6.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 ②(현행과 같음)
- ③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 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은 사업 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4.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내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④통일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절차 및 청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등) ①통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의 내용·조건 또는 사업승인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또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생략)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4. 협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교란할 우려가 있거나,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명하는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현행 제2항과 같음)

제19조(결제업무의 취급기관) ①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제업무를 취급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수송장비의 운행) ①(현행과 같음)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승인을 얻은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③(현행 ②항과 같음)

제24조의2 (지원협회의 설립) ①정부는 정부와 북한당국간에 합의한 협력사업을 이행하고,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지원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지원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지원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기획
3. 정부와 북한당국간의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정부위탁업무
4. 제3호의 수탁업무 범위 내에서의 실무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대북협의
5. 민간의 남북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기술 지원·정보제공 및 자문

<신설> <신설> 제28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생략) 4.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생략) 제30조(북한주민의제) 이 법(제9조제1항 및 제11조를 제외한다)의 적용에 있어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이를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	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⑤지원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협회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지원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의3(벌칙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5조제3항제2호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통일부장관이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 이외에 북한을 방문한 자 2.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재외국민 3. (현행과 같음) 4.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현행과 같음) 제30조 <삭제>
--	--

□ 『인도적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한규정』 일부 개정(통일부, 통일부 고시 제2007-5호, 2007. 3. 14)

- 최근 대북지원사업자 증가(66단체), 북한의 열악한 상황 지속, 남북관계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개정
 - 법인이나 단체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식을 표준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원액을 사용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등 지정 해제 요건을 구체화
 - 대북지원사업 지원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70% 이내로 하되, 정책적 사업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
 - 전체사업비의 100분의 8 범위 내에서 대북지원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사업관리비와 분배투명성 경비를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기금지원 방침 결정 후 지원액의 일부를 선지급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사업은 주요 항목의 30% 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전용 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
 - 대북지원사업자가 아닌 자가 물품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대한적십자가 반출 신청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대북지원사업자도 가능하도록 규정

□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통일부, 2007. 3. 22)

-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3월 22일 개최되어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안)』등 7건의 안건 심의·의결
-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남북협력기금 지원과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
- 『대북비료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 비료지원이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및 식량사정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하기로 결정
 - 국내 수급사정과 예년 지원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복비 24만 1천 톤, 요소 2만 3천 톤, 유안 3만 6천 톤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북측의 시비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3.27일경 첫출항 예정)
 - 비료 30만 톤 구입비 1,004억 원, 수송비와 부대경비 등 76억 원, 총 1,080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할 계획

- 「2007년 대북지원 민간단체 정책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의결
 - 정부는 금년도부터 대북지원 사업 중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정책적 사업을 선정, 일관성 있게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
 - 금년도에는 전문가와 대북지원단체 의견 수렴을 통해 ‘봄철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10억원),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10억원), ‘산림녹화 시범사업’(13억원) 등 3개 사업에 대해 총 33억원의 기금을 지원
- 「WHO를 통한 북한 홍역백신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지난 2월 15일 북한 당국은 WHO측에 약 3,000여명의 홍역 환자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였으며, 10개 도 30개 군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려오면서 지원을 요청
 - 2월 28일 WHO측이 우리 정부에 홍역 백신 긴급지원을 요청해 오며 따라 홍역백신, 비타민, 주사기 등 구입비용으로 105만 달러를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함.
- 「WHO를 통한 대북 말라리아 방역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정부는 말라리아 재퇴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부터 WHO를 통해 북한 말라리아 방역 사업을 진행('01년 46만불, '02년 59만불, '03년 66만불, '04년 67만불, '05년 81만불, '06년 100만불)
 - 금년도도 말라리아 방지 및 관리를 위한 약품, 살충제 및 모기장, 장비 및 기자재 등 총 138만 달러를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 「북한 구제역 방역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북측은 지난 3월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에게 보낸 전통문을 통해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
 - 정부는 구제역 확산 및 국내 유입방지 차원에서 구제역 방역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방역 관련 약품 등 33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 북한 구제역 방역 지원(통일부, 2007. 3. 23, 3. 26, 3. 30)
 - 북한 구제역 방역 지원을 위한 긴급지원물자인 소독약 등 약품 6종, 고압분무기 등 장비 5종 등 총 11종의 방역지원물자가 3월 26일 출항하는 인천-남포간 정기선(트레이드 포춘)편으로 수송될 예정
 - 이번에 전달되는 물자는 지난 3월 14일 북측의 요청으로 긴급하게 구입하여 지원되

는 것이며, 나머지 지원물자는 3월 30일 개성에서 진행될 북한구제역 방역지원을 위한 남북실무접촉을 통해 확정·제공할 계획

○ 3월 30일 개성에서 구제역 방역 실무접촉 진행

- 이번 접촉에서 쌍방은 3월 28일 1차로 제공한 11종의 약품·장비 외에 북측이 요청한 26종(현미경, 멸균기 등)의 물자와 추가 방역 관련 소모품 5종(방역복, 장화 등)을 제공하기로 합의
- 장비 전달시 방역전문가가 방북하여 기술지원 및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데 대해 견해를 같이함.
- 구체적인 전달 시기 및 현장 방문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판문점을 통해 협의하기로 결정
- 이번 접촉에 우리측은 농림부 김창섭 가축방역과장이, 북측은 리경군 농업성 수의 방역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

□ 2007년 1/4분기 경협사업 지원동향(통일부, 2007. 4. 9)

○ 사업협의 건수 및 협의목적 방문인원 대폭 증가

- 2007년 1/4분기 중 경협사무소에서 진행된 사업협의를 총 87회로 전년 동기 60회 대비 45% 증가
- 기간 중 사업협의 누계 500회 돌파('05년 10월 사무소 개소 후 '07년 1/4분기까지 총 576회의 사업협의 진행)

사업협의목적 남북기업인 사무소 방문 현황

기 간		협의회수	방 문 인 원		
			남 측	북 측	합 계
2005년	11~12월	43	160	111	271
2006년	1/4분기	60	221	156	377
	2/4분기	168	455	336	791
	3/4분기	99	351	325	676
	4/4분기	119	369	332	701
	소 계	446	1,396	1,149	2,545
2007년	1/4분기	87	289	283	572
합 계		576	1,845	1,543	3,388

- 1/4분기 중 북한과 사업협의를 위해 경협사무소를 방문한 인원은 572명으로 전년 동기(377명) 대비 52% 증가(남측 289명, 북측 283명 방문)
- 사무소 개소 후 '07년 1/4분기까지 총 3,388명 방문(남측 1,845명, 북측 1,543명)

○ 경협사무소 문건중개 기능 이용 기업 증가

- 2007년 1/4분기 중 경협사무소를 통해 남북기업에 중개된 문건은 총 1,412건으로 전년 동기 143건 대비 9.9배 증가, 월평균 470건의 문건 중개
- 경협사무소는 사무소 개소 후 2007년 1/4분기까지 총 4,633건의 문건을 남북기업에 중개
- 2007년 1/4분기 중 경협사무소의 문건 중개 기능을 이용한 남측 기업은 총 177개 기업으로 전년 동기 46개 기업 대비 3.8배 증가하였으며, 월 100개 이상의 기업이 경협사무소의 문건중개 기능을 이용
- 사무소 개소 후 2007년 1/4분기까지 남측의 총 315개 기업(중복제외)이 문건중개 기능을 이용

○ 남북 실무인력 간 기술협의를 증가 및 분야의 다양화

- 남북간 기술협의를 12차례 개최되어 전년 동기 4차례 대비 3배 증가
- 남북 실무인력 간 기술협의를 2006년 1월 「(주)폴리통상↔모란봉피복공장」 간 첫 기술협의를 진행한 이래 2007년 1/4분기까지 총 62차례 진행

○ 올해 1/4분기 중에는 농림수산 분야 기술협의를 처음으로 진행

- 개풍군 양묘장 건설을 진행 중인 남측 제일유통의 임업전문가가 북측 양묘장 실무인력에 대해 접목기술을 양묘장 현장에서 전수

□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농산물 교역설명회 개최(통일부, 2007. 4. 11)

○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경협사무소)는 남북간 농산물 교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산물 교역설명회를 4월 11일 개성에서 개최

- 이 교역설명회에서는 (주)부영종합무역 등 남측의 35개 교역업체 관계자 47명을 초청, 북한 개선총회사 총사장이 농산물 교역과 관련한 북측 입장을 설명

* 제1차 농산물 교역설명회는 2006. 6. 15일 개최

□ 제1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결과(통일부, 2007. 4. 13)

- 제18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4월 13일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
-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중재사무처리기관 운영을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증대로 남북 사업자간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이 절실
 - 무역협회의 최근 대북교역업체 설문조사 결과, 경험사업자들은 남북교역 최대 애로 사항으로 클레임 해결수단 부재(17.7%)를 지적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03.8.20)와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합의서」('05.8.1) 발효와 관련하여 정부는 우리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을 먼저 발족시켜 남북상사중재위원회 본격 가동에 대비
 - * “남과 북은 남북상사중재위원회의 자기측 중재사무처리기관을 각기 지정한다”(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10조 1항)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대한상사중재원을 중재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하고,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신설되는 남북상사중재 업무 전담부서의 운영비 등으로 4.4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
- 2007년도 통일농수산사업단 남북공동영농사업 경비 지원
 - 통일농수산사업단은 북한 내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한 「공동영농사업」을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음.
 - * 금강산지역은 2005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개성지역은 북측의 요청에 따라 금년도에 신규 추진
 - 본 사업은 벼농사 및 밭작물 생산성 증대 사업, 농업기술 개선사업, 양돈기반 조성사업, 시설채소 기반조성 사업 등으로 구성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금년도 공동영농사업을 위해 금강산지역(2,500ha, 3개년 계획의 3차년도 사업) 14.1억원, 개성지역(500ha, 3개년계획의 1차년도 사업) 15.4억원 등 총 29.5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
 - * 금강산지역은 2005년도에 20억원, 2006년도에 21.6억원 지원
- 대북지원 민간단체 개별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 금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기금지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2월 5일 대북지원 민간

- 단체를 대상으로 기금지원사업 공고를 하여 최종 46개 단체 48개 대북지원사업에 237억원 규모의 지원요청을 받음.
- 각 분야 민간 전문가, 관계기관, 민간단체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42개 민간단체의 44개 대북지원사업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상정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상기 42개 단체의 44개 사업에 대하여 117억원(민간단체 지원 115.4억원, 기술지원단 운영비 1.6억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의결(2006년에는 45단체 47개 개별사업에 109억원 지원)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결과(통일부, 2007. 4. 22)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가 4. 18 - 22 기간 평양에서 개최
 - 남북경제협력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열차시험운행 일정 등 합의사항을 담은 합의문(총 10항) 발표
 -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합의서」와 「식량차관 제공합의서」 체결

《 합의문 요지 》

1. 남북경협 확대발전을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 추진
2. 5.17 열차시험운행 실시, 열차시험운행 문제 협의를 위해 제13차 철도도로실무접촉 개최(4.27~28), 빠른 시일 내 철도·도로 개통 노력. 쌍방은 열차시험운행 이전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
3.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제공, 6월 중 개발대상지역 현지 공동조사 실시. 이를 위해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 개최(5.2~4)
4. 개성공단 사업의 활성화를 협의하기 위해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개최(5월중)
5. 제3국 공동 진출 실무접촉 개최(6월중)
6. 임진강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이행(5월초)
7.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
8. 자연재해공동방지, 과학기술 실무접촉(이상 6월중 개최), 수산협력실무접촉, 상사중재위, 출입체류공동위(이상 문서교환방식으로 일정 확정)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적인 건지에서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제공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7월 중 남측지역에서 개최

< 주요 합의사항 >

○ 투자 및 협력에 필요한 조치 추진

- 남북 경협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통행·통신·통관 등 경협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을 감안,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열차시험운행 실시, 빠른 시일내에 철도·도로 개통

-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 실시하며, 열차시험운행 실시 이전에 남북은 「군사적 보장 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
-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실무적 준비를 위해 4.27~28 개성에서 제13차 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을 개최
- 빠른 시일 내에 철도·도로개통에 협력하기로 합의, 철도의 정상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6월중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착수, 균형적으로 추진

- 남북은 열차시험운행 미실시로 지연되었던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을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
- 6월 중 경공업 원자재 제공을 개시하는 등 경공업·지하자원개발 협력에 착수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5.2~4 개성에서 개최
-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대한 초기 단계 추진 일정에 합의, 경공업 협력과 지하자원개발의 균형적인 추진여건 마련(6월 중 북측 현지공동조사 실시에 합의)
- *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으나 발효가 유보되었던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 수정

○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현안문제 협의 해결

- 통행·통신·통관,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현안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하고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로 합의
- 우리측은 통행·통신, 노동력 공급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북측은 근로자 숙소 및 편의시설 확충 문제를 제기하여,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을 5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함.
- * 현재 개성공단 통신용량은 303회선에 불과, 향후 입주기업들의 전화 공급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
- * 1단계 입주기업 본격 가동시(200~300개 예상) 북측근로자 7만~10만여 명이 필요하나, 개성인근 지역 공급능력은 최대 3만~4만 명으로 추정

○ 제3국 공동 진출 협의

-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합의한 바 있는 자원개발 분야 제3국 공동 진출을 협의하기로 합의
- * 북측은 기본발언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원유, 천연가스, 석탄, 목재 등 자원개발 분야 공동 진출 제의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이행 본격화

- 제1차 임진강수해방지 실무접촉(2006. 6)시 논의된 합의서안을 5월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채택하여 이행하기로 합의
- 홍수예보시설 설치, 산림복구, 우리측 인원 북측지역 방문보장 문제 등

○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군사보장이 취해지는데 따라 협의 추진

- 제18차 장관급회담과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합의했던 한강하구 골재 채취 사업 관련 추진의지를 재확인
-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통해 사업추진 계획 및 일정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

○ 제반 협력사업의 조속한 추진

- 지난 경추위 제12차 회의에서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행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한 실무접촉 일정 합의
- * 자연재해 공동방지, 과학기술협력(이상 6월 중), 수산협력(문서교환방식으로 일정 확정)
- 남북경협 현안을 협의·해결할 남북공동기구 구성 및 가동 추진
- *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 쌀 차관 제공

- 40만 톤의 쌀을 5월 하순부터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식량차관 제공합의서」 채택
- * 북측의 「2.13 합의」에 대한 성실한 이행 여부에 따라 쌀 제공 시기와 속도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10만 톤당 5회(동해안 3곳, 서해안 2곳)로 분배 현장을 확인하는 등 분배투명성을 강화하여 보다 진전된 합의 도출
- * 2005년 10만 톤당 4회(동해안 2곳, 서해안 2곳)

< 자료 >

향후 경제분야 남북관계 일정

내 용	시 기	장 소
제13차 철도도로실무접촉	4.27~28	개성
경공업·지하자원협력 실무협의	5.2~4	개성
임진강 수해방지 합의서 채택	5월 초	문서교환
제3차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5월	개성
열차시험운행	5.17	경의선, 동해선
쌀 차관 제공 개시	5월 하순	-
제1차 제3국 공동진출 실무접촉	6월	개성
제1차 자연재해공동방지 실무접촉	6월	개성
제1차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	6월	개성
경공업 원자재 제공 개시	6월	-
북측 지하자원 개발대상지역 현지공동조사	6월	미정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	7월	남측 지역

주 1) 상사중재위원회, 출입·체류공동위원회, 수산협력실무접촉은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일정 확정

2) 한강하구 골재채취 실무접촉은 군사보장 조치가 마련되는데 따라 빠른 시일내에 개최

< 자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남과 북은 2007년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쌍방은 남북경제협력사업을 민족공동의 번영과 이익에 맞게 보다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남북경제협력사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투자와 협력에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철도연결구간에서의 열차시험운행을 5월 17일에 진행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개성에서 진행하며,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가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쌍방은 열차시험운동 이전에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채택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사업시행 시기 등 일부 조항들을 수정·보충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수정·보충 합의서’를 채택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측은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유상으로 제공하고, 북측은 지하자원개발 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6월 중 개발대상지역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 및 필요한 자료보장 등에 협력하기로 한다.
쌍방은 이를 위하여 5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성에서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협력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하여 통행·통관·통신 문제, 북측 노동력의 공급과 숙소 및 편의시설 건설, 2단계 개발 준비사업 등에 대해 5월 중 개성에서 제3차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한다.
5. 남과 북은 제3국 공동진출과 관련한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개최하여 구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한다.
6.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방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5월 초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북측은 합의서 이행에 따르는 설비·자재 제공과 설비 설치·이용 등을 위한 남측 인도인원들의 현장방문과 기술인원들의 기술지원에 협력하기로 한다.
7. 남과 북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문제를 군사적 보장조치가 취해지는데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8.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하였던 자연재해방지 실무접촉과 과학기술협력 실무접촉을 6월 중 개성에서 진행하며, 수산협력 실무접촉과 상사중재위원회, 개성·금강산 출입·체류 공동위원회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한다.
9.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
1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4차 회의는 2007년 7월 중 남측지역에서 진행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협의 확정한다.

2007년 4월 22일

남 북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 정 경 제 부 차 관 진 동 수

북 남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북 측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 동 찬

< 자료 >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남과 북은 동포애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측은 북측에 남측에서 생산된 쌀 15만 톤과 외국산 쌀 25만 톤을 차관으로 제공한다.
2.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을 톤당 미화 삼백팔십달러(US\$380)로 계산하고, 남측에서 생산된 쌀의 북측지역까지의 수송에 관련된 비용은 남측이 부담하며, 제공되는 쌀(40만 톤)의 하역·항만비용과 채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3.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한다.
4. 이 합의서에 따른 차관공여 및 상환은 남측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측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한다.
5. 제공되는 식량의 인도·인수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식량 인도·인수 절차」 및 「육로수송 절차와 방법」에 따르며 이의 이행을 위해 남측은 식량 인도회사를, 북측은 식량 인수회사를 각각 지정하여 상대방에 통보한다.
6. 북측은 식량차관 제공이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7. 남과 북은 쌀 수송시기 보장, 쌀 분배현장 방문 등 식량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8. 이 합의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남북 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9.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7년 4월 22일

남 북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남 측 위 원 장
대 한 민 국
재정경제부 차 관 진 동 수

북 남 경 제 협 력 추 진 위 원 회
북 측 위 원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주동찬

< 첨부 1 >

식량 인도·인수 절차

1. 쌀의 수량 및 품질

- ① 남측이 제공하는 쌀은 남측에서 생산된 쌀 15만 톤과 외국산 쌀 25만 톤으로 한다.
- ② 제공되는 쌀 중 남측에서 생산된 쌀은 습도 15.0%, 파쇄율 5.0%, 잡질 0.1%이하로 검역상 중요한 병·해충 및 유독성 박테리아나 물질이 없어야 하며, 외국산 쌀은 백미 US.No.3수준 이상으로 한다.

2. 포 장

- ① 쌀은 40kg 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쌀’, ‘40kg’, ‘대한민국’의 표식을 한다.
- ② 선적과 하역시 파손되는 포대의 보충을 위하여 3%에 해당하는 빈 포대를 제공한다.

3. 수송일정

남측은 2007년 5월 하순 첫 항차를 출항시킨다.

4. 수송조건

- ① 남측은 해로의 경우 남포항·해주항·송림항·홍남항·원산항·청진항 중 북측이 통보하는 항구로 수송하며, 육로의 경우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이용하여 수송한다.
- ② 남측의 편의에 따라 남측 선박과 북측 선박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송 선박(제3국 선박 포함)과 차량의 북측항구 입·출항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 ③ 남측의 식량 인도회사는 수송 선박·차량 제원, 선적수량, 수송인원 명단, 출발예정일 등을 매 출발 5일 전까지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북측에 통보하고, 북측 쌀 인수회사는 매 출발 3일 전까지 하역지와 하역항의 준비상태를 남북직통전화 등을 통해 남측에 통보한다. 다만 첫 수송의 경우 사전통보 기한은 예외로 한다.
- ④ 쌍방은 지정된 식량 인도회사와 식량 인수회사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상대측에 통보하며, 이 때 북측은 쌀의 품질과 관련한 검역기준(학명을 포함한 검역 또는 비검역병해충 목록)을 남측에 통보한다.
- ⑤ 북측은 용선계약 체결에 필요한 하역항의 홀수선, 하역능력, 작업시간 등 하역관련 자료를 차관제공합의서 체결 후 7일 이내에 남측 쌀 인도회사에 제공한다.
- ⑥ 북측은 신속한 하역을 보장하며, 북측 하역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역비용, 항만비용, 체선(차)료 등은 북측이 부담한다.

⑦ 그 밖의 수송에 관한 사항은 관례와 국제화물해상운송규약에 따른다.

5. 전달방법

- ① 제공되는 쌀은 선상 및 차상 인도·인수 방식으로 하며, 북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 인수인원은 선적서류 등을 확인한 후 식량인수확인서(부록)를 남측 인도인원에게 제공한다.
- ② 남측 인도인원은 3~4명으로 하고,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 ③ 북측은 남측 인도인원이 인도·인수, 하역 등 장면을 사진 및 녹화 촬영하도록 허용한다.
- ④ 인도·인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남측은 기록, 촬영, 시료채취 등 필요한 조사를 하며, 부족수량과 부패물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한 수량을 보충하며 북측은 해당 물량의 보존 및 추가 조사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6. 수송서류

남측의 식량 인도회사는 매 수송시마다 다음의 서류를 북측 식량 인수회사에 보낸다.

- ① 선하증권
- ② 상업송장
- ③ 포장명세서
- ④ 품질 및 수량증명서
- ⑤ 식물검사합격증명서
- ⑥ 원산지증명서

7. 검사조건

- ① 제공되는 쌀의 품질과 수량은 출발지에서 공인검사기관이 발행한 품질 및 수량증명서로 확인한다.
- ② 남측은 제공되는 쌀의 품질 및 정량보장을 위해 노력한다.

8. 분배결과의 통보 등

- ① 북측은 식량의 구체적 분배내역(지역, 대상, 수량 등 포함)을 10만 톤 단위를 기준으로 인수일 30일 이내에 문건으로 남측에 통보한다.
- ② 북측은 매 10만 톤 인수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남측 인원들이 식량 분배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며, 분배현장방문 장소는 동해안 3곳·서해안 2곳으로 하고, 이때 분배상황 확인, 사진 및 녹화촬영을 허용한다.
- ③ 분배현장 방문을 위한 남측 인원은 5명으로 하며, 남측 당국의 위임장을 소지한다.

9. 안전보장 및 편의제공

- ① 북측은 북측 지역에 들어오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과 선박·차량의 안전운행, 신속한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② 북측은 남측 인원의 북측지역 체류시 전신·전화 등 통신을 보장하도록 한다. 남측 인원이 사용한 국제전화요금은 남측이 부담한다.
- ③ 북측은 남측인원의 북측지역 체류기간 중 육지에서의 숙식·차량·안내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첨부 2 >

육로수송 절차와 방법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육로수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제공한다.

1. 육로로 수송하는 식량은 남측에서 생산된 쌀 5만 톤으로 한다.
2. 수송경로는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연결도로를 통하여 주 4회 수송하며, 개성지역에 3만 톤과 고성지역에 2만 톤을 수송하되, 하역지는 북측이 통보하는 장소로 한다.
3. 1일 수송량은 1천 톤 이상으로 하되, 수송량 및 수송횟수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수송차량은 25톤 적재 화물차로 하며, 매회 수송시마다 인도인원 차량 1대와 정비차량 1대(정비기사 1명)가 동행한다.
5. 북측은 수송차량의 통행 및 식량의 하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력하며, 남측 인도인원의 하역과정 확인에 협조한다.
6. 남과 북은 상호 합의하여 식량 수송과 안전보장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수정·보충할 수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¹⁾

표 1.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실적, 1995.9~2007.4

구 분	목 표 (만달러)	실 적 ¹⁾ (만달러)	실적율 (%)	국가별 지원액 (만 달러)
1차 '95.9~'96.6	2,032	927	45.6	미국 222.5, 일본 50, EU 38 등
2차 '96.7~'97.3	4,364	3,439	78.8	EU 860, 미국 717, 일본 600, 한국 335 등
3차 '97.4~'12	18,439	15,838	85.9	미국 4,537, EU 2,752, 일본 2,700, 한국 2,533 등
4차 '98.1~'12	38,324	21,587	56.3	미국 17,185, 한국 1,087, EU 953, 덴마크 357, 캐나다 354, 노르웨이 304, 스웨덴 279, 호주 130 등
5차 '99.1~'12	29,208	18,989	65.0	미국 16,070, EU 798, 스웨덴 383, 캐나다 340, 노르웨이 232, 호주 228, 덴마크 195, 핀란드 72 등
6차 '00.1~'12	31,376	15,310	48.8	일본 9,566, 미국 2,923, 호주 666, EU 478, 스웨덴 280, 노르웨이 229, 캐나다 171, 덴마크 151, 핀란드 113 등
7차 '01.1~'12	38,398	24,797	63.5	일본 10,489, 미국 10,270, 한국 1,579, 이탈리아 708, 독일 291, 호주 289, 스웨덴 244, 스위스 222, 노르웨이 189, 캐나다 170, 덴마크 151 등
8차 '02.1~'12	24,684	22,001	89.1	미국 6,349, 한국 1,624, EU 947, 호주 339, 캐나다 245, 스웨덴 228, 영국 171, 노르웨이 144, 독일 135, 덴마크 101, 핀란드 70, 룩셈부르크 56 등
9차 '03.1~'12	22,937	13,310	58.0	미국 3,152, 한국 1,683, EU 1,602, 러시아 1,000, 이탈리아 652, 캐나다 437, 스웨덴 407, 독일 323, 노르웨이 284, 네덜란드 220, 호주 176, 덴마크 154, 핀란드 125 등
10차 '04.1~'12	20,880	15,158	72.6	일본 4,660, 한국 2,509, 미국 1,906, EU 1,557, 스웨덴 910, 호주 797, 캐나다 477, 독일 426, 이탈리아 403, 노르웨이 377, 아일랜드 304, 영국 182, 핀란드 119, 덴마크 116, 뉴질랜드 106, 룩셈부르크 81 등
'05.1~'12 ²⁾	-	4,523	-	유럽연합 1,322, 독일 777, 스웨덴 549, 이집트 388, 노르웨이 324, 핀란드 291, 네덜란드 132, 캐나다 132, 한국 107 등
'06.1~'12 ²⁾	-	1,915	-	한국 728, 스웨덴 498, 노르웨이 2,21, 호주 78, 아일랜드 70, 덴마크 69, 네덜란드 65, 독일 63, 핀란드 59 등
'07.1~4	-	1,225	-	유엔긴급지원자금 810, 스웨덴 269, 독일 70, 핀란드 67 등
총 계	-	159,020	-	

주 : 1)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OCHA)이 발표하는 Financial Tracking Database 자료에 나타난 실적이며 유엔합동호소를 통해 지원하였거나 지원을 약속한 금액을 모두 포함함.

2) 2005년부터 유엔합동호소에 의한 통합지원은 폐지되고 개별 지원으로 전환됨.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7)

표 2. 2007년도 지원창구별 지원 실적 (2007.1.1~4.30)

지원창구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액(달러)
CONCERN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827,883
			소계 827,883
FAO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700,000
			소계 700,000
독일적십자사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695,364
			소계 695,364
Handicap International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551,922
			소계 551,922
국제적십자연맹	보건, 식수 및 위생	핀란드	666,667
			소계 666,667
Save the Children -영국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827,883
			소계 827,883
스웨덴 적십자사	백신 접종 지원	스웨덴	70,561
			소계 70,561
Triangle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413,942
			소계 413,942
UNICEF	모성 및 어린이 보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1,700,000
	유엔긴급지원자금 할당		3,100,000
			소계 4,800,000
유엔인구기금	산모 및 신생아 긴급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300,000
			소계 300,000
WFP	취로사업지원	터키	100,000
	취약계층 구호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2,298,577
			소계 2,398,577
합 계			12,252,799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7)

표 3. 2007년도 분야별 지원 실적 (2007.1.1~4.30)

분 야	지원내역	지원국	지원창구	지원액(달러)
농 업	2007년 여름작물 생산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FAO	700,000
				소계 700,000
식 량	취로사업 지원	터키	WFP	100,000
	취약계층 구호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WFP	2,298,577
				소계 2,398,577
보 건	의약품 및 의료장비 지원	독일	독일적십자사	695,364
	유엔긴급지원자금 할당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3,100,000
	산모 및 신생아 긴급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유엔인구기금	300,000
	백신 접종 지원	스웨덴	스웨덴적십자	70,561
	모성 및 어린이 보건 지원	유엔긴급지원자금	UNICEF	1,700,000
				소계 5,865,925
다부문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CONCERN	827,883
	보건, 식수 및 위생	핀란드	국제적십자연맹	666,667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Triangle	413,942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SC-영국	827,883
	식량안보 및 보건 지원	스웨덴	Handicap Int.	551,922
				소계 3,288,297
합 계				12,252,799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7)

표 4. 2007년도 원조국별 지원 실적 (2007.1.1~4.30)

지원국	지원액(달러)
유엔긴급지원자금(CERF)	8,098,577
핀 란 드	666,667
독 일	695,364
스 웨 덴	2,692,191
터 키	100,000
합 계	12,252,799

자료 : <http://www.reliefweb.int> (UNOCHA, Financial Tracking Database, April 30, 2007)

2.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단체 동향

가. 유엔기구

□ 유엔개발계획, 대북 지원 사업 보류

- 유엔개발계획은 북한이 미국 등이 요청한 북한 내 유엔기구의 지원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 등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 자금 일부가 북한 정권에 의해 전용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 이사회는 유엔개발계획이 북한 내 사업을 추진할 때 경화를 직접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정권기구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며 사업의 초점을 좁혀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현재 유엔개발계획은 대북 지원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은 금년에 식품 관리, 종 다양성 등에 관한 인력 훈련을 포함하여 20 여개의 사업에 총 44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음.
 - 유엔개발계획의 대북 지원사업 규모는 2005년 100만 달러, 2006년 320만 달러였으며 공공용수, 환경, 농업, 경제 개발 등 20 여개의 분야에 지출하였음.
 - 애드 멜커트 유엔개발계획 부총재는 지난달 북한 정부나 지역의 물품 공급자에게 달러를 직접 지불하지 않고 북한 원화로 결제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 북한의 중앙은행에서 북한 원화와 교환하는데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에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지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북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

자료: <http://www.relief.int> (Reuters Foundation, UN Development Program suspends work in North Korea, Mar. 5, 2007)

<http://www.relief.int> (The Chosun Ilbo, UNDP suspends operations in North Korea, Mar. 5, 2007)

□ 유엔개발계획사업, 공식적으로 중단

- 평양에 있는 9명의 유엔개발계획 국제직원(8명은 UNDP, 1명은 UNDP 관리 직원) 중 상주대표를 포함한 7명의 직원은 2007년 3월 17일까지 북한을 떠날 예정임.
- 상주부대표와 운영과장 2명은 외부의 독립 감사를 지원하고 사업 보류 조치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당분간 북한에 남을 예정임.
- 22명의 현지 직원(16명은 사무직원이며 6명은 사업직원) 대부분은 2007년 3월 15일까지 유엔개발계획의 업무에서 손을 떼게 될 것이며 2명의 국제 직원이 평양에 머물 동안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4명의 현지 직원만을 남겨둘 계획임.

자료: <http://www.relief.int> (UNDP, DPRK update 12 Mar 2007, Mar 12, 2007)

□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국제수역사무국(OIE), 북한에 조사단 파견

- 북한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함.
- 북한 당국의 요청에 의해 FAO와 OIE(국제수역사무국)은 1960년 이후 북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구제역 발생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원을 파견함.
- 세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은 3월 17일 북한에 도착하여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구제역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며 구제역을 통제하기 위한 조언을 할 계획임.
- 북한에는 금년 초 평양과 가까운 룡곡의 한 농장에서 처음으로 구제역 증상이 발견된 이래 북한 당국은 인접 지역의 소와 돼지를 도살 처분하는 등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국적으로 가축의 이동을 통제해 왔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함.
- 구제역은 소, 양, 염소 등 발굽이 갈라진 동물에 발생하는 전염성이 강하고 가축에 치명적인 질병으로 축산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사람의 건강에는 위협을 주지 않음.

자료: <http://www.relief.int> (FAO, FAO and OIE send mission to North Korea, Mar. 15, 2007)

□ 세계식량계획의 2007년 지원 계획

- 세계식량계획은 2007년 중 전 세계 7,900만 명에게 46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할 계획임.

- 세계식량계획은 EMOP(긴급 구호지원), PRRO(장기 구호 및 복구지원), Special Operations(특별지원), Development Operations(개발지원) 등 네 가지 식량지원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량과 지원 금액 면에서 PRRO 비중이 가장 높음.
- 금년도 지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총 27억 6,680만 달러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자금은 8억 5,310만 달러로 30.8%에 불과함.

○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계획은 PRRO(장기 구호 및 복구지원)으로 분류되어 있는데(RRRO 10188.0 Recovery Assistance for Vulnerable Groups in the DPR Korea) 2007년 3월 22일 현재의 상황은 다음과 같음.

- PRRO 10188.0(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복구 지원) 계획은 2006.6.1~2008.5.31 동안 총 150,000톤의 곡물을 지원
- 2007년 식량지원 목표: 곡물 33,605톤, 두류 22,384톤, 식용유 1,657톤, 기타 9,247톤(총 4,780만 달러)
- 2007년 수혜자 수: 1,877,232명
- 총 프로젝트 부족액: 83,674,260달러
- 2007년 부족액: 44,385,170달러

자료: <http://www.relief.int> (WFP, WFP Operational Priorities - 22 Mar 2007, Mar. 22, 2007)
WFP. "Projected 2007 Needs for WFP Project and Operations Korea, DPR."

□ 북한 당국, 식량 부족량 100만 톤 시인

- 북한 당국은 식량 부족량이 100만 톤에 이른다는 것을 처음 시인하였다고 세계식량계획이 밝힘.
- 세계식량계획의 아시아지역사무소 토니 뱅버리 소장은 3월 22-27일 동안 자신이 북한을 방문하던 중 북한 당국은 그들 스스로 식량부족량이 100만 톤이라고 확인한 점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평가함.
- 세계식량계획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이 심각한 기근을 겪게 되면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해왔으나 2005년 말 북한 당국이 더 이상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받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2006년에는 대북 식량지원이 급격히 줄었음.
- 새로운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190만 명의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었지만 원조의 감소로 고작 700,000명에게만 지원 혜택이 돌아가고 있음.
- 2005년 말 북한 당국의 인도적 식량지원 거부 이후 북한 당국은 처음으로 세계식

량계획이 지원한 식량을 보관하고 있는 정부 창고를 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 하였음.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0년간의 대규모 대북 긴급식량지원계획을 접고 2006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총 15만 톤의 식량만을 지원하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의 모금액은 총 소요예산 1억 200만 달러의 20%에 불과한 실정임.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0년 간 400만 톤 이상(17억 달러 상당)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였음.
- 지금까지의 모금 내역은 러시아 500만 달러, 스위스 250만 달러, 다자 지원자금 180만 달러, 쿠바 170만 달러, 호주 120만 달러, 덴마크 883,000달러, 룩셈부르크 703,555 달러, 독일 658,761 달러, 아일랜드 636,943 달러, 이탈리아 51,928 달러임.

자료: <http://www.relief.int> (Reuters Foundation, North Korea facing 1 min tonne food shortage - WFP, Mar. 26, 2007)

<http://www.relief.int> (DAP, North Korea "losing ground" in fight against hunger, WFP says, Mar. 27, 2007)

<http://www.relief.int> (WFP, WFP concerned about food shortfall in DPRK: Seeks to increase aid, Mar. 28, 2007)

□ 북한, UNDP 직원 철수 요구

- 북한 당국은 현재 북한에 남아 있는 UNDP 직원 2명에 대한 철수를 요구하였으며 이들은 5월 3일 평양을 떠날 것이라고 유엔이 밝힘.
- UNDP는 대북 지원자금 전용 의혹이 제기된 후 북한이 UNDP 이사회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자 3월 1일 대북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였음.
- UNDP는 대북 사업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2명의 직원을 북한에 상주시킬 방침이었으나 북한이 이들 직원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임.
- UNDP는 외부 회계감사관을 통하여 UNDP의 대북 사업에 대한 기록을 정밀 검토하고 있음.

자료: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4/24>)

나. 개별국가 및 비정부기구

□ 한국, 대북 비료 지원 재개

- 한국은 향후 몇 주 이내 북한에 봄철 농사용 비료 지원을 재개할 계획임.
 - 만일 대북 비료 지원이 재개된다면 지난해 미사일 실험 이후 8개월 만에 비료 지원이 재개되는 것임.
 - 신언상 통일부 차관은 가능하다면 지원된 비료가 봄철 파종 적기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 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힘.
- 북한은 적십자사를 통해 30만 톤의 비료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음.
 - 한국은 통상 연간 50만 톤의 식량과 35만 톤의 비료를 북한에 지원하였음.

자료: *Reuters Foundation, South Korea to resume fertilizer aid to North Korea, Mar. 8, 2007.*

□ MCC, 북한 병원에 식량 지원

- 미국의 기독교 구호단체인 MCC는 거의 1년 만에 북한의 개성, 황해남북도에 위치한 아동 및 결핵 병원에 35톤가량의 식량을 지원함.
 - 이 중 30톤은 칠면조 캔이며, 4톤은 건조 수프이고, 0.5톤은 말린 사과임.
 - MCC는 이 밖에도 북한의 협력사업자와 추가 식품 지원 및 농업 지원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 MCC는 북한 당국이 2005년 12월부터 인도지원단체에 대해 강한 규제를 가함에 따라 지원을 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그 동안 북한의 병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지원을 하고 있는 미국의 구호단체인 CFK(Christian Friends of Korea)를 통해 식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MCC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캐나다 식품은행(Canadian Foodgrains Bank)과 함께 매년 4,500톤의 식품을 북한에 지원해왔음.
 - 현재 MCC와 캐나다 식품은행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대규모 대북 식량 지원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음.

자료: *http://www.relief.int (Mennonite Central Committee, MCC ships food to North Korea hospitals, Mar. 20, 2007)*

□ 한국, 북한의 수해 지원 재개

-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초기 조치를 취할 의사를 밝힌 이후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은 지난해 발생한 북한의 수해 피해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3월 28일부터 재개할 것으로 전해짐.
 - 이번에 재개되는 인도적 지원이 4월과 5월 중에 이루어지면 지난해 지원분을 포함한 총 지원 규모는 쌀 10,500톤, 시멘트 70,415톤, 트럭 50대, 담뇨 60,000장, 철근 1,800톤임.
 - 이와 함께 3월 27일부터는 비료 지원이 시작될 것임.
- 신언상 통일부차관은 3월 30일 남북한이 만나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하여 4억 원(426,440달러) 상당의 장비와 의약품 지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자료: <http://www.relief.int> (AFP, SKorea to resume aid shipment for NKorean flood victims, Mar. 22, 2007)

□ 남북경협위, 쌀 차관 제공 배경과 전망

- 4월 22일 끝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에서 “남측은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쌀 40만 톤을 차관방식으로 북측에 제공한다.”고 합의함.
-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한국은 국내산 쌀 15만 톤과 외국산 쌀 25만 톤을 차관으로 북한에 제공함.
 - 차관금액은 제공하는 쌀 가격은 톤당 380달러(US\$380)로 계산하고, 한국에서 생산된 쌀의 북한지역 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며, 제공되는 40만 톤의 하역 및 항만비용과 채선(차)료 등은 북한이 부담함.
 - 차관의 상환기간은 차관 제공 후 거치기간 10년을 포함하여 30년으로 하며, 이자율은 연 1.0%로 함.
 - 차관공여 및 상환은 한국의 한국수출입은행과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무역은행 사이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에 의함.
 - 한국과 북한은 쌀 수송시기 보장, 쌀 분배현장 방문 등 식량제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함.

- 식량차관 합의서에는 5월 하순에 첫 항차를 출항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5만 톤은 육로로, 나머지 35만 톤은 배편으로 수송됨.
- 육로수송 5만 톤 중 3만 톤은 개성지역에, 2만 톤은 강원도 고성지역에 수송함.
- 해상수송 35만 톤은 남포, 해주, 송림, 홍남, 원산, 청진 등 동서해 항구로 수송
- 이번에 체결된 톤당 단가는 380달러로 2005년의 300달러에 비해 27% 상승한 것이며 총 차관은 1억 5,200만 달러임.

자료: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7/04/22>)

통일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3차 회의 합의문, 2007. 4. 22.

통일부, 남북간 식량차관 제공에 관한 합의서, 2007. 4. 22.

농업자료

● 북한의 기상

북한의 기상

□ 기 온

- 작년 11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도 계속적으로 푸근한 날씨가 이어져 평년에 비해 다소 따뜻한 겨울을 보냈음.
 - 1월의 평균기온은 평년보다 약 3.3도 높았으며, 2월은 2.8도, 3월은 3.5도나 높은 온도를 보임. 올겨울의 따뜻한 날씨는 전국적으로 나타났음.
- 겨울에 이른 이른 봄의 따뜻한 날씨는 가을밀, 보리 등 겨울작물의 생육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여름철 병충해 발생이 높을 수 있음.

□ 강수량

- 겨울철 온도가 높았던데 비해 올해 1~3월의 강수량은 평년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1월의 전국 평균 강수량은 4.2mm로 평년의 15.4mm에 비해 11.2mm나 낮은 수준이었으며, 2월의 평균 강수량은 0mm로 2월 한 달 동안 비가 전혀 오지 않았음. 3월의 평균 강수량은 18.7mm로 평년의 26.7mm보다 8mm 적은 수준임.
- 작년 11~12월에 이어 올해 1~3월에도 전국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어 봄 가뭄이 예상됨. 특히 서부평야지역과 중부내륙지역에서 평년에 비해 매우 적은 강수량을 나타내고 있음.
- 북한지역의 평균기온은 평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수량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간 계속적으로 적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따라서 따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4월 이후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강수량을 보이지 않는다면 봄철 파종과 모내기, 겨울작물의 생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누적강수량, 1~3월

단위: mm

선봉	삼지연	청진	중강	혜산	강계	풍산
8.6 (36.2)	29.5 (73.3)	7.0 (48.4)	28.0 (29.6)	7.7 (30.5)	7.7 (35.2)	7.9 (31.7)
김책	수풍	장진	신의주	구성	희천	함흥
14.8 (52.3)	12.6 (46.1)	12.2 (44.5)	21.2 (36.3)	16.0 (51.7)	19.1 (47.8)	29.6 (53.9)
신포	안주	양덕	원산	평양	남포	장전
19.0 (61.1)	27.1 (61.1)	46.6 (53.6)	78.1 (118.4)	36.5 (51.4)	18.4 (52.5)	45.0 (156.0)
사리원	신계	용연	해주	개성	평강	
18.0 (47.8)	28.0 (70.5)	14.2 (49.8)	12.4 (53.4)	19.2 (58.1)	34.2 (74.6)	

* ()는 평년 누적강수량을 나타냄.

□ 북한 주요지역의 월평균기온 및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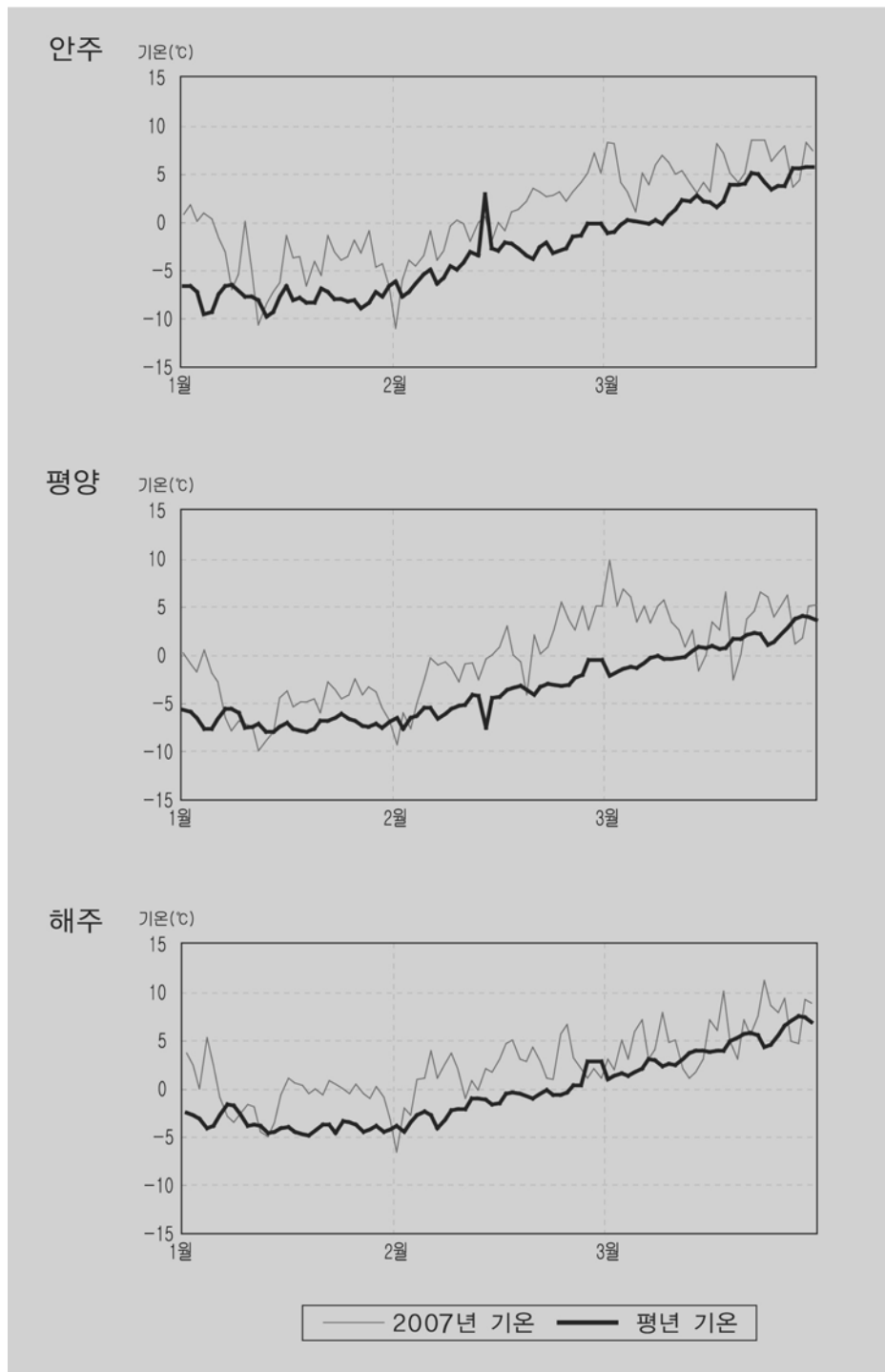
단위: °C(기온), mm(강수량)

구 분		안주	평양	해주	청진	함흥	원산
1월	기 온	-3.8 (-7.8)	-3.6 (-6.2)	-0.6 (-3.7)	-1.7 (-5.7)	-0.8 (-4.4)	0.8 (-2.5)
	강수량	0.1 (12.7)	0.0 (10.9)	0.4 (11.7)	0.0 (12.0)	13.0 (13.9)	32.1 (39.3)
2월	기 온	-3.8 (-3.8)	1.7 (-3.3)	2.7 (-1.5)	1.1 (-3.9)	1.0 (-2.3)	3.9 (-0.9)
	강수량	0.0 (12.3)	0.0 (11.6)	0.0 (13.8)	0.0 (15.7)	0.1 (15.0)	0.0 (36.0)
3월	기 온	7.0 (2.3)	6.9 (3.0)	7.0 (4.0)	2.7 (1.1)	5.7 (2.9)	7.4 (3.8)
	강수량	27.0 (36.1)	36.5 (28.9)	12.0 (27.9)	7.0 (20.7)	16.5 (25.0)	46.0 (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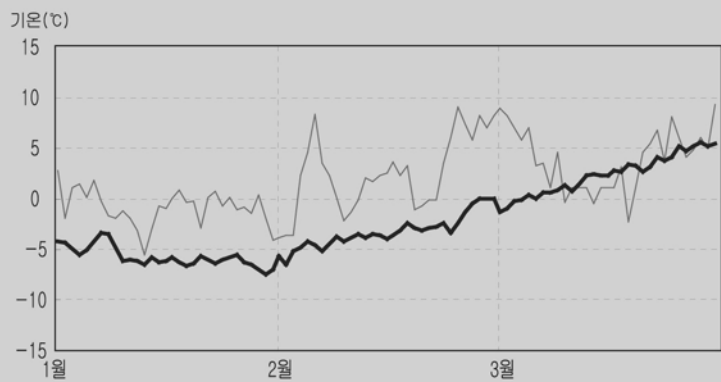
* ()는 평년 평균기온 및 강수량을 나타냄.

27개 기상관측지역의 평년 기후값 가운데 선봉, 청진, 중강, 혜산, 강계, 신의주, 함흥, 원산, 평양, 사리원, 해주, 개성 등 13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73~1994년이며, 삼지연, 풍산, 수풍, 장진, 구성, 희천, 신포, 안주, 양덕, 남포, 장전, 신계, 용연, 평강 등 14개 지역의 통계기간은 1981~1994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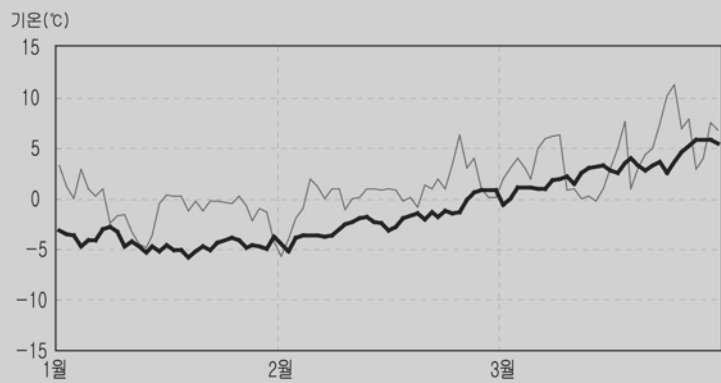
□ 월 평균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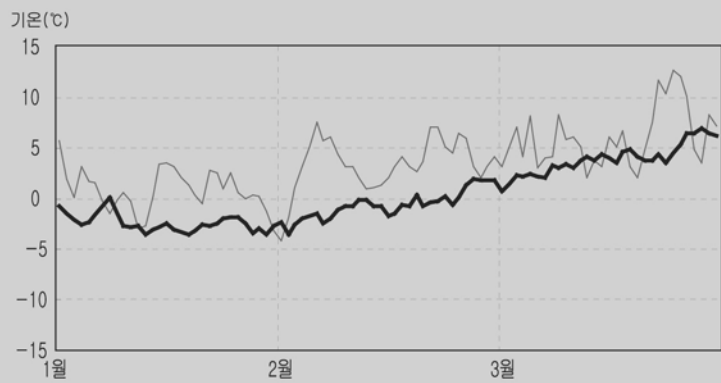
청진



함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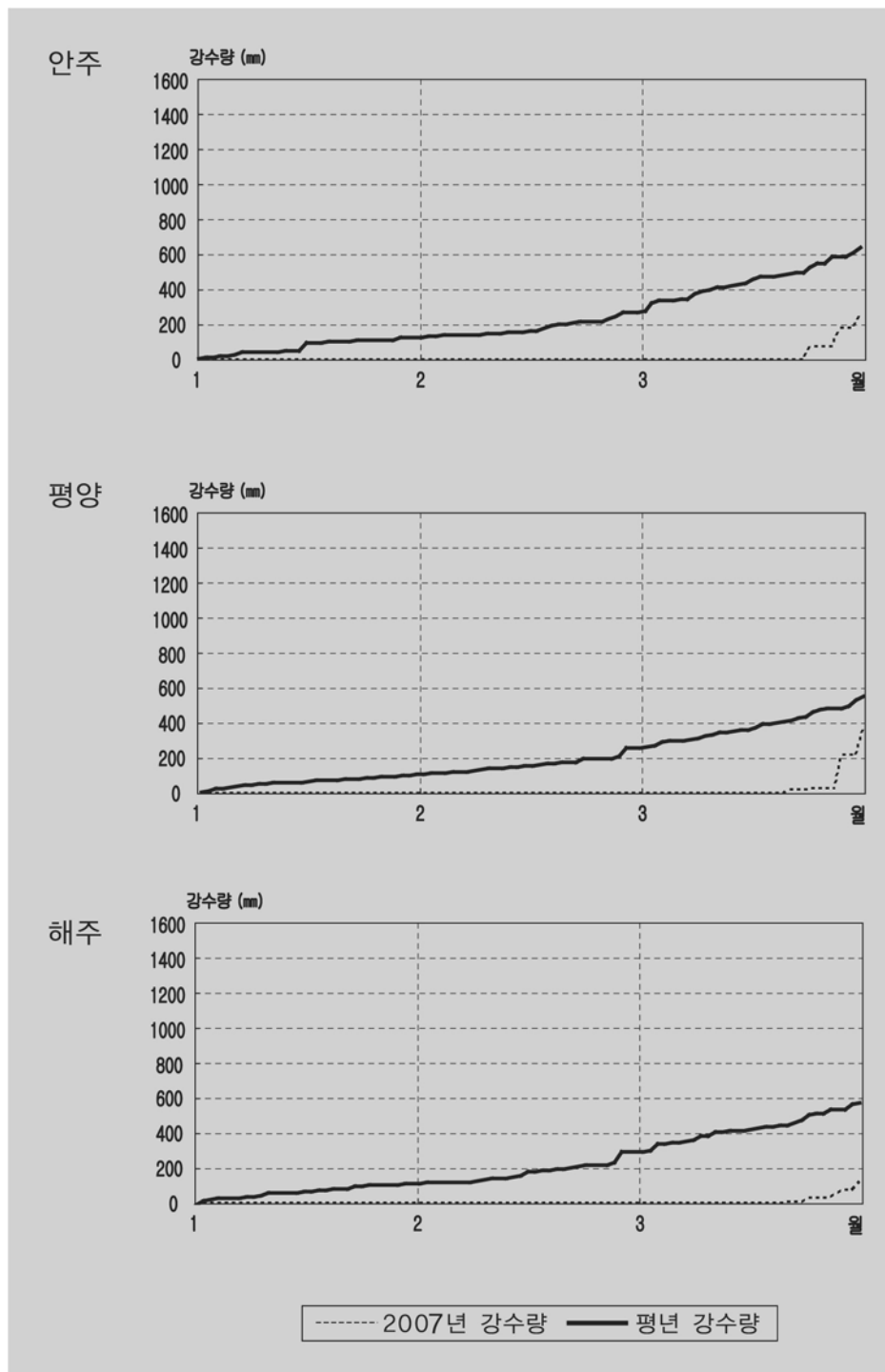


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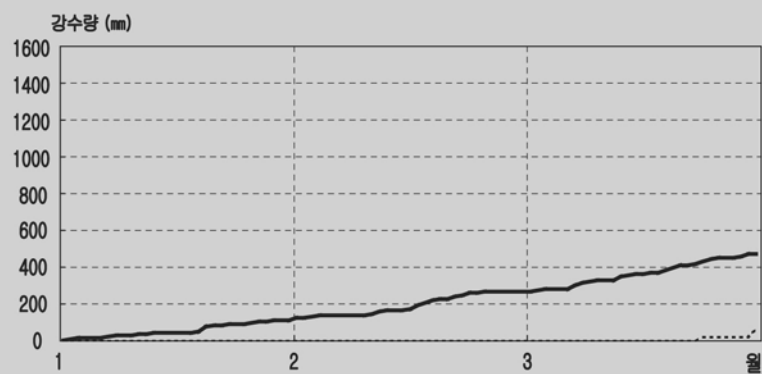


— 2007년 기온 — 평년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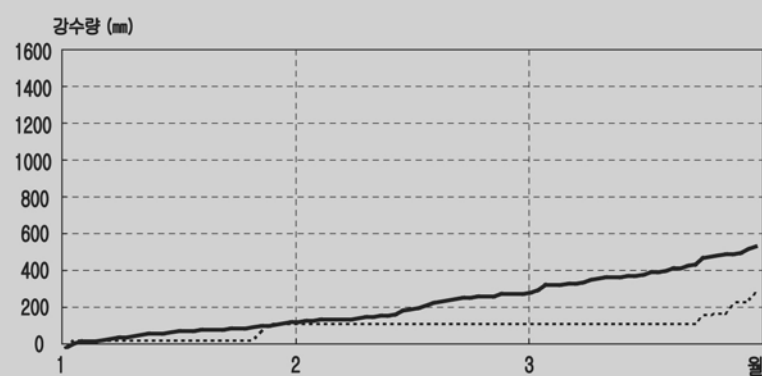
□ 누적 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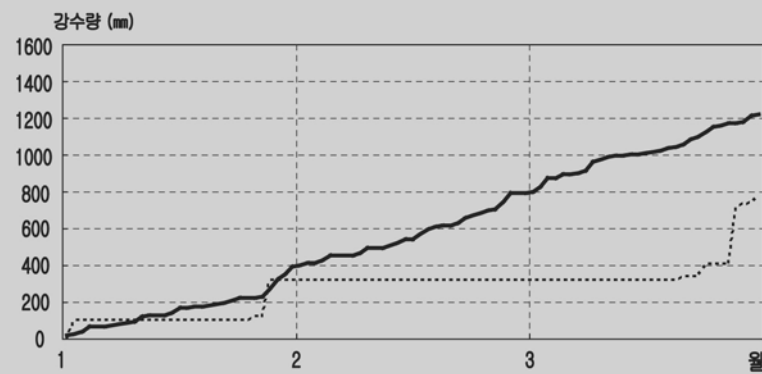
청진



함흥



원산



----- 2007년 강수량 ————— 평년 강수량

M46-9-1 KREI 북한농업동향 제9권 제1호

찍 은 날 2007. 4. 펴낸날 2007. 4.
발 행 인 최 정 섭
펴 낸 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Tel. 3299-4000)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등 록 제5-10호(1979. 5. 25)
찍 은 곳 경희정보인쇄(주) (代) (031) 907-7534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집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확하게 표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